

MAXIM

KOREA

서바이벌 완전정복

재난에서 살아남는 법

착한글래머
엄상미 #2

CJ 6개사 합병

미디어/엔터 공룡 탄생

MAXIM이 주목하는

2011년형 신차 6대

STUFF
갤 Tab vs iPad

SPORTS
국대 신형 엔진 손흥민
NBA 핫이슈

CIARA MAXIM 한국판 독점 화보

얼짱시대 2 김슬미

JANUARY 2011



www.maximkorea.net



ASIAN GAME
GOLD MEDALIST

바둑
이슬아



MAXIM 미공개 화보가
담긴 한정판 캘린더

SEX TALK
토끼를 보는 여자의 생각

BETTER MAN

주짓수 배우기

따뜻한 카카오 제조법

머리 좋아하는 약물

연말 공연 잘 고르는 가이드

MAXIM에 입사하는 법

MORE FUN

오컬트에 대한 모든 것

막장 일본 애니 현주소

허경명 vs. 아이유

2011 온라인 게임 전쟁

임호로 푸는 전쟁 이야기

ICON: 윤종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9 772095 1 015009

ISSN 2095-0152



KENZO

MAXIM Features

January
2011

76 바둑 요정 이슬아

2010년 아시안게임 바둑 금메달리스트 이슬아가 토끼의 해를 맞아 깜찍한 모습으로 2011년을 연다.

26 LOVE

토끼를 보는 여자들의 열띤 토론. 설마 귀엽게 봐줄 거라 생각 하는 건 아니겠지?

47 2010 GIRL NEXT DOOR TOP5

2010년 MAXIM을 초감동시킨 여성 독자 모델들을 직접 만난 스테프들의 촬영 뒷이야기와 이 공개 첫 대방출 코피도 대방출!

74 ICON 윤종신

'본능(작)으로' 느껴졌던 이 남자, 알고 보니 '이성(적)으로' 들들 뚫힌 지독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러게나 말거나 어린이들은 그를 개그맨으로 알고 있겠...

84 일본애니의 현주소

근친 모드에 빠진 익장 일본애니메이션을 살펴봤다. 열도 번드윈송아들이 이제는 정말 막 나가누구나!

102 착한글래머 엄상미 2탄

지난달 MAXIM 독자들을 뜨겁게 달궜던 엄상미의 미공개 화보. 원래는 몇 달 있다가 볼 셈이었지만 최신 달겨졌을 때 치라고 했다!

108 마녀사냥: 치마가 너무 짧다고?

아니오서 치마가 너무 짧아져서 이라해서, 타이팅하고 짧아서 안 된다고? 대체 뭐가 그리 날 또 길고 망망하다는 건가요?

112 CIARA

2011년 빌보드 차트를 다시 뒤 흔들 sexy 아이는 시아라의 독점 화보를 MAXIM 한국판에서만 공개한다.

118 A-Z: 오컬트의 세계

가십메틀이나 보는 파랄한 미신에서부터 생지옥을 기어 올라온 악령을 부리는 무사무시한 술사들의 세계까지 당신은 아직 모르는 오컬트 여행 가이드.

124 정보전: 플러너냐 마느냐 그것 이 문제론대!

정보전의 기근은 우리 군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거다. 연평도에 포탄이 온 한지 최근이나 나몰레옹이 활약하던 시대나 다를 건 없다!



FX
남자의 모든 것

UFC
매주 월-수 밤10시

UFC 임동이선수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FX를 만나고
과월도 받기

tcast

Echannel SCREEN fcastX CING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67 열쌍시대 2 김슬미

예쁜 게 무슨 죄인가요?

8 MAXIM INSIDE

급시니스트의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재탄!
토끼해를 맞이하는 MAXIM
편집부의 송구영신 파티!

Departments



14 CIRCUS MAXIMUS

(도전 슈퍼모델)의 매력녀 애널레이. 따뜻하게 마시는 양주
카테일, 북한 김씨 왕조 3대의 능력치, 그들 중 로리콘은 누
구? 허강영의 10차원 우주 음악 vs. 아이유의 3년 고음 부스
터, MAXIM에 입사하는 팀과 입사 후 경험하는 불쌍한 언어생
활 엿보기, 악물로 머리 좋게 만드는 법, BEAT THE CAPTION

28 FITNESS & SPORTS

주짓수로 정력 키우고 몸 만드는 법, 2011년 주목해야 할 축구
유망주들, NBA HOT 이슈 모음

34 RATED

2011년 온라인 게임 대전, MAMA에 대한 MAXIM의 생각, 국가
스텐의 새 음반과 슈퍼스타들의 잠실주경기장 사랑, 장바비
의 음악 이야기, 서영과 한예림의 뮤지컬 도전기, 돈 안 아깝
게 공연 고르는 가이드, 읽을 만한 새 책

54 STUFF

줄 비싸도 갖고 싶은 남자의 로망 시계, 갤럭시 vs. 아이패드, 폭
박이 디카의 세계를 방자한 색시 랜제리 화보, 굼둥이 씹어
먹는 베이 그릴스 형과 거품목욕하기

86 MAXIM BUSINESS

엔터테인먼트 대합병, MAXIM 법정 3 형벌 재질 강간과 추
행의 죄, 비즈니스맨의 스타일을 살리는 장갑 컬렉션

95 MOTOR

2011년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차 6대를 봤다. 현
대 엑센트 GC1/ 혼다 인사이트13/ 미니 쿠파5/ 렉서스 LS250/
푸조 RC216/ 볼보S90, 국내 시판차량 가격 정보 총정리

131 IN DA CLUB

이번 달 MAXIM의 클럽 파티는 더욱 풍성한 사진과 풍만한
친 가습의 향연으로 당상을 찾아왔다. 새해 기념이닷!

136 STYLE

보도 부족, 당신의 새해 다짐에 대한 MAXIM의 생각, 면도 제
대로 하는 법, 보톡스로 얼굴 라인 살리는 법, 그녀와 당신을
더욱 가깝게 할 커뮤룩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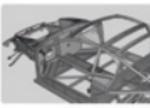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십
 스피라는 티볼을 뺀 한 세대의 정수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티볼을 위한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몸체에 장착되어 있어서는 지극히 무리였을 것입니다. 높은 한계성과의 세밀한 협동 및 정적인 안정으로 공력계산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티볼을 뛰어넘는 새로운 분야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앞뒤 차량에 적용하는 60%의 구조 강도, 40%의 무게로 스포츠카급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무게 증가 및 비동적 강성이 뛰어난 장점. 스포츠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본 비드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비드입니다. 카본 비드는 탄소섬유를 가열하여 열처리 후 두께를 가늘게 제조해 사용하는 신소재입니다. 일단 강도에 비해 가볍고, 내충격력,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게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XIM

KOREA

발행인 / 편집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권해진 / 이사 소상벽

FEATURE EDITORIAL Team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김진욱 146@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이영희 yb@maximkorea.net
박한별누리 nu@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고경희 koko@maximkorea.net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이은혁 eastlocust@maximkorea.net 장미연 Barryme@maximkorea.net
정지범 ddtoll@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벽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김경국 jk@maximkorea.net
홍승희 sculmat@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잔우빈 wubin@maximkorea.net
CRM / FINANCE PLANNING Manager 최정영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홍승희 sculmat@maximkorea.net

교열 신성경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범 / IT Director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ARC STUDIO

iPhone Application 에이티미디어

FINANCIAL CONSULTANT

송강화계법인 / Accountant 김광록 Consultant 조진아

인쇄 · 인쇄분쇄 / 인쇄인 유상근 ㈜상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1D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에이티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5-0593
2016년 1월호 등록 제호승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라 0-00250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실에서 발행되고 20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유행지 MAXIM의 공식 한국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אלי미디어 그룹은 2003년 7월 2일부로 대한민국에 (FY Media)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F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에게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אלי미디어 그룹과 와이티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אלי미디어 그룹과 (FY Media)가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1)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ISK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STEVE MINNITI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 CZECH** Slovakia
-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 TURKEY** Cyprus
- ITALY**
- PORTUGAL**
- BULGARIA**
- GREECE**
- KOREA**
- ARGENTINA**
- BRAZIL**
- RUSSIA**
- UKRAINE**
- THAILAND**
- INDIA**
- INDONESIA**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EXPECT
THE
UNEXPECTED

J&B

MAXIM INSIDE

새해를 시작하며 작년 1월을 떠올리게 된다. 독자님들 모두 작년 이맘때쯤 세웠던 계획이다 이뤄졌길 바란다. MAXIM은 1년 전 막연히 상상하던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헤져만 가는 독자님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낱파 개념을 잊고 일하다보니 어느새 12장의 달력도 모두 넘어간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난 한 해 MAXIM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에디터가 전해주는 기사를 210mm x 274mm 종이 안에 짜 맞추는 것이 아니었다. 잡지 기사를 번신시키고 날개를 달아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핵심전략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다.

해가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패드로 MAXIM을 보는 시대가 왔다. 손쉽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직접 참단 출판 기술을 개발하고 손에 익히는 힘든 길을 택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사무실에서 쪽집을 자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한다. 곧 앱스토어의 경수기일이 끝나면 완전히 디지털화된 MAXIMI 아이패드라는 발을 달고 세상을 돌아다니게 된다. 우선 나오게 되는 건 60페이지 분량의 생생 버전이지만 머지않아 집지 형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살아 꿈틀대는 MAXIM을 선사하도록 하겠다.

침몰하는 거대한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출판 산업은 기술의 힘으로 긴 침체를 극복해 내리라고 믿는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잡지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처럼 밤잠 설쳐가며 출판혁명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같은 목표를 향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혁신의 최전선에서 적잖이 시행착오와 실수를 반복하는 MAXIM에게 끊임없는 신뢰와 격려로 힘을 주는 독자님들께 진심 농도 300%의 새해를 올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년 1월, MAXIM 디자이너 장지영



WANTED



이 세상 그 어떤 토키보다 귀여운 바니걸!



보고 도 보고 싶은
꽃사슴 그녀!



우리나라 최고의 레퍼
조던이 아빠!



물수록 매력 있는 걸스태이
의 바티민 걸!



MAXIM 회원 이후 인터넷을
드잡게 달근 모델 최은정

스타의 사인이 들어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갖고 싶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 1 MAXIM 1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 3개를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이나홈페이지) 또는 트위터에 'MAXIM 1월호 기사 BEST 3' 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 4 블로그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사진가를 적은 메일을 reader@maximkorea.net으로 보낸다.

당첨자는 MAXIM 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호의 행은 VNT의 태가서 좋아서 난생 처음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정승 독자에게 사진 두장의 행운이 기뻐졌다. MAXIM이 보유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술술 바르러 드라고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갖고 싶다면 서둘러 당첨될 시간이 없다.

MP3 FOLDER SEARCH

RELOOP/EXIT

CALL



MASTER TEMPO



PLAY/PAUSE



TEMPO



VINYL SPEED ADJUST

TOUCH/BRAKE



RELEASE/START



REV

FWD

EXPECT THE UNEXPECTED

JET J&B





중국제 토끼귀
동네 문방구
3500원



행복은 혼다를 타고 온다

Ride to Love - Honda

HONDA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는

혼다 스타일의 Chopper

VT1300C X

337cc 프론트 포크 앵글 / 하이 스티어링 마운트 / 컬러: Black, Silver

남성적인 매력이 빛나는

Classic Retro 스타일

VT1300C R

깊고 깊은 디자인의 탱크 / 레우어 박스 장착가능 / 컬러: Black



도시를 유혹하는 세련된

Urban Pro-Street 스타일

VT1300C S

21인치 프론트 휠 / 15인치 리어 휠 / 컬러: Black, Red



마침내 남자의 로망이 완성된다! 혼다 VT1300 시리즈

혼다 **V-TWO-WIN** 페스티벌

10월 31일까지



무이자 리스 지원
(연이자 0.0% 연도, 단개월 할부)다 세



취·등록세 지원

* 두 가지 혜택 중 택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식딜러

강북 딜러 02) 2272-5282
광주 딜러 062) 527-5050

강남 딜러 02) 566-3670
부산 딜러 051) 621-0032

인천 딜러 032) 502-7777

대표전화 **1577-2700**
혼다코리아(주) www.hondakorea.co.kr



Letters

또 한 해가 시작됐다. MAXIM 독자들의 새 출발을 한번 살펴볼까?



독자 편지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3년 시연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갔다 온 날 해어진 안양 시는 준영입니다. 그날.. 그 날은 안양에 첫눈이 오던 날이었죠.. 해어지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창 밖으로 자그마한 눈방울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ㅎㅎㅎ 어쨌든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 내게 남는 것은 맥심 밖에 없더군요. 페인이 되어 버린 나는 힘겹게 잠에서 깨어난 모닝딩을 누며 맥심을 탐독하던 중 독한 시간을 보내주면 티켓을 주겠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맥심을 탐독하는 모습을 셀카찍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깨어난 딱딱한 끼니와 통통하게 부어 오른 눈동자도 열심히 맥심을 탐독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딜 봐서 연예에게 차인 얼굴이 아닌지... 이제 새로운 만남이라도 가려면 공짜 티켓이 생겼다는 바람직한 레전드라도 물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티켓을 구걸하는 운모를 해 봅니다. 맥심이 나에게 티켓을 하사하신다면, 제일 다음 달엔 맥심을 사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다음 달이 되면 가려고 맥심을 사고야 마는 수동 정기 구독의 맥을 끊지 않겠네. 아무쪼록 티켓은 이 불쌍한 모닝딩에게 하사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첨

-채준영
여행 갔다 온 날 해어진 걸 보니 여행에서 뭔가 뭔가 있었군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20p)에 남성 조루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요). 하지만 그 시연을 보내주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침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연인을 찾는다는(요) 바로 이런 시연을 보내주시면 어쨌든 여자 독자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나만) 이분도 1월호를 보고 채준영님의 시연을 보았을텐데 채준영님을 모닝딩으로 기억하겠군요. 첫 인사부터 모닝딩이라니 상당히 험담한답니다. hye9094독자님~ 이 남자분 어때요?

타이틀 <http://twitter.com/MAXIMKOREA>



당첨

혹시 독자모델중에 지금처럼 이른 모델 뽑는것 말고, 다이어터처럼 성공한사람을 화보 찍는 코너 같은 거만도생각은 없으신지. 변화하는것 또한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방화기간 동안 공부하는거와 피운 살을 빼고싶은데 맥심에 성공한 모습이 화보로 나오면 좋을것같은 아주 아주 개인적인 소망이 생겼어요. 다이어터 연예들을 제휴해서 도전자들 자원해줘도 좋을것 같구요. 하하. 에디터. 편집부님들 생각있으시면 제 물음기를 제공해 드렸습니당 꼭 꼭 그리고 전 여자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hye9094

지금도 예뻐지만 저희가 진짜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어요 항상 놀리는 거지만 우리 여자 독자들 왜 이렇게 예쁜 걸니까? MAXIM 독자의 15%가 여자인데 대한민국 1%가 모여있는 듯 하군요. 원복 모닝딩은 맘에 드시나요? 연극 (웃음의 대항해)는 모닝딩과 함께 다녀오세요. 남게는 다른 티켓을 보내드리죠. 둘이 잘 되면 부킹팀으로 정기구독도 하세요.

당첨 김박야! 사형기중 중에 펴를 내서 맥심을 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이 있어 깜짝놀랐습니다. 제시연이 싫었대요. 며칠전 국회에서 김요원의이 조커원에게 맥인 스프레이트 기역나시게요.. 마파람 기화입니다 에디터님 이번에도 글만 올리라고 선물 안 주시면 스프레이트를 보여드리는데수락되었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불쾌메일은 추가하러면 시연조차 싶지 않을시 시교동의 맥심 사무실 앞에서 자율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히 티켓을 내놓으시면 유엔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노킴

WANTED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응모방법]
우편 발송: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연극 (너와 함께라면) 공연 티켓 예매권 한쌍을 선물로 증정한다.

당신의 사장이 궁금하다
재미있는 사연을 보내라. 이번처럼 예쁜 여자 독자와 부킹이 되지 않나요? MAXIM이 이제 별 걸 다 해야겠다. 선정도나 사연 중 1명을 추첨하여 선물을 증정할 거다.

당신 명성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라. 얼굴 맥을 하면서 보는 여자, 수업 시간 중에 보면서 동영상을 찍으며 MAXIM을 보면 남자 흥하면서 보는 남자 이미 나올 건 나쁘다. 우리 더 독특한 상황에서 MAXIM을 보는 독자의 도전을 기다린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2011년 1월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화보를
화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시원한 화면으로 즐겨라!

2010년 12월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짝짤할 거다

12월호 예정했던 출사가 조금 늦어져 정말 미안하다. 앱스토어에는 진작에 등록신청되었으나 아직 애플사의 검수 중에 있다.
연말이면 일상을 놓아버리는 미국 내셔널이라 1월호 넘어가버릴 듯 하다. 항상 기억없는 기다림을 선사하며 동물을 태우는 스티브 잭슨 형이
빨리 MAXIM을 오픈시켜 주길 기다려 보자. HAPPY NEW YEAR!

- 시험버전으로 출시되는 MAXIM iPad App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MAXIM 12월호 60페이지 버전을 맛볼 수 있다.
- 2011년 1월부터 KT iPad 3G 요금제에 가입한 유저는 <올레 매거진> APP을 받아 MAXIM iPad 60페이지 버전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 MAXIM iPad 60페이지 버전으로는 성이 안 찬다면? 용량 문제가 해결된 풀버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쏘~급만 기다려 주시기네!

CIRQUE DU SOLEIL

A MAXIM VIEW OF THE WORLD

MY FIRST TIME

애널리 팁튼

'애널'이라니... 도대체 어떤 부도가 딸한데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하여튼 이름부터 뭔가 남다른 그녀는 퍼거스케이팅 선수 시절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경력이 있으며, 모델 선발 리얼리티쇼 <도전! 슈퍼모델>에서 3위를 차지한 아가씨다. 그녀의 첫 영화 출연작 <그린 호넷>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심지어 배역 이름도 '애너 리'다). 그녀의 첫 경험에 대해 더 들어볼까?

PHOTOGRAPHS BY PATRICK HOELCK

나이: 22

고향: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좋아하는 만화: 아메리칸 청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고전 만화. (아자와 씨파미 아이다)

첫 자동차: 롤라라고 이름 붙인 포드 토러스 워건

숨은 재능: 재롱, 팔을 만들어 안장을 찾는다. 특히 파이를 잘 만든다.* 오, 아메리칸 애널 파이 인기가?

처음 좋아하는 스타: 일러진이 실제 인물이기 바람직했다. 꽤 색시했다.*

다음 영화: <크레이지 스톱피드, 리브>에서 스티브 카렐의 상대역. "그의 아이를 몰보다 애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는 17세 베이비시터를 연기한다."

스위치하러: "USC(미국의 영문 대학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웠다. 배우, 스타벅스, 화려한 자동차 같은 것에 몹시 비관적인 학생이었다."

MAY 10US

첫 키스

디즈니랜드 귀신의 집에서 했다. 나랑 가구를 같이 탄 남자애가 키스해도 되 나고 몰랐다. 난 영화에서 나오는 공주 남들의 키스 같은 걸 기대했다. 하지만 크고 끈적끈적하고 질척한 혀가 내 목 구멍까지 들어오자 "우웬" 소리가 절로 났다. 그리고 남자애를 밀쳐냈는데 애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었다. 둘이 놀이기구에 탄 채로 평평 울었다.

첫 패배

일곱 살 때 피겨 대회에 나가서 (올리버 트윈스트) 음악에 맞춰 춤을 쳤다. 화려하고 빈백이는 녹색과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 모습은 마치 마법에 걸린 마시멜로 같았다. 결과는 4등. 또 평평 울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도 단상에 올라갈 수 없었으니까.

첫 자동차 사고

16세 때 일이다. 새벽 2시에 파티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나를' 치었다. 아마 그 녀석은 광견병에 걸렸거나 죄 없는 다른 동물을 죽이는 그런 놀이였을 게 분명하다.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만 하려고 생각해야지.

첫 누드

(도전 슈퍼모델) 촬영팀이 나와 다른 여자애들이 욕조에 있는 장면을 찍었다. 커진 방탈과 미야의 나라 네덜란드였고, 욕조는 허니뷰에 없었으며, 준비할 시간은 단 20분이었던 말이다. 그리고 난 즐 썩고 싶었다고!

영화 (그린 호른)은 7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영화 예고편
보러 가기

허경영의 10차원 우주음악 vs. 아이유 3단 고음부스터

아이유는아이유 3단 고음부스터로 우주를 정복한 미담에 10차원 우주음악이 설 자리는 없다.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아이유 3단 부스터 좋은 날 VS 허본작 10차원 우주음악 로ایت나우

중독성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어어어어어—열"에서 모든 세계관이 무너진다. 무한 반복 청취	후반부로 갈수록 찾아지는 그의 이름 사무됨 때문에 듣는 사람 부끄럽게 만 든다. 1회 이상 청취 불가	WIN
핵심어구	"아이유" 애교 톤은 이 한마디가 시름 미 치게 한다	"허경영을, 허경영을, 허경영을, 허경영을." 5.26초에 한말만 나오는 그의 입을 붙였지 만 잘~거운 일 신는 일이안생겼다.	WIN
파괴력	너 때문에 오빠 심장 터진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리고 잘생겨자나! 싫어 빠져지 지 않은 건 확실하다(김상현이 에디터를 사용 하여 실형해보았다).	WIN
가창력	4단 부스터도 가능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랩을 '읽는' 초능력	WIN
인무	인무, 울통 필요 없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연세에 비해 유연하나 공중부양 댄스들 눈으로 보기 전에 인정 못한다.	WIN
상업성	동음을 약속하고 해도 신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거, 재미있는 친금세.	WIN
외모	만났으면 뒀던 간에 격하게 아깝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제길. 이 비교 항목 자체가 그에게 미 안할 따름이다.	WIN

아이유 우주 정복 성공
오빠도 아이유가 좋은 거어어어어어—열!!!! 휴, 어떡해!

HUHR-ISH

허경영의 남자

노래를 만들고 피쳐링을 한 본좌엔터테인먼 트 박빙기 대표에게 물었다. 대체 왜 다시 우주 음악 타령인가?

왜 뒀에서 세한텐 댄서가 허경영과 춤을 추는가? 이번엔 여가수 칭어가 없어서 여자 댄서를 선택했다.

그럼 대체 왜곡인은 왜 나오나? 모든 지우인들이 허경 영을 찾는다는 우주적 참모이다.

허경영은 류비 출연을 즐거워했나? 한정에서 스태프 들과 같이 앉아 도시락도 꺼려했다. 예제가 넘쳤다.

신인 일례 유지선이라는 음반 프로듀서는 원래 뭐하는 사람인가? 신인은 애초에 이틀 공개를 꺼려 새 이름을 지었다. 이 바락에서 좀 일러진 작곡가다.

그 바락에서 유명한 스태프를 쓰면서 장타 피쳐링은 왜 본인이 했나? MC중이나 JYP 신인 2배로 신인 피쳐링 해만 권했다고 생각했는데 MC중은 의제가 생겼고 신 이는 대우와 로ایت나우 발매 시기가 겹쳐 고사했다.

플레이 무한 샘플링이다. 슬지러 너무 우려먹었다. 아 니다. 로ایت나우는 전 전 플레이 콘서트에서 쓰고 반송 이 좋아 할애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이번처럼 다른 SES 모 프로 때문에 타격을 받아 내놓지 못했다. 허 경영 허본작 류비 촬영방 생겼다. 비운의 곡이다.

플레이 수임은 합법이었나? 범할 수 없지만 권할 것이다.

10차원 너머엔 무엇이 있나? 사람들이 우주음악을 따 라부며 바라는 바를 이루니 그 자체로 최종 결정만 이다. 그래서 10차원 이상은 없다.

별써 회박인가? 더 이상 곡 빌다는 없다.

MAXIM 회보로 만나고픈 여자는? 레디! 가가. 피격 적 행보가 허본작과 같았다.

[숫자로 본 로ایت나우]

노래 속 그의 이름이 붙은 총 횟수: 50
이름 세졌다고 어시스턴트가 유비할 뿐 총비: 14
어시스턴트가 건강해졌다고 생각한 횟수: 0



가는 1월 10일 로ایت나우 발매 후 1주일 뒤엔 거지다.



Experience the Tank system

OVALE™ eGo-T™ 탱크 카트리지는

기존 카트리지 속에 적은 액상 충전방식을 보완하고,

숨을 사용하지 않은 탱크카트리지에 1.2ml을

충전하는 액상 자유낙하 시스템입니다.

• 오벨은 전티크라이의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 명칭입니다.

※ 탱크 카트리지 액상 주입 방법



• 고객센터 대표전화번호 070-4131-1350

•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운영 www.Ovalekorea.com

경고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H: 16mg M: 11mg L: 6mg]



뜨거운 것이 좋아

이 겨울, 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 남은 친구인 술마저 차가우면 서러움이 커진다. 뜨겁게 몸을 섞은 독특한 키체일을 소개하였다. 취향별로 즐기자. BY 이영미



CIRCUS MAXIMUS DRINK

→아침부터 진한 달리기로 다짐했다면:

6. MAXIM 머드

- 잭 다-멜스 60ml (사실 술이든 뭐든 상관없다. 지금 에디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술병을 집었을 뿐)
- 커피 120ml
- 아이스크림

→전에다 커피와 술을 붓고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만큼 얹어라. 에디터가 단골 해물탕집 어린이 놀이방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서 애매하게 재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 마시는 후식 제조법을 응용한 것이 대용량-술 타기!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하니 고집로리 MAXIM 머드로 하루를 시작하자. 한 잔 갑옷과 바로 하루를 마감하는 빨고 굶은 하루!

→스카치위스키를 좋아한다면:

5. 켈트 버너(핫 스카치)

- 스카치위스키 30ml
- 드림부이 7~8ml
- 크림드 카카오 15ml
- 풀인 우유 120ml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술과 함께 잔에 담고 살짝 저어 마신다. 스코틀랜드 남자들은 이걸 얼마나 마실까? 아마 켈트가 아래서 보면 욕봉이 흰기 보이는 케리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할 때까지겠지.

→버benen을 좋아한다면:

4. 켈터기 티

- 버번 30ml
- 잉고스투라 비티즈* 5~6병을
- 뜨거운 홍차 150ml
- 레몬 조각
- 설탕

→술과 잉고스투라 비티즈, 홍차를 보온이 되는 컵에 담는다. 설탕으로 맛을 낸 뒤 레몬으로 장식한다. 하지만 재료 구하는 게 힘들어 도중에 제조를 포기할 공산이 높으니 위의 사진을 보여 맛과 향을 상상하는 걸로 만족해도 좋다. TV 속에서 일영이는 씨스타의 영영이를 보여 학박하는 거 뭐 더 자극?

* 잉고스투라 비티즈는 흔한 맛은 레리쿠라. 키 데일 비엔 있지만 일반 주류에서 구하기 어렵다. 난데로 시장이나 주류전문점에서 찾아볼 수 있. 읍지도 모른다.

→아이리시 위스키를 좋아한다면:

1. 핫 부시

- 부시멜스 블랙 부시 위스키 30ml
- 풀 1술가락
- 레몬즙 2티스푼
- 뜨거운 물 60ml

→위스키 풀, 레몬주스를 머그잔에서 섞고 뜨거운 물을 부어 채우고, 당신의 외로움과 풀이 함께 녹아 사라질 만큼 적는다.

→럼을 좋아한다면:

2. 캐리비언 그로그*

- 다크 럼 60ml
- 라임주스 1술가락
- 황설탕 티스푼
- 뜨거운 물 120ml
- 오렌지 조각 1개
- 시나몬 스틱 1개

→럼과 라임주스, 설탕, 뜨거운 물을 잔에 붓고 오렌지와 계피 막대로 장식한다. 한 잔씩 그네와 나누다보면 시나몬 스틱 대신 당신의 매직 스틱(천연가죽 100%)으로 그녀를 취할 수 있겠지.

*그로그 형에 물을 탄 것

→와인을 좋아한다면:

3. 멀드* 와인

- 피노누아 와인 2병
- 포트와인 또는 브랜드 120ml
- 정향 12알
- 시나몬 스틱 4개
- 캡질 벗긴 오렌지 큰 것 1개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고 20분 정도 데운다. 팔팔 끓이면 마라. 이제 한잔 퍼서 시나몬 스틱과 약간의 육두구 파우더로 장식하여 향을 더한다. 우왕, 긴장대란

* 멀드 설탕, 향신료를 넣어 데운 술

북한 김씨왕조실록60년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매간줄 아내 어린 빨갱이노무시키가 연평도에 대포알을 박아넣는 바람에 우리 장병들이 거의 두 달째 휴가를 못 나오고 있다. 안그래도 G20 때문에 휴가 못 나왔는데 애인 들 바람나면 책임질 건가. 아, MAXIMI! 안 팔릴까봐 그러는 건 아니다. BY 유승민



구라: 아예 '김일성'이 아니다. 일제 때 독립군의 보천보 전투 영웅으로 알려진 전설적 인물 '김일성 장군'이 되고 싶었던 김성주(김일성의 본명)는 해방 후 33세의 나이로 자기가 바로 김일성 장군이라며 구라를 치고 다녔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꾸준히 우기티보니 효과가 있었다.

외모: 카리스마 있는 올백머리에 인물이 제법 잘생긴 편이다. 하지만 뒤통수에 달린 주먹 만한 혹이 다 말아먹었다.

관상: 관상학에서 최고로 치는 봉황의 얼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자손에게도 물려주는 상.

개인기: 축자법. 땅에 주먹을 잡고 걸으면 축자법이 가능하단다. 그럴까?

섹스: 피식. 로리코이었어? (오른쪽 참조)

사후: 왕 자리를 물려받은 이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묻어주질 않고 박제를 떠버렸다. 쫓쫓. 동유럽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자랑 같이 전시될 가능성이 높다.



구라: 김일성 사망시 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는 슬픔이다.' 근데 생전에 김일성이 묘향산으로 오

양 갈 때 김정일이 김일성 수행비서장에서 의료진을 빼버렸지 않아?

패션: 라면머리에 지하철 영범이 선글라스

관상: 관상학적으로 사자의 얼굴이다. 나쁘지 않다. 현상 유지를 잘하는 상이다.

개인기: 옥수수 밭이 핵폭탄 만들기

섹스: 기쁨조와 매음을 즐긴다. 김일성보다 로망을 훨씬 많이 한다.

사후: 이비를 본받은 이들에 의해 박재민 후 서울옥성 골동품 경매에 등장한다.

구라: '천안함, 연평도에 무관하다'

패션: 김일성 코스프레

관상: 할아버. 아비와 달리 이마가 좁으며 입꼬리가 처져 말년운이 좋지 않다.

섹스: 어린 능이 벌써 저렇게 살이 찌서야 골휴가 벅 속으로 속 들어가 있을 게 뻔하다.

미래: 통일이 되고, 군대에 간다. "이형 김정은?"

LOLI - LOLI -

"너만한 손녀가 있어서 그래"

그냥 축자법이나 쓰지 그래

역사 속 폭군이나 독재자들은 다들 생생할 해하는 시편사편했다. 스리성 포성에 주지유림을 실현하곤 했는데 '악의 축' 남이 고작 로리코이잖나! 뻔 오죽전 중국의 포털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든 사건이지만 혹 사람도 못 본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살펴서 MAXIMI 에 끼워 넣어 본다. 엔타이 아메리칸요



그의 아들은 조금 소심한 편이다.



왜 아저씨 너 사랑하면 안돼?



MAXIM 입사시험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MAXIM은 대대적인 공채시험을 실시했다. 당시 2천명에 육박하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를 냈고 그 중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건국대학교에서 필기시험을 봤다. OMF카드 같은 건 없다.

그 때 시험을 봤던 독자가 있다면 쓰린 기억을 떠올리게 해 미안하다. 1년 만에 당시 객관식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다. 여기 나온 문제들을 어려움 없이 풀어 낸다면 당신은 MAXIM 에디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 지면이잖아 모든 문제를 보여주진 못하지만 만약 다음 MAXIM 매거진의 공개채용에 지원할 생 각이라면 여기 나온 문제를 풀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라. *2010년 1월 당시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출제된 가라 지금은 정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1. 잉글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다 음날을 휴일로 삼고 대규모 세일을 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3~4일 간격으로 많은 경기가 열렸던 12월 말 일정을 의미한다. 이 휴일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① 사카데이 ② 퀸스데이
③ 북상데이 ④ 뱅크데이



2. 2009년 프로야구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가이 타이거즈는 전신 해태 타이거즈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지 1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다.
② 시즌 타율 1위는 두산의 김현수 선수다.
③ 골든 글로브 투수 부문 수상자는 가이 타이거즈의 용병 로페즈다.
④ 정규 시즌 최다 관중 동원을 기록한 팀은 롯데 자이언츠다.

3.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와 팀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기성용 - 셀틱
② 박지성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③ 이청용 - 볼턴 원더러스
④ 조원희 - 울럼

임마, 나
맥심 나왔어!



4. 다음 중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아닌 곳은?

- ① 오스트레일리아 ② 이탈리아
③ 미국 ④ 캐나다

5. 추신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추신수는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로 20홈런-2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② 동양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③ 추신수는 2000년 시애틀 매리너스에 입단했다.
④ 올타임 주전 외수로 뛴 지 2년 만에 3할의 타율을 기록했다.

6.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다하면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2010년 월드컵까지 ()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남북한이 월드컵 본선에 동반 진출한 건 총 ()회다.
-이탈리아는 월드컵에서 총 ()회 우승을 차지했다.

- ① 9 ② 10 ③ 11 ④ 12

7. 다음 스포츠 스타 이름과 활동 분야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 ① 우사인 볼트 - 쇼트트랙
② 로저 페더러 - 육상
③ 랜스 암스트롱 - 사이클
④ 마이클 펠프스 - 야구



8. 영화 제목과 그 영화의 감독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 ① 전우치 - 최동훈
② 이바타 - 제임스 카메론
③ 국가대표 - 김지운
④ 마더 - 봉준호

9. 다음 시상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골든 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 외산/자립회에서 수여한다.
② 2003년 로테르담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질투는 나의 힘)으로 타이거상을 받았다.
③ 매년 호주 선댄스에서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는 인디 영화제이다.
④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출발하였다.

10. 혈통 감식에 쓰이는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로 과산화수소나 하이포염소산 염 등으로 산화하면 자형색 발광(發光)현상을 보이는 이 물질의 이름은?

- ① 루미놀 ② 타이몰루
③ 탐구-루저 ④ 셀레늄

11. 다음 중 현재 가장 멤버가 많은 그룹은?

- ① 에프타스쿨 ② 2AM
③ 비스트 ④ 티아라

12. 주로 미국 유명 스타들의 가십을 다루며, 이요리, 박명, 2NE1 등 한국가수를 소개하기도 한 미국의 유명 연예 블로그 이름은 무엇인가?

- ① perezilton.com
② celebrityzone.com
③ celebrityszone.com
④ gossipgint.net



머리 좋아지는 약물

구하는 방법은 모르겠다. 파병 부려 군대도 안 가는 마음에 파병으로 처방을 받는 건 일도 아니겠지 만 걸리면 X나 쪽팔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 니 엄청난 생각일랑 어서 잡아라. 어이 거기 약국 습격하겠다고 버리는 놈 정신 차리게. 이 친구야 "효과의 부작용은 투여량과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이 저치 북북북인가 일집이?"



● 애덜럴

효과 집중력을 높이고 일상적인 일의 능률을 올리며 각성 효과가 있다. ADHD(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쓰인다.

부작용 중독, 두통, 현기증, 심장마비 등. 캐나다 보건부는 이 약물이 급작스런 사망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장신의 선형 땀을 흘리고 뚱뚱해지거나, 장수하는 비보가 되거나.



● 바소프레신

효과 새 기억을 머리에 박아주는 뇌하수체 분비물로 학습 효율을 올리는데, 특히 남자에게 효과가 좋다. 참고로 요붕증(미친 듯이 소변을 싸는 병)에도 효과적이다.

부작용 험심증, 한기증, 색백가림, 과도한 트림, 혼수 상태 등.

장신의 선형 색백가림이 기절하는 변태로 오인 받거나, 바보 남자로 기억되거나, 아쟁이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겠다. 그럴 땐 가라.

● 메탐페타민(필로폰)

효과 집중력, 창조적인 사고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오래 복용하면 미치거나 비보가 된다. 참고로 아무도 당신을 건들지 못할 가아.

부작용 파킨슨 병과 유사한 증상, 중독, 뇌졸중, 정신 병, 감옥형 인생 퇴짜로 ~ ~ 등.

장신의 선형 잠깐 기분이 좋아지거나, 앨런트 감성인과 감방 친구가 되어 그의 끝없는 방언을 받아주거나.



● 니코틴

효과 화학 구조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비슷하여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정보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부작용 중독, 암, 사회적 격리를 연자의 경우 등.

장신의 선형 친구를 모두 흡연자로 바꾼다. 혼자 가는 자승길이나, 아니라 외롭진 않겠지.



● 물리프렘

효과 우울증 치료제로, 뇌 속 신경연결을 개선하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올린다. 적어도 쥐새끼 대상 실험에선 먹혔다.

부작용 두통, 한기증, 구토 등.

장신의 선형 우울하고 명청한 인간으로 살다 가거나, 뚱뚱한 쥐가 되어 고양이한테 먹히거나.



● 아리셉트

효과 치매 치료제로 상인들의 기억력 감퇴와 언어 장애를 치료한다.

부작용 어지럼증, 설사, 기절 등.

장신의 선형 평생 어리버리하게 살거나, 설사를 지리며 기절한 채로 발견되거나.



MAXIM IS HOT



우리 아이들이 마쳐버렸어요!

2018년 1월호를 만들면서 MAXIM 사무실을 훈훈하게 만들어 준 멘트들.

- 5위 "이거 다리를 좀 빌려주세요." 기하학 집중력 대가 사다리를 받고 있던 고경희 에디터에게
- 4위 "더 세계 조여야하나요?" 컴퓨터를 조립하던 심희성 에디터가 이은학 디자이너에게
- 3위 "아뇨, 너무 조이면 망가지요." 이은학 디자이너의 대답

- 2위 "이것 좀 찾아주세요." 유승민 에디터가 실거주하던 컵가림을 감상한 에디터에게 내걸며
- 1위 "최송해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디자인팀 마스코트 장미연 디자이너가 유승민 에디터의 옷에 반찬을 흘린 후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에에에~)



토키탕 끌어버린다.

LOVE

조루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느냐?
강종강.. 아이야, 벌써 가버린 게냐. 성미도 급
하구냐 BY 이영미

▶ 조루는 자기 맘대로 사정을 조절할 수 없는 증상을 말한다. 예방법도 명확한 발생 원인도 알려진바 없다. 이렇게 근본 없는 녀석이니 상대하기 어렵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다. 하지만 21세기 좋다는 게 뭐가. 치료는 가능하다.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도록.

RABBIT TALK

이번 1월호엔 토끼해를 맞아 인간 토끼 남자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었다. 사실 물론 아니다. 대한남성과 학회기 비교하기와 찰자 엮은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루증을 앓는 남자의 이혼율이 정상 남성의 이혼율을 2배 이상이다. 토끼 인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 통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물론 본인 몸매 달린 초고속 발사 시스템을 건다 못한 남자 쪽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일도 다반사일 거다.

현황 파악한 청춘인 당신은 토끼 이야기가 본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연령에 무관하게 남성 10명 중 3.4명이 조루 증상을 겪는다. 그러니까 남자 3명이 4명이면 그중 1명은 오늘날 침대 위에서 눈물의 토끼죽을 춘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늘엔 조루니 뭐니 하면서 겁을 주려는 건 아니다. 그런 언젠가 당신에게도 올 수 있는 생각육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리 알고 있으려는 거다. 알고 있으면 뭐 달라지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달라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래 그책의 이야기가 들어보라.

들라, 관심 없어

얼마 전까가 주영훈이 조기중풍증으로 군대를 안 갔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왔다. 난 그게 조루를 말하는 건줄 알았다 싶다가 그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고 생각하니 진짜 웃긴 거다. 조루? 조증? 조발정? 조루가 아니라 사실도 곧 알기 됐다. 요는 그 정도로 내가 남자의 성 기능에 대해 잘 몰랐던 거다. 실제로 분석도 없고 어느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조루인지도 모르고.

-K23세, 대학원생

고추가 작으면 조루라지요? -J23세, 은행원

나쁜은 상관없는 일 네 평생 조루가 될 일이 아니냐? 더러 여자가 빨리 절망에 다다르면 오히려 남자들이 더 부흥해버려야하지 않나. 난 순기능으로 아래를 조루만 자극해도 금방 오르가슴을 느끼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무척 즐거워한다. 만약 남자가 빨리 거버너다는 건 색소를 오래 줄기지는 못하지만도 본인은 아랫근사 성적으로 만족했으니 된 거지 결국 싸는 건 사람야 -L27세, 회사원

토끼 요분칠구덩이는 의미는 아니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거나 별로 대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신이 그녀의 생리통이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루가 일어나 당사자에게는 스트레스인지 그책들은 잘 모를 수 있다. 조루의 폭발력과 좌절감, 자존심 상하는 정도에 대해 그녀가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는 기대는 버려라.

그녀자나 에디터의 질문에 조루가 뭔지 모른다고 가 웃음 순진한 표정을 짓는 나잇살 때 먹은 여자들도 몇몇 만났는데. 이거 순진한 거야고 엄청 행복 혹은 엄청 여우다. 모르면 들라도 둘 다 무척 피곤한 스타일이 된 것만 짚고 가자.

알마어저 놀러드러까요?

보통 남자들은 30분 정도 하지 않나? 나한테 조루의 기준은 넣고 난 뒤 5분이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W23세, 회사원

1~2시간 정도는 같이 뒹굴어야 만족한다. 정작 삽입 시간은 20분도 안 되는 것 같다. -K26세, 캠퍼지아너

처음 넣고 한 5분 정도가 가장 흥분되고, 그러다가 5분 정도 아래에 내가 클리토리스 자극으로 오르가슴을 느끼 다음에 한 10분 안에 그가 미친 듯이 돌진해서, 한 20분 정도면 되겠다. -P23세, 무직

4명에서 4시간까지 마음대로 조절 가능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S24세, 타투리스트

남자지라 싸지던 않으면 삽입 자체는 짧아도 상관없다. 호모 사피엔스는 도구와 손을 이용할 줄 아는 동물이므로. R20세, 대학생

2009년 한 재안회사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생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지점은 시간, 건강도, 그리고 크기가었다. 하지만 색소가 시간! 색상이라는 불행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 않다. 여자들은 색소 시간! 정말 보다는 그 시간의 질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끼라는 높은 상대와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기 도 전에 혼자 목죽 타뜨리고 심매인 타뜨르서 선물들 다 깨놓는 약탈한 놀이다. 첫기략질 시작도 안 했는데 밥상 가득이던 거부터 나쁘잖나. 여자는 만족시키면 몇 분, 아니 몇 시간이나 못질을 해야 할까. 에디터도 얘기를 나는 20대 여성들의 최소 삽입 시간 기대하는 20분 내외였다. 음, 200만 숫자를 맨 단상! 토끼들이 갑자기 공군하다. 아했거나 20분 내 내 키 못고 달릴 필요는 없다. 아했거나 여자들이 토끼도 부르는 것은 본인이 오르가슴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남자 혼자 목죽 타뜨리고 먼저 끝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꼭 그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거가 질이나 클리토리스가 받는 자극으로 절정에 도달하도록 삽입 각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제 삽입 시간은 짧지만 여자가 가는 질적, 양적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비결은 다음 달에 후.

토끼를 보았나

평소 호감있던 그녀에게서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그는 내가 정말 보고 싶다고 했다. 할중음까지 내면서 그거사는 걸 알았어 갔다. MT가까 직행했지만 몇 분도 못가서 끝중음까지 소리쳤다. 그 이후로 그의 연락은 파하고 있다. -L25세, 의대생

길거리 행병을 당한 날, 그대로 그와 MT가 갔다.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애무하며 그대로 고고상~ 했지만 몇 분만 갔다 하지도 않으니 금방 끝났다. 정정했더니 "너 너무 애해서 내 것이 네 맘대로 안 돼"며 너를 꼭안았다. 그와 몇 한 번 재해서 진짜 내가 너무 애해서 그냥 하루만 그랬는지 조루인지는 모르고. 아 네가 그 정도로 애안17? -M28세, 고학생

남자친구와의 10분 중 8분은 뿔도 안 돼서 끝났다. 그래서 그와 잔 다음 날엔 색소 피너를 호출했다. 그렇게 뽀뽀하게 끝난 다음 날엔 색소가 미처도 멍니까 -P23세, 무직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민망해 할까봐 괜찮다고 다독여 줬다. 하지만 이제는 짜증만 솟구친다. 근데 이놈이 괜찮다고 하니가 진짜 괜찮은 줄 안다. -L27세, 의사

아무리 사랑해도 토끼와는 오래 만나거나 결혼할 생각 전혀 없다. -H28세, 공무원

너무 빨리 끝난 그에게 또 하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다. 그냥 일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줬으면 좋겠다. -L29세, 회사원

여자가 토끼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띄었다. 예를 들어 원나잇에서 토끼를 만난 경우는 연락을 파하며 여자는 만지지 않는다. 당상이 토끼가 되었을 때의 여자는 만지지 궁금하겠지? 현재 1년 꽤 뜨겁게 연애 중인 대학생은 어떻게 말했다. "저는 남자친구를 색소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 둘 사이의 색소는 그 어떤 사람과 했던 것보다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가 토끼 성행을 띄게 되면 처음엔 괜찮다. 괜찮다 해주다가 결국 버림을 피우거나 그러다 헤어질 것 같다." 그 말했다. 토끼들이야. 울지 마. 

Q. 조루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

A. 세계보건기구의 조루에 대한 정의는 "토끼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원치 않음 때 클리토리스에 도달해 버리거나, 질내 삽입 혹은 최초의 자극으로 오르가슴을 느껴 생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는 경우" 라고 내리고 있다. 조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세계생의학회의 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삽입 후 1분 이내 사정! 일어나거나!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삽입 후 사정!을 지연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로 인해 색소가 귀찮고 파하고 싶고 좌절스러운 경우"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를 조루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주짓수 무리수 아니거든!

브라질출생 격투기 주짓수님이 당신 몸을 튼튼하게 해주실 거야.

BY 김광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이희성

주짓수 블랙벨트

이희성 주짓수 아카데미 관장

당신에게 주짓수란?

워킹 내 삶이지. 하지만 솔직히 주짓수를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업(業)으로 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블랙벨트를 뒀을 때의 기분은 어땠나?

그냥 무덤덤했다. 블랙벨트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호들갑 떨 일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주짓수 블랙 벨트가 드물긴 하지만.

당신 혼자 성인 남자 몇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나?

2명 정도? 사실 잘 모르겠다. 매일 연습하는 게 사람 잡는 기술이다. 일반인과 자칫 싸움이라도 했다면 그 사람을 황천길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싸움 생각은 애당초 하지 않을 것이다.

하긴 그렇겠다. 당신도 운동하는 사람 아니 술, 담배는 안 했었지?

담배는 안 피우다. 술은 사회생활 때문에 소주 3잔 정도까지는 마신다.

주짓수가 헬스보다 좋은 이유는?

헬스는 혼자 하기 지루한 운동이다. 주짓수는 운동량은 만만치 않지만 대련을 비롯해 사람들과 함께 배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다. 무엇보다 3~6개월 정도 꾸준히 배우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와 상대해도 겁나지 않는 거다. 잠밤이 쌓인 수련생은 눈빛에 반짝반짝 생기기가 돈다.

여자 수련생도 적지 않더라.

서로를 맞잡고 하는 운동이라 처음에는 어색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즐겁게 수련한다.

그저 참 슬깃한 소리군. 미자막으로 MAXIM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짓수는 정력에 좋은 운동이다. 일잘나(하)

柔術



이런 거 참 보는 거?

Q+

ASK MASTER

이희성 관장에게 물었다. 그는 장으로 선생의 이야기를 해주었다요



궁금해요. 권장합니다.

Q 하체가 부실한 오덕도 주짓수의 고수가 될 수 있나요?
-아기다리 소유자 김오군-

A 물론이다. TV에서처럼 실랄하게 훈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집어치워라. 훈련 강도를 미리 정해두고 대련하기 때문에 무리할 일이 없다. 오히려 하체를 비롯해 온몸의 근육을 쓰는 운동이라서 고질적인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거짓말 아니다. 우리 체육관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수련생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꾸준히 훈련 하더니 디스크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체 힘이 특히 중요한 운동이라서 정력 증진 효과도 그만이다. 한층 강력해진 파워로 그대를 홍콩 보내줄 거다. 아메. 주짓수가 미구 배우고 싶어서지?

FIRST STEP

주짓수의 기본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희성 주짓수 아카데미 홈페이지(www.bjcc.kr)를 방문할 것

STANDING GUILLOTINE

※ 길로틴 초크를 일어난 상태에서 하면 스탠딩 길로틴이 된다. 타격으로 승부하는 크로킥도 이 기술을 사용해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김상현(아티, 승하기 3단 35세)

대니얼 프랭크(시범, 주짓수 3단 34세)



1 팔을 뻗어 상대의 뒷덜미에 당신의 팔을 갖다 댄다.



2 상대의 뒷덜미를 당겨 고개를 숙이게 해 당신의 커드랑이에 끼워라.



3 손목안에 유레이플 경험 한번까지 갔다. 고수에게 당해보면 알 것이다. 이 기술의 이름이 왜 길로틴이냐고 물어라.

SIDE POSITION ARMBAR

※ 자켓대의 원리를 이용해 상대의 팔꿈치를 쥐는 기술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절기이다.

상대야 덩치가 크고 힘의 차이가 월등하다라도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기본이라고 할보다가 연습으로 초소속 매트를 두드렸다. 그동반 암바에 당해 GG를 치는 것부터 신수를 무시한 것 사라야한다.



1 왼손으로 누워 있는 상대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누른다.



2 상대의 팔을 잡은 뒤 다리를 당겨서 자세를 바꾼다.



3 왼쪽 다리로 상대 머리를 고정시킨 뒤 팔꿈치에 압박을 가한다.

스트레칭

주짓수는 전신운동이고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다른 어떤 운동보다 중요하다. 격한 운동을 하기 전이라면 지금 소개하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여 부상을 줄이자.



1

1. 자리에 앉는다. 왼쪽 다리를 접어 몸쪽으로 잡아당긴다. 이때 잡아당긴 팔이 오른쪽 어깨까지 닿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

1. 편하게 등을 대고 눕는다. 오른쪽 무릎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왼쪽 다리의 끝을 살짝 걸치듯 올려둔다.



3

1. 손을 어깨-허벅지만큼 벌리고 앉는다. 이때 왼쪽 다리는 왼손 가까이 끌어당기고, 오른쪽 다리는 편 채로 들어준다.

Maxim Sp

NBA SCOOP

놀랍다, 문태종!

4쿼터의 사나이라고 불러주오.



2010~2011년 시즌 처음으로 KBL 무대에 일곱을 비친 문태종(전자렌드/36)의 활약이 대단하다. 지난 몇 년 간 국내 여자 팀의 러브콜을 받은 선수답게 소속팀 전자렌드를 1위로 이끌며(12월 기준) 이듬감을 톡톡히 해냈다. 시즌 성적은 17.7점, 3.10시스트, 3점슛 성공률 41.1%로 서장훈, 신기성, 허버트 힐과 함께 뛰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준수한 기록이다. 영광도 만점이다. 그는 이번 시즌 4쿼터 평균 득점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전반엔 잠잠하다가도 후반에 들어서면 '마침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덕분에 전자렌드는 올 시즌 가장 많은 역전승을 거뒀고, 언론은 문태종에게 '타짜'라는 별명을 붙였다. 허재나 김남기, 유재학 같은 KBL 현직 감독들이 "우리 팀에도 문태종 같은 선수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애구동성으로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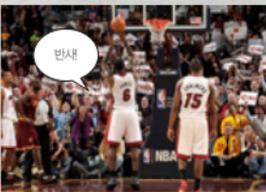
조지 칼 감독, 1000승 달성



덴 버 네게츠의 조지 칼 감독이 NBA 개인 통산 1,000승 고지를 밟았다. 칼 감독은 2010년 12월 10일, 토론토 랩터스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1,679경기 만에 대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두 번의 후두임을 극복하고 쌓은 업적이라 더욱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사예를 슈퍼소닉스, 밀워키 벅스, 덴버

네게츠를 거친 그는 25년 넘게 NBA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왔다. 선수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덕장 타입으로 몇몇 국내 팬에게 까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 60년이 넘는 NBA 역사에서 1,000승을 달성한 감독이 단 7명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르브론의 고향 나들이



지난 여름, '더 디시전(The Decision)' 쇼를 통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르브론 제임스가 첫 친정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0년 12월 2일, 마이애미 히트 유니폼을 입고 퀸스 론스 아레나를 찾은 제임스는 고향 팬들의 엄청난 아우와 갖은 합박(?)에도 39점, 8어시스트로 맹활약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경기 시작 전에 선보이는 르브론 특유의 '송진 세리머니'도 변함없었다. 한편, 캐벌리어스 팬들은 히트를 떠난 르브론을 조롱하는 응원 문구를 대량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많은 건 "You're only a prince in Wade's country(넌 단지 웨이드 나라의 왕자에 불과해)"다.

앤트완 워커, D-리그 진출



거지

닥쳐

한때 보스턴 셀틱스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앤트완 워커가 D-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D-리그 아이다호 스탬페드 팀과 계약을 맺은 워커는 데뷔전에서 28분간 코트를 누비며 13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 향후 활약을 예고했다.

자주치 수직, 지나친 과소비로 선수 생활 동안 번 돈을 모두 탕진한 워커는 "돈을 벌고 싶다. 반드시 NBA로 복귀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내비쳤다. 생계형 농구 선수로 변신한 그가 특유의 노끼한 뱃살 댄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마이클 조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전설이 되다



완소는
거들뿐

'그분' 마이클 조던이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렘 밍게츠 구단주로 농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조던은 2010년 12월 15일, 대학 은사인 스미스가 참가한 가운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한 후 NBA 시카고 불스에 입단한 그는 뉴욕 브록클린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 대부분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보낸 바 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속 NBA 팀이자 조던이 운영하고 있는 살렘 밍게츠는 올 시즌 현재 9승 15패로 시우시스트 디비전 4위에 머물러 있다.

카멜로 앤서니의 거취는?



어부~내

다. 앤서니의 뉴욕 닉스에 대한 애정이 공공연히 드러난 가운데, 닉스 외에 뉴저지 네츠, 필라델피아 76ers 등 동부 컨퍼런스 소속 팀들이 앤서니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

한편 양방 덴버 팬들은 앤서니도 르브론처럼 소속 팀을 배신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르브론이 지난 오프 시즌 동안 선보인 유쾌한 시리드린만큼은 달아선 안 된다"며 말이다. 매 경기 카멜로를 둘러싼 트레이드 소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덴버는 홈에서 4승 8패에 그치는 등 중저렴 트레이드진 분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일을 향해 싸라!]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을 이끌 신예들이 요기 있네
WORDS BY 이남훈

이남훈은...

마이테밍리 스포츠 20 기자클럽 거쳐 한재 스포츠 정보 사이트
보이토르(www.boyto.com) 에널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매의 눈을 가진(가라) 믿고 싶은) 조광대 감독이 아시안컵 예비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현용에 받는 신예들만 골라냈다. 50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이끌 에이스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손흥민 (1992)

본 데스리가 팬의 구세주 프리미어 리그의 인기에게 밀려 축구 팬의 기억에서 지워진 독일 분데스리가가 2010/2011년 디시급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구계의 신데렐라 손흥민(함부르크, 19) 때문이다. 그는 시즌 개막 전 첼시와의 친선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깃다고 했던가! 1대 동점 상황에서 결승골을 넣은 직후 수비수 카르발류(현 레알 마드리드)의 테클로 왼발 골절상을 당했다. 당시 9번의 친선 경기에서 9골을 넣을 만큼 골 감각이 물이 오른 때라 부상은 더욱 뼈아팠다.

독한 아버지 그대가 있기에 작년 6월 프로 계약을 맺은 어린 선수가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이유는 독한 아버지 덕분이다. 고향 춘천에서 축구팀을 운영하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축구 철학은 확고했다. 그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개인 기량이 뛰어나야 한다"며 손흥민의 기본기를 갈고 닦는 일에 힘썼다. 낮에는 물으로 축구와 직접 부딪치고, 밤에는 머리로 공부를 공부한 손흥민은 아버지의 집중 지도 덕분에 무럭무럭 성장했다.

주영이 형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스티가 되기 위한 노력은 기본이여 타고난 재능은 필수다. 손흥민은 첼시전 부상 이후 7개월여 만에 치른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며 그간의 공백을 우려한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공중 볼을 잡은 상황에서 달려오는 골키퍼를 제치고 침착하게 데뷔골을 넣는 모습은 예사가 부럽지 않았다. 조광대 감독이 직접 독일로 날아와 지키퍼 하노버와 경기에는 2골을 몰아쳤다. 이라니 조 감독이 벌써부터 박주영의 새로운 피트너로 손흥민을 점찍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구자철 (1989)

K리그를 평정한 미드

필더 K리그 최고 블루칩은 단연 미드 필더 구자철이다. 각종 청소년 대표팀을 모두 거친 후 남양주 월드컵 예비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노련한 경기 조율

능력과 지로 찬듯 정확한 패스가 특기 구자철의 원팬스 덕분에 소속팀 재주는 만년 하위권을 맴돌다 K리그 준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2010 광주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홈명보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주장 역할을 잘 소화했으나 공격적인 목표인 금메달 획득(0골)과 쓰고 군 면제라고 읽는다는 아쉽게 실패했다.



하지만 스위스 리그는 좀..

최근 스위스 영보이스 아적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영보이스이 적을 빅 리그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스위스란 사실이 영 미덥지 않다. 게다가 영보이스의 홈구장은 고등학교에나 볼 법한 인조잔디(IFA)의 인공을 받은 최고급 인조잔디라고는 하지만 마땅히 양 가질 위험이 적지 않다. 가을 이후에는 눈이 많이 내려 커다 선 조절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스위스 리그는 유럽에서는 변방의 리그나 다름없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이 좋을 거다.



지동원 (1991)

전남의 진짜배기용 K리그 전남의 프랜차이즈 스타

데뷔 첫 시즌에 27경기 13골을 성공시키며 차세대 공격수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우 아시안게임 이란과의 3-4위전에서 2대 3으로 뒤지는 상황에서 극적인 헤딩골 2방으로 '군 면제 실패'의 분노를 씻어냈다. 허간에는 자동원 이 UAE와의 4강전에서 출전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특점 감각은 기본, 개념 탑재는 서버스 손

민과 함께 아시안컵 예비 명단에도 포함됐다. 타 고난 특점 감각 부드러운 볼 터치 동료와의 협력 플레이가 일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여기에 '배움'이라는 생각으로 대표팀 훈련에 임하겠다는 개념 충만한 태도는 보나스 점수를 주기에 충분하다(세리)고해서 잔업이 아닌 다른 팀에서는 뛰지 않겠다고 서약 했을 정도로 소속팀에 대한 애정도 크다.



석현준 (1991)

아시안 컵?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2009년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에 빛나는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로 이적한 대형 공격수. 우리나라에서는 기대를 받지 못 한 그저 그런 고등학교 선수였지만 손흥민처럼 입단 테스트를 거쳐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100m의 큰 키를 바탕으로 한 재능이 뛰어난 공격수. 하지만 돌파 능력도 나쁘지 않은 데다 상대 문전에서 공을 지키는 능력도 좋아 전술적으로도 유용한 선수라는 평가다. 리그 데뷔 후 곧바로 유로파리



그에 출전해 이탈리아의 강호 유벤투스를 상대로 분전하면서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2010/11 시즌 이후에는 열 한대위 미도 등 경향 많은 공격수가 영입되면서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다. 2010년 9월 이란전 교체 투입으로 조광래에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결국 아시안 컵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실패했다. 네덜란드 리그의 다른 팀으로 임대되어 경기 감각을 쌓는 것이 대표팀 합류를 위한 최고의 방법. 대한민국에는 이만한 시야조의 장신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2011년 온라인 게임 기대작

당신의 솔로 인생이 축복받는 유일한 순간이 다가온다.

BY 김광현



쉽게 즐길 수 있는 정통파 MMORPG의 등장!

접근성 업그레이드 완료!

온라인 게임을 즐기려면 일단 어떤 게임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옆에서 게임을 조곤조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도 그래서다. 다른 온라인 게임들이 친구를 초대하면 경향치 어드벤처를 주는 까닭도 초심자가 쉽게 적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불멸》은 이미 접근성이 뛰어난 친절한 게임이다. 난파스 누구리도 게임의 튜토리얼(사용 지침서)만 끝내도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 튜토리얼을 해치워야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게임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느껴도록 손질한 덕분이다. 자레벨 구간은 레벨업 속도가 빨라 퀘스트 위주의 플레이에서 느끼는 지루함도 덜하다. 특히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마저 노가다로 생각하는 초보 유저를 배려한 자동 사냥 기능과 퀘스트를 마친 후 튀어오는 길을 헤매는 방향치 유저를 배려한 내비게이션 기능도 돋보인다. 온라인 게임이 이보다 더 친절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

캐릭터, 장비 모두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다(《불멸》이 하드코어 게이머를 위한 중급 거리를 배려했을 리 없다. 캐릭터의 레벨이 30을 찍는 순간 능력치를 당시 입맛대로 분배할 수 있다. 몬스터 사냥 및 퀘스트로 얻은 경험치도 레벨과 스킬을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당도의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 캐릭터를 육성하는 것도 문제 없다. 동일 직업과 레벨이라도 유저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캐릭터와 함께 성장하는 영혼 장비 역시 마찬가지. 속성을 부여하고 강화를 거듭하면 당산만의 장비로 다시 태어날 거다. 영혼 장비의 화려한 재제를 감상하는 것도 《불멸》의 재미 중 하나다.

또 하나의 무기, 소환수

지금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를 그저 타도거나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불멸》에서는 생각을 고쳐막자. 필드 위의 몬스터를 잘 구슬려 소환수로 포획하면 비정의 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절단 맛에 사는 보스급 몬스터는 머리가 끊어져 말을 듣지 않을 테니 패스하자. 소환수는 결절이 캐릭터가 아니라 전투에도 적극 참여하는 똑똑한 녀석이니 포획한 이상 애정을 갖고 키워주자. 잘 키운 애완동물 열 레어 아이템 안 부러운 법이다.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소환수도 레벨업은 물론이요 강화 및 각속 스킬이 가능하니 너무 바리게 키워질 만다.



업데이트를 위한 대규모 콘텐츠 정전 완료!

《불멸》을 서비스할 엔도어즈는 콜로소 베타 테스트에서 00레벨까지의 콘텐츠만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즈음을 대비해 90레벨 및 대규모 길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콘텐츠를 확보해둔 상태다. 《불멸》의 길드전은 PvP+공성전+자원 채집이 합쳐진 독특한 형태라서 교수뿐 아니라 하수도 길드에서 많은 바 역활을 완수해오기를 거듭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불멸》은 이미 중국 현지에서 130레벨까지의 콘텐츠와 4단계 영혼 장비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된 상태다. 무수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걱정 따위는 우주로 날려버려도 된다는 소리다. 당신이 할 일은 부지런히 《불멸》을 플레이하는 일뿐이다.



Blade & S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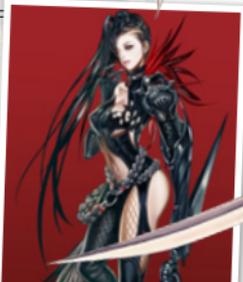


게임 더 보기

일러스트가 게임 안으로 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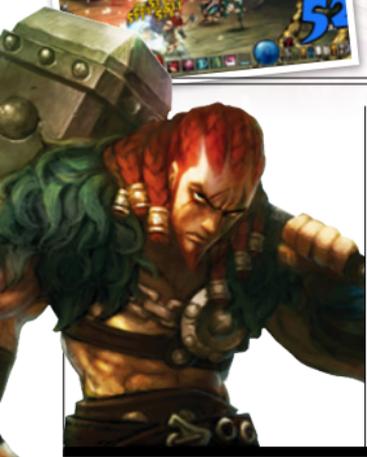
NC 소프트의 최대 기대작은 역시 블레이드 앤 소울이다. 아무 기대 없이 내놓은 (아이온이) 대박을 쳐서 NC 소프트로서는 한결 여유가 생겼지만 리니지를 대체할 만큼의 밈출 게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부담감은 여전하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그래픽이다. 작가가 그린 원화가 그대로 게임 속에 녹아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까지의 온라인 게임 중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색다른 그림을 가장 잘 뽑아내는 일러스트레이터 김형수가 게임 전반에 참여했

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액션 게임 (철권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동작과 호쾌한 타격 기술이 더해져) 지자 게이머들은 열광했다. 2010년 지스타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의 초반 퀘스트가 공개됐지만 2% 부족한 느낌이었다. 액션과 조작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의 상태만 유지해도 (리니지)와 (아이온)에 맞먹는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렵지 않을 듯하다. 원화의 퀄리티를 이만큼 유지한 채 다양한 액션을 연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기 말이다.



PROJECT GOBLIN

던전앤파이터 X까라 그래!



학창 시절 오락실에서 단신 주머니 돈을 털릴 땐 털어간 2D 액션 게임 (D&D(던전앤드래곤즈)를 잊지 못하겠나? 그렇다면 (고블린)을 기대해볼 작하다. 링크스쿨 액션 RPG로 캐릭터를 키우는 재미와 시원한 타격감의 적절한 조화로 (D&D)의 강점을 재현할 기대다. 그동안 3D 온라인 액션 게임은 유저가 몬스터의 아미를 때리고 있는자식 지어 헛손질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고블린)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 보다 정밀한 타격감을 제공하기 위해 2D 록 기법(3D 데이터를 다시 2D 데이터로 렌더링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덕분에 유저가 몬스터의 타격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다수의 몬스터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호쾌한 액션 스타일 연출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게임의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FSM 시스템을 도입해 몬스터의 자세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 몬스터의 리액션이 어찌. 오늘. 내일 달라서 유저는 늘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게임 진행 역시 짧은 스테이지를 반복해 클리어하는 형태라 하드코어 유저가 아닌 모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까놓고 말해서 (고블린)은 온라인 게임 시장에 혁신을 부를 만한 기념비적 작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 게임으로 전락한 (던전 앤파이터)를 대신할 2D 스타일의 온라인 액션 게임을 찾던 게이머에게는 그 어떤 게임보다 반가울 듯하다. 2010년 지스타에서 사람들이 (고블린)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한마디로 2D 링크스쿨 액션 RPG의 종결자를 예약한 게임!

왜 MMORPG를 안하거나 못하는가?

남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 여대생 -

게임 할 시간이 없어요 (ㅠㅜ)

- 직장인 -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던데.

- 주부 -



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수만 혹은 수십만 명의 플레이어가 인터넷을 통해 같은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역할수행게임. 실제 세상을 가장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의 대표 장르로 불리고 있다. 1996년, 넥슨의 '바람의 나라'가 최초의 MMORPG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이지만, 타 게임장르에 비해 몰입 수준이 높고 오랜 플레이어임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한때 '폐인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만큼 접근이 어려운 게임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지금의 마니아들도 원래부터 마니아는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발사는 마니아를 위해 게임을 개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은 또 마니아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순환이 반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멸 온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MMORPG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MMORPG의 재미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 쉽고 친절하고 편하게 만들어서 여대생, 주부, 직장인, 수험생, 취업준비생, 장년층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불멸 온라인'을 검색해보기 바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해도 좋다)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MMORPG의 재미는 그대로! 더 쉽고 친절하고 편하게!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정통 MMORPG, 불멸 온라인 오픈 베타



MAMA가 남긴 명장면: 웨더걸스 유빈의 발라덤 쇼

MAMA 동남아 순회공연

2NE1, 니네가 받은 상 다 외워 봐! BY 유유진

미카오는 왜 간 거임?

엠넷에서 그로록 텔레비전 아시아의 음악축제 Mnet/MTV Asian Music Award의 무명이 열렸다. 처음엔 이게 진짜 아시아 전체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줄 알았다. 진행을 맡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굳이 영어로 중언거릴 때만해도 말이다. 아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시아 속에 우뚝 선 우리 뮤지션들이 모습을 보이고 체면을 고장냈을 거다. 물론 우뚝 섰다. 그런데... 다른 나라 뮤지션들은 어디 있는 거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놈의 MAMA가 규모가 너무 어머머하게 커서 나라별로 스테이지가 따로 마련되어있고 국가별 스테이지가 따로 진행되는 건가?' 하고 말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쇼 음악중심>보다도 적은 종류의 반찬을 가지고 돌러먹기가 반복되는 시상식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MAMA에서 Asia는 빠지고 MMA가 되었다야 말이다. 대상 후보!



애네 가지고 글로벌 기본 좀 내려고?

Far East Movement, 장미, Me, Pertume, Chemistry, MAMA에 참가한 타국 팀들이다. 솔직히 애네가 Mnet이 찍어내는 '아시아 아티스트상' 아시아 뉴 야

티스트상, 베스트 아시아 팝 아티스트상, 베스트 인터넷서설 아티스트상, 베스트 아시아 남자 그룹상"을 받기 위해 참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무순농의 상이 다른 경쟁 후보도 하나 없는 자리에서 이를 불러주면 후막후막 상 하나씩 받고 소감 말하고 한 국 쪽 뽐고 가는 분위기에서 시상하니? 애크 행사뒤러 왔다고 느끼는 건 MAXIM 뿐인가?



국제 망신

예를 들어 일본에서 부산으로 가수 10명 정도가 건너와 우리나라 가수 한 팀을 초청해놓고 희한한 상 하나 준 다음에 아시아 뮤직 어워드라고 지복 따티를 즐기다 갔다면 우리 얼마나 황당할까? 아마 미카오 사람들이 딱 그 기분일거다. 자기들이 평소 애 듣는 가수도 있고 음악도 있는데 그 음악들은 다 어디가고 한국애들이 와서 올해 아시아 최고의 노래도 한국 께고, 올해 아시아 최고의 가수도 한국 가수요, 올해 아시아 최고의 앨범도 한국 께, 올해 아시아 최고의 신인도, 올해 아시아 최고의 그룹도 한국 가수라고 결론을 내놓다니. 게다가 정작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 행사 자체가 얼마나 아베레러워 보였을까? '아시아 뮤직 어워드'는 못마땅도 한류 가수 동남아 순회 공연은 되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실패한 거다.

MAMA가 뿌린 상들

무슨 상 받았어요? 원하시는 스타일의 상이 있으시면 다 해 드려요.



MAMA가 특정 가수에게 몰아준 상들

올해의 노래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 그룹, 신인상 여자 -MISS A
올해의 가수상, 여자 그룹상, 올해의 앨범상, 베스트 디지털 싱글(빅뱅), 뮤직비디오 작품상 -2NE1
남자 그룹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그룹, 신인상, 연세짐 Asian Wave -2PM
상 주고 받는 내후가 생각해도 좀 흥미지?

모든 가수들이 올라와 감동의 영단을 펼쳐야 하는데 이미 객석에 관객들은 반 이상 나가고 없었다.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의 슈퍼스타들인데 빈 객석과 집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의 등찍을 바라보며 대미를 장식하는 슬픈 장면은 국내에서 TV를 시청하는 우리들의 손발마저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지, 번지나라 없게.



진짜 대인배가 되려면

MAMA는 소녀시대를 사이한테 시원하게 상을 좀 줘야 했다. SM이랑 서로 빼져있고 SM 가수들을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시켜줘서 질투심이 대외. 기획사들 나눠먹기 전처리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게다가 소녀시대는 이 희한한 이름의 상 좀 못 받았다고는 하나 짱까 안 할 거다. 그럴 거면 대인배처럼 시원하게 SM 가수에게 상을 줘줬으면 좋았을 뻔 했다. 지금이야 불참한 SM보다 SM을 철저히 배제한 MAMA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만약 MAMA가 SM에게 상을 주는 데도 SM이 수상을 거부하거나 불참하는 형국이었다면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SM 쪽으로 돌아갔을 거다. Mnet이 대인배가 되고 SM을 소인배로 만들어버릴 커를 쥐고 있던 Mnet은 결국 악수를 두고 말았다. (보아한테 하나 주긴했는데 좀 약했어)



FX 채널 갖고
과월도 받기

FX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전파 남자채널.

FX 남자의
모든 것

[1월의 추천 음반] BY 김성환



추천이유 : 우리나라에 그를 알고 제대로 된 록 밴드가 또 있던가?

국카스텐 (타그트라움: 각성몽)

2010년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올해의 최우수 록 노래상',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쥔 국카스텐은 강렬한 시운드와 파워풀한 라이브 송씨가 일품인 록 밴드다. 우리나라만큼 록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든 나라도 없다. 배고픔에 지쳐 대중음악으로 전향하면 동료 사이에서 변절자라고 욕먹기 일쑤니 록 음악을 하겠다는 이들은 씨가 미른다. 이런 상황이니 록 팬들은 국카스텐처럼 '재대로 된' 록 밴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12월 그들이 내놓은 EP 음반 (타그트라움: 각성몽)의 초반 매진은 그래서 더욱 값졌다. 국카스텐이 록 밴드로서 자정색을 비로소 갖겠다는 의의다. 타이틀 곡 '붉은 발'은 절제된 록 시운드 위에 몽환적인 가사를 얹어 국카스텐이 지향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시끄러운 시운드에 알아듣지 못할 가사만 늘어놓는 게 록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국카스텐의 음반을 꼭 한 번 들어봐라. 어쿠스틱 기타리프도 록 시운드도 들려줄 수 있음을, 게다가 가사도 음이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REAL SUPER STAR

그들을 맞이하라! 슈퍼스타는 올림픽 공연 제 조 기쁨을 좋아해!



스팅

1월 11일 오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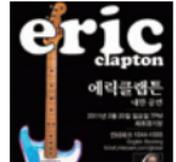
〈대중〉 그림은 그만 대신도 한 번쯤은 불러봐줄 '세이프 오브 마이 하트'의 스틱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최근 내 놓은 음반 (실포니사티)로 오케스트라 덕후를 인정한 그는 '에브리 브레스 유 테이크'를 비롯한 히트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줄 예정. 여자 친구와 함께 보기에도 좋은 공연이다. 철학적 가사와 멜로디로 인기가 높은 스틱형향 당신도 은근슬쩍 차도남 대열에 발을 담글 찬스까지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

2월 11일 오후 8시

여신 강림 당해줄 차 누가 있오라. 시 크한 양기가 넘쳐나는 뉴욕에서도 그녀의 공연은 예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될 정도였다. 200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한 그녀는 노래, 춤, 얼굴 무엇 하나 흠 잡을 데가 없다. 풍채처럼 단단 행복거리는 걸음과 비교 불가 공연처럼 눈과 귀가 호강한다는 호평이 가득하니 고추 달린 남자로서 어찌 그녀를 외면하겠나!



에릭 클랩튼

2월 20일 오후 7시

기타의 신이 돌아온다. 그의 나이(65)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마지막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2002년 내한 당시 우리나라 관객의 미친 존중감에 반한 그의 즉각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원더풀 투나잇', '티어스 인 헤븐' 등 불멸의 히트곡도 일일 장전된 상태 그가 좋은 아들을 만나려 언제 다시 하늘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생각은 MAXIMUM 할 테니 당신은 일단 지르고 보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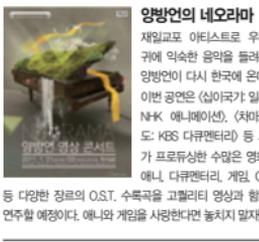
킨 (그레이트스트 히트) 리마스터링 음반

돈에 눈이 먼 음악사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다짐도 잠시 뿐이다. (비틀스) 리마스터링 음반의 감동은 스틱자-기머 본능에 충실한 손은 구애 버린을 누른다. 억울해하던 마라, 콘에 일파배기 곡인 모운 (그레이트스트 히트)가 아-리프가 울애의 사자를 쓰러뜨려 머큐리 향님이 부르는 '쇼 머스트 고 온'과 함께 대치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동방신기 음반 제목 미정

본에 남은 두 형제 최정민과 유노윤호가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이어받아 신보를 내놓는다. 둘다 어지간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리더보급 무지은 실력이나 곡만 잘 부쳐주면 정작 정도는 무늬해 보인다. 주시장은 단재했다. SM의 동방신기 그곳을 떠난 3명의 동방신기(NX) 중 대충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번 음반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다.



양방현의 네오라마

재일교포 아티스트로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을 들려준 양방현이 다시 한국에 온다. 이번 공연은 (실미당)가 일본 NHK 예-메이션, (자하고)도 KBS 다류멘터리) 등 그 가 프로듀싱한 수많은 영화, 예니, 다류멘터리, 게임, CF 등 다양한 장르의 O.S.T. 수록곡을 고화질로 명성)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예-와 게임을 사랑하던 농치기) 갖

연제 2010년 1월 29일(금) 8시, 2010년 1월 22일(목) 4시 8시
어디서 AX+KOREA 문의 02-6352-6636

Ciara

관능적 비트... 뜨거운 열정...

시아라의 새 앨범

BASIC INSTINCT

2008년도 빌보드지 선정
'올해의 여성'에 빛나는,
글로벌 섹시 팝 아이콘 **시아라**

비욘세, 리아나,
마이클 잭슨의 신작 [MICHAEL]에 참여한
최강 프로덕션 듀오
트릭키 스투어트(TRICKY STEWART)와
드림(THE-DREAM)의 프로듀스!



OUT
NOW

수퍼스타 어셔와 함께한
댄스 넘버 **'TURN IT UP'**,
'RIDE (FEAT. LUDACRIS)',
'SPEECHLESS' 등 수록

2011년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음반 5선

WORDS BY 장비비

들어가는 말

다른 뮤지션의 음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꺼려진다. 10여 년 전부터 흥대 앞에서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다 보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잘 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국어 고등학교와 비슷하다. 나는 M 조 외고의 영어과를 졸업했는데 그곳은 반이 3개 밖에 없었다. 3개 반 150여 명을 섞어 3년 동안 반 편성을 하다 보니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는 아이들도 한두 다리 건너면 알게 된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다들 인사하며 자란다(3년 내내 한 반으로 구성된 일본어과는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생리 주기까지 알았다는 루머가 있다). 흥대 바닥도 아차피 일하다 말하다 서로 부딪히고, 심세지고 솔한건이라도 언어적으 되기에 누군기를 함부로 칭찬하거나 욕하기가 점점 더 조심스럽다. 공격적인 매체에 '동업자'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일은 더욱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득 발매된 음반 리뷰가 아니라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음반에 대한 얘기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더군다나 '월호 아나기' 2011년 가장 기대되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음반 5선 나쁘지 않다. 순위도 곧아보았다. 기대감을 수회하는 건 아쉽겠지만 이번 경우는 지난 음반이 나온 시기를 계산하는 걸로 충분하니 심지어 끌궜까지 하자!

5

검정차마

마지막 정규 음반: 2008년 11월 (201)

아구에서 우리가 흔히 직구라 부르는 것들이 날처럼 직선으로 포수의 미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아마도 일본에서 야구 용어를 번역하면서 변화구(Breaking Ball)와 구분하기 위해 '직구'라고 붙이들인 것 같지만 야구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우리가 직구라 부르는 구질에 더 적합한 '패스트볼(Fastball)'이란 이름이 있다. 좋은 패스트볼은 90마일당 140km/h에서 빠른게는 100마일(160km/h)

이르는 구속과 함께 특유의 꺾여진 무브먼트(공궤)를 가지고 있어 좀처럼 허핑 포인트를 잡기 힘들다. 검정차마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타자의 방망이를 부러뜨릴 것 같은 강력한 패스트볼이 떠오른다. 어느새 19수로 3점이 된 (20)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말로 녹음된 가장 훌륭한 파워팝 음반으로 기억한다. 미국을 제대로 먹은 검정차마의 새 작품집이 2011년에 나온다면 우리는 굳이 미제 패스트볼(실제로 '패스트볼'이라는 미국 파워팝 밴드도 있었다)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리라.



트램폴린

마지막 정규 음반: 2008년 6월 (트램폴린)

세련된 전자음악으로 흥대 인디스 인파으로 적잖은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트램폴린의 요조와 타루. 그리고 한희정의 흥그라운드인 피스텔 뮤직과 계약을 맺고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워 사실 레이블이 바뀐다고 밴드의 음악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 몰라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피스텔의 크리스마스 콜라보레이션 음반 '헤리 론 리 크리스마스&해미 뉴 아이에 트램폴린의

신곡 '드림 오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수록된 사실이다. 1집 이후 영입한 기타리스트 김나은, 프로듀서로 함께 작업 중인 DJ 은천과의 첫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더인 차효선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를 듣노라면 대략 27% 생각이 든다. 첫째, 그녀는 (싱가어) '화개장터'를 불러도 문화 충돌에 대한 글로벌한 시선의 노래로 탈바꿈시킬 것만 같다. 둘째, '어신'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 같다. 특히 흥대 앞에서는 말이다.

4





3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마지막 정규 음반: 2007년 11월
(우리는 깨갯하다)

나는 여자를 볼 때 외모보다 어느 정도 '돌개'가 있는지를 더 유심히 본다. 사슴 같은 눈망울이나 거유의 소유자가 아니라더러도 진부한 일상의 감각을 '확' 들어오게 만드는 여자들이 내 마음을 끈다. 예전에는 내 눈 앞의 아가씨가 도라이가 기침을 얼마나 감추고 사는지, 유머 감각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무고개를 음용 포복으로 넘어야 했다.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라 좋아해요? 남성지 QQ 코미언이 2008년 '올해의 남자' 중 하나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의 데뷔 음반이 나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밴드의 멤버들과 함께한 'PC 록' 시운드는 처자감 좋은 드라마가 가세한 3인조 편성의 오스독스정통파한 밴드 시운드로 바

뀌었다. 후반 작업 중인 새 음반 타이틀이 '우정모텔'이라고 하는데 때마침 내 페이스북 프로필 관심사도 (남녀 불문한) '우정'이다. 그런데 요즘 평일 대실 요금 얼마지?



불싸조

마지막 정규 음반: 2006년 10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으리라)

라이선스 음반을 종종 사는 사람이려면 속자의 해상찰에서 DJ '평안강사'나 '파스텔 뮤직 문예부' 등의 직함과 함께 한상찰이라는 이름을 접한 적이 있으리라. 거짓말 보태지 않고 근 몇 년간 라이선스 음반은 한상찰 씨가 속자를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 같다. 불싸조의 새 음반 진행속도가 더딘 것이 리더 한상찰의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인지 드러머의 공익 근무 탓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듣자 하니 원고를 창작했을 때 그가 거절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한다. 아마도 갤럭시 익스프레스에서 공연 섭외를 넣었을 때 곤란하다는 대답을 들을 확률과 비슷하리라. 다행히 불싸조 역시 앞서 언급한 파스텔 뮤직의 크리시리스 콤파레이션 음반을 통해 팬들의 갈증을 덜어주고 있다.

정바비

전하고 싶은 말이 넘칠 만큼 있었지만 잊어버렸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정바비. '올라야 하트'와 '가을방학'으로 잘진리(?) 활동 중인 그가 MAXIM 독자에게 들려주는 음악,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1

라이너스의 담요

마지막 정규 음반: 없음

라이너스의 담요는 흥대 인디신 증컨 밴드지만 알고 보면 참여 정부 시절인 2003년과 2005년에 발표한 EP 음반 '달랑 두 장이 디스코그래피활동의 전부다', 2010년 내내 나온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토티만 들고 있는 그들의 정규 집이 2011년 기대작 대망의 1위를 차지했다. 긴 말 하고 싶지 않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Check! Check!

무척 현실적인 공연 선택 가이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여진에게 뭔가 죄지는 게 있을 때, 혹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 앞에서 좀 있어 보이기 위해 극장을 찾고 있었나? MAXIMO 도와주겠다. BY 편집국



물입할 수 있나?	캐스팅은 작랄한가?	공연 싸게 보는 법	TP	무대 위의 디바	
뮤지컬 <아이다>	관람 중 만 지을 할 거 불이 없도록 만드는 군더더기 없이 탄탄한 서사 구조	이름에서부터 청결함, 청량함이 느껴지는 이 집트 공주 '암네리스'를 연기한 공주	50% 할인: 간단하다. 나라를 구하거나, 수성을 한 번 더 보자	좌석이 좀 싸냐? 그렇다면 공연장을 준비하라. 3층 좌석에서는 배우가 신나게 보인다가 '흥' 자는 아니다.	옥주현(GOOD) 농익은 차차의 노래는 피워줄 현대 성세하! 까지 하다.
뮤지컬 <그리스>	누구나 해본 연애 일당 스토리에 풀이 관계를 대입하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낀다.	백영은 10대인데 배우는 뉴었구나.	20% 할인: 조기 예매를 하자. 100% 할인 MAXIM 장구독	그리스는 '기름진' 이란 뜻의 'grease'이다. 사랑의 비너스나 이태세 신전이 나오지 않는다 그 육욕이 미란 말이네	리조(GOOD) 진정한 끝존제미초: 여성상을 찾았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	몸집 큰 관람장은 소똥을 방해한다. 하지 만 큰 공연장은 언다는 것 자체가 권말은 포장이다.	제길, 임수정이 안 나 온다.	토끼띠 할인: 또 간단하다. 워즈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87년생, 75년생, 63년생, 51년생 주민증을 만들라.	1.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다. 2. 임수정의 얼굴을 안구위로 으깨준다. 3. 공연을 본다.	임수정(EXCELLENT) 미안하다. 사랑한다.
연극 <너와 함께라면>	오해가 유발하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나누며 그녀와 당신 사이가 급 가워진다.	나이코프 이세연이 일본 희극에 등장한다.	MAXIME 티켓이 많다. 자랑하고 싶었다.	많은 양전 (흥? 흥 흥)	이세연(BAD) 경로우대 그냥 어르신이 없으세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급작스러운 내용의 전환과 이야기 전개	중상을 잡지 못하는 여주인공 페니 소아 페니나 말소	우리 고장 할인 사을 → 천원 간 왕복 버스비 57,800원. 창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AS 비용이 빠진다.	무대 가까이 있지. 집단으로 치마를 풀러대는 애해우들의 군무를 바로 무대 밑에서 관찰하라. 이유는 알지?	최성해(BAD, WORST) 필름을 위해 중신을 흔들려면 기어 때굴면은 아니다. 잘래.. 피.핀. 필름링

화려하고 탄탄하다
뮤지컬 <아이다>

연제 3월 27일까지
어디서 상암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5544-5555, 1544-817



아직도 찾고 있나?
뮤지컬 <김종욱 찾기>

연제 2월 6일까지
어디서 KT&G 상사아트홀
문의 02-3473-7888



중독이 일로 나와
충만 추다 끝나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연제 12월 31일 ~ 1월 2일
어디서 천원 상사아트홀 대극장
문의 1558-8477



<아이다> 초연으로 공연계에 데뷔한 옥주현이 출연한다. 출연진들 역시 <남.극>에서 크리스마 라티심을 보여준 연출가 박길진이 직접 선정했다고 하니, 안정된 연기력을 기대해 보자. 장대한 서사 구조는 미리 내용을 살피면 복잡하진 않지만 모르 고 보면 따라가기에 벅하다. 팽팽한 정도는 흠이 보자. 관객의 시선을 인위적으로 붙잡고 있지 않는다. '빛의 향연' 이 콘셉트인 조명의 화려함도 기대할만 하다.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성공 케이스인 <김종욱 찾기>가 영화 개봉과 함께 강남으로 영역을 넓혔다.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를 차린 '남자'가 첫 의뢰인인 '여자'와 함께 첫사랑을 찾으며 섣뜨는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울긴 큰 무대는 물입의 저해 요소. 소극장용으로 제작된 작품만큼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했다. 이야기는 쉽게 이해되지만 극의 반전을 알고 나면 자칫 허무할 수 있다.

고전 뮤지컬의 힘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전국 공연 중이다. 탭댄스로 시작되는 화려한 오포니와 끝없는 댄스만으로도 안구와 뇌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목욕탕 속에서 울리는 듯한 주인공 줄리아의 발생과 극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여주인공 페기의 연기가 흠. 페기가 줄리아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 극 중 여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이유와 도로시가 페기를 이해하는 과정 등이 매우 급작스러워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확 패기해버릴라..



QR 찍고
티켓 받기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 커플 패키지 출시! ★

R석 60,000원 ... 45,000원 (1매 당)

◆ 단 100쌍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경품혜택! ◆

이처럼 B8크림 '셀라벨 엔씨 리커버리 밤' 외, 디올 스노우 5종 샘플키트, 도서 '라이온킹' 등
(패키지 티켓 구매 선착순 100쌍에게 경품 1개 증정)

2011.1.11~3.9 이화여대 삼성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

새해다. 한 살 더 먹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BY 권희성

소녀들을 위로해줘

은희경
정경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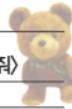
소년을
위로해줘



위로

은희경
《소년을 위로해줘》
문학동네

힙합과 은희경. 은희경과 힙합. 특유의 감수성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후벼 파던 작가 은희경이 힙합이라는 작가의 힙합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렇다. 우연히 힙합 뮤지션 카비외의 '소년을 위로해줘'를 듣고 난 뒤 마음이 너무 아파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게 그 전일. 소설 제목은 바로 여기서 따온 거고 주인공은 힙합에 빠진 열일곱 살 소년이다. 책이 출간되기 전 인터넷 연재 당시 소설을 업로드하던 작가의 아이디가 hiphopboy1이다. 나이 50에 힙합보이러니.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던 당시의 열일곱 살이 그랬듯 소설 속 소년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다. 이혼한 엄마와 단 둘이 사는 고등 연우는 '힙합'이라는 공통보모로 태수를 알게 돼 그와 함께 새로운 우정, 첫사랑, 외부 세계와의 갈등 등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간다. 결국 주인공 연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성장 일기와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힙합과 소년은 꼭 닮았다. 책 전체가 바로 하나의 힙합 가사나 다름없다. 위로받고 싶은 당신을 위로해줄 새끼! 딱히 없다면 이 책을 집어 들도록. 그래도 위위가 안 된다면 MAXIM을 한 번 더 정독하라.



도 모른다. MAXIM에서도 담배, 술, 섹스와 친한 에디터들이 여행 마약과 친한 에디터는 없다! 짜지 어 책을 내면 격하고 질펀한 베스트셀러가 나올 텐데... 근대 우리 게을러서 아마 안 될 거야.

돈



마이클 토넬로
《에르메스 길들이기》
미음신책



요즘같이 째는 날씨에는 출근이고 뭐고 이불 뒤집어 쓰고 굴이나 까라고 싶은 당신이라면 이 책을 필독하라. 《에르메스 길들이기》의 저자 마이클 토넬로는 집 구석에서 잘못 바람으로 돈을 척척 버는 농노다부러 우먼 자는 거대. 어느 날 먹고살 일이 막막해진 그는 99달러에 산 물로 람보 로렌 스키프를 이베이 온라인 경매에 부쳤다가 430달러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값에 팔아치웠다. 한번 돈맛을 본 그는 1년 동안 160만 달러어치의 에르메스 물품을 사들여 몇천만 이베이에서 팔아 엄청난 수익을 거둔다는 부러움 싹새졌다. 제길. 토넬로처럼 뚝뚝하게 되팔 재간이 없었어서 무작정 따라했다! 파산해도 우리는 책임 못 진대!

술



김은하·박기원
《술(주사유)》
페이퍼진



에세이는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새해부터 에세이 권해서 미안하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술 마시기 대회에서 1등 한 이력의 인간과 흑맥주와 소주,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또 다른 인인이 에세이와 카툰으로 채운 《술(주사유)》는 '술'에 관한 에세이가 당신이 관심가지길 만하다. 그 둘은 투니버스에서 법범이름 하고 있는 술꾼이라고 한다. 책에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술 때문에 진상된 에피소드 등이 카툰과 함께 담겨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술처럼 별로 흥미가 안 가는 개인적인 사담도 많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또 취해 있는 당신과 그들 사이에 분명 공통점이 있기에 점점 빠져들지

근성



배준걸
《근성(거자유학생)》
거북이북스



가진 게 없다고 구시렁거리기 말고 지금 당장 무슨 일든 시작해라.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투덜거려봐 자 비꾸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죽어도 되는 밥도 골짜기 버티보겠다는 '근성'이다. 《거지 유학생》의 주인공 배준걸은 만화가 출다는 이유로 맹전 한 톨 없이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물론 워디하면 작가가 일본 만화가를 차-차게 상경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철을 하나를 밑천으로, 가난도 재능이 아니라 말하며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보냈다는 근성 하나만큼은 당신도 배울 필요가 있다. 칼 건 꺼리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하는 게 세상 사는 이치! 야! 근성! 너대로 만화 그림도 상한줄 수준이라 볼 것만나.

2010

BY 이영비
PHOTOGRAPHS BY ARC STUDIO

MAXIM

GIRL NEXT DOOR

TOP 5

2010 걸 넥스트 도어 콘테스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12월 중순)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후보 5명을 다시 만나보자. 사베리아 북풍에 움츠린 당신의 마음과 몸을 깨우는 그녀는 누구일까?

2010 GIRL NEXT DOOR

걸 넥스트 도어 독자 모델 콘테스트에 참가 신청한 지원자 15명의 평균 나이는 24세, 평균 키는 167.4cm다. 가장 나이가 어린 지원자는 어린이 학습 집시 모델로 등장한 특이한 경력 을 지닌 18세 일반인 여고생이며, 가장 고연령자는 30세였다. 이들 중 지난 7월부터 12 월호까지 걸 넥스트 도어에 출연한 독자 모델은 단 5명, 그들에게 쏟아진 사랑의 다운로드 손길은 무려 총 2,432회(2010년 12월 18일 기준)다. 그 5명 중 가장 가슴이 큰 모델은 이사 진 속 이쁜 처지 최혜연 양이다. 뿌잉~ 브리브



그녀가 촬영 중 갑자기 내 안경을 벗겨갔다. 개논쟁인 나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안경이 모에 하다고 주장하는 그녀의 목소리와 셔터 소리, 스태프의 탄성 소리로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할 뿐이었다. - 에디터 이영비

촬영장에 온 그녀는 수줍게 종이 가방에서 바니걸 의상을 꺼냈다. 손수 만들었다며... 그녀에게 이 옷을 입히지 않은 것이 천후의 한이다! 그녀는 다음에 촬영할 기회가 온다면 "섹시 간담

이나 메이드로 꾸미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흥대 주변에서 섶시 간담 코스프레를 한 여자를 만났다면 미친 아이러미 비난하거나 놀라지 마라. - 에디터 김희성

스튜디오에 들어서서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로 숙이며 인사를 하던 그녀.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요즘 보기 드문 예의 바른 청년이다. - 포토그래퍼 박을

7월호 최혜연



11월 김선한



김선한
보라가기

김성현, 유승민 에디터는 굳이 본인 업무를 제쳐놓고 "지나갔다 들었다"며 촬영장터두아스트 인 그녀의 작업실에 쳐들어왔다. 그중 1명은 옷장을 꺼며 "내 몸에 뭐라도 좀 새겨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누구지는 안 밝히겠다. 장가는 가아지? - 에디터 이영비

팬츠를 풀어보는 무한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 어시스턴트 포토그래퍼 김도훈

한편 키 크고 마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녀는 "꽃수영이 꼭 있어야 한다"며 배합수 영에 대한 사랑을 드러 표현했다. - 에디터 김희성

12월 임정란

한강 철교 아래에서 촬영하던 우리는 머리 위를 지나던 기차가 그녀를 보기 위해 멈춰 세더니 창밖으로 기차가 머리를 내밀고 손을 흔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 죽네. 이 사람이야 - 에디터 김희성

한강 둔치를 가는데 가던 김 엄쫓고 그녀를 바라보는 행인이 하나둘 늘었다. 행인들을 향해 손을 치으며 '가던 길 가시죠'는 말을 수십 번 외치다 목이 잘 켜도였다. - 포토그래퍼 박윤

시크하고 귀여운 그녀가 남긴 한마디,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입니다.' - 에디터 이영비



임정란
보도카피

10월 육선화

이름에서 이미 육덕의 포스를 풍기는 그녀. 그 완벽한 다리를 보고 있자니 허벅지에서 꿀이 흐르는 착시에 빠졌다. 사진 속 가슴과 엉덩이도 아름답다. 그녀에게 웃을 길아일할 여자 스타프의 손이 되고 싶었다. - 에디터 유승민

특기를 묻자 그녀가 시원시원하게 자랑했다. '월드 뷰에 600타요.' 내 밑으로 들어오쇼! - 에디터 이영비

촬영 전에 머리 묶을 고무줄이 필요해서 소품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를 보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물건들을 꺼냈다. 고무줄, 실핀, 각종 화장 도구... 보이스카우트보다 완벽한 준비 자세 역시 MAXIM 독자 모델은 수준부터 다르다. - 에디터 김희성



육선화
보러가기

12월 이현주

처음 MAXM 사무실로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청바지 뒤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단한 뒷라인! 요즘 친구들은 발육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오래 오래 살아야지. - 에디터 김상현

그녀는 촬영장에서 과감한 포즈와 질백진 복근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외모만 보고 짜증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성격은 확고하고 남성적(?)이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좋아할 만한 매력이다. - 포토그래퍼 박용

그녀는 스튜디오를 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저를 예뻐주세요." 어릴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 에디터 김희성



이현주
보러가기

2011 이웃집 MAXIM GIRL



최고의 남성 잡지 MAXIM과 함께 하는 독자 모델 콘테스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 돌아왔다.

▶ 확 달라진 콘테스트 방식

그동안 한 달에 한 두 명의 독자모델만 나와 아쉬웠나? 게다가 우승자가 1년에 한 명뿐이구나! 지원자는 많은데 MAXIM이 찍을 수 있는 건 고풍한 달에 한두명. 그래서 MAXIM이 2011년 1월 1일부터 콘테스트 방식을 바꾼다. 지원자가 직접 찍은 셀프 화보를 통해 2주마다 한 번씩 콘테스트를 계속 연다. 제주도에서도 해외에서도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도 콘테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만히 있어서 상급도 탈 수 있다.

▶ 콘테스트 진행 과정

- 자신의 사진을 10장 찍어 MAXIM으로 보낸다.
(예쁘고 색다른 사진일수록 상급 확률이 높겠지?)
- 지원자가 10명이 되는 순간 1차 배틀이 시작된다.
- MAXIM 홈페이지를 통해 10명이 보낸 사진이 공개되고 2주간 의 이웃집 핵심질 배틀이 돌아간다.
- 2주간 MAXIM 독자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1등이다. 남은 자리에서 상급 10만원을 행하는 거다. 바로 입급될 거다.
- 1등은 MAXIM 스태프와 함께 진짜 MAXIM 화보를 촬영하게 되며 이 화보로 다른 1등과 새로운 경쟁을 벌이게 된다.

▶ 이웃집 핵심질 참가 신청 방법

MAXIM 홈페이지에 공개될 10장 이상의 셀프 화보를 찍어 보내라. 멋진 사진을 보내도 좋다. 화보라고 겁먹지 마라. 본인이 예쁘고 색스럽게 나온 사진이라면 그게 바로 화보다.

보내는 곳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 에 가
인하고 (이웃집 MAXIM GIRL 콘테스트 신청란)을 클릭한 후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접수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받는다.

상급이 얼마고? 2주마다 열리는 예선전 1등은 10만원이 지급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급은 기암괴벽 올라간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문의 QNA@maximkorea.net 또는 www.maximkorea.net





손목시계 수컷의 로망!

BY 김광현

시계들을 보니 군침이 도나? 축하한다. DSLR 카메라는 어린이에 장난처럼 느껴질 새로운 지름에 눈을 뜬 거다. 이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일만 남았다.

1. IWC TOP GUN

이놈을 보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피호를 거다. 독특한 디자인만으로도 시계 애호가를 학학하게 만들어 내구성도 뛰어나 막차를 타기 위해 전철역으로 불꽃대사를 하다 명바에 떨어뜨려도 끄떡없다. 소소한 당신이 이 시계를 영입한 순간 예지중지하며 귀한 자리에만 차고 나갈 거만 건 잘 알지만 그만큼 든든한 녀석이란 소리다.

2. TAG HEUER SILVERSTONE CALIBRE 11

태그 호이어의 실버스톤 칼리브 11은 1949년에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의 한정판. 다이얼과 외관은 복고적이지만 독특한 질감과 잘 빠진 블랙 라인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 특히 박강림의 시각적 매력 네모 반듯하지 않고 실맥, 야니 조금 미묘하게 두껍게 있는 시계의 다이얼은 볼수록 매력적이다.

3. DIOR CHRIS TAL TOURBILLON

이놈의 스펙은 좀 대단하다. 백금에 약간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 (뭐야... 애 무서워!). 멋지게 빌경하는 시침과 초침의 절묘한 앙상블은 고당 시의 배트맨을 연상시킬 만큼 고풍적이다. 한마디로 쿨하고 멋진 녀자의 시계다. 녀자의 자존심, 그것 말고는 세워야 하는 자리에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거다.

4. OMEGA SEAMASTER PLANET OCEAN XL

오렌지 색생 뱀신 같지만 행지 멋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 수심 0.6km에서도 끄떡없을 만큼 든든한 건 둘째치고 독특한 디자인만으로도 시계 애호하는 차 말고 집 팔아서라도 지르고 싶게 만드는 매력 있을 거겠다. 원래 지름이랑 게 그런 거다. 풀들이 이유 없이 바지에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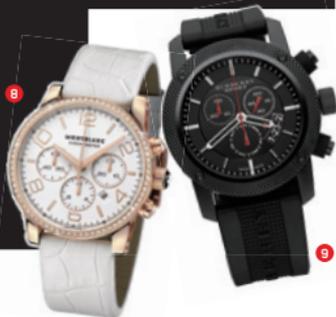
5. ZENITH ELITE 681 ULTRA THIN

스태그리스 스틸 재질의 케이스에 로즈 골드 색상을 입힌 클래식한 디자인은 당상을 통풍으로 보낼 거다. 이놈 하나만 있으면 그 순간 꽤나 그럴듯한 느낌으로 업그레이드될 거다. 못 믿겠다고? 이 시계를 차고 가기를 나눠봐라. 당상을 보는 여자의 사선이 달라졌을 거다. 래플





5



8

9



6



7



10

6. BREITLING SUPEROCEAN

지름신의 노예가 된 당신에게 이 시계가 소리성과 맞먹는 도당성일지도 모른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렬한 디자인. 반짝거리는 방수 케이스는 수심 1524km에서도 탁월한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천연색 칼리는 당신을 활기와 생각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비단만 봐도 울풍을 일으켜 줄 것은 피맛을 주는 녀석이다.

7. LOUIS VUITTON TAMBOUR SPIN TIME

그녀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흔한 명품백과 달리 이들은 때때로 좋아 스पोर्ट한 의상은 물론 허름한 청바지나 깔끔한 정장까지 잘 어울린다. 옅로 칼리가 살짝 섞인 티르톤 질로움은 격식 있는 자리는 물론 자유로운 분위기의 클럽에도 잘 어울린다. 그 세상에서 가장 반반 뚱뚱 환장한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다면 목심너도 좋은 녀석이다.

8. MONT BLANC TIMEWALKER

화이트 시계는 어딘가에서는 남자 생쥐에게 추천하기 싫지만 이들은 다르다. 한번 정착한 순간 다시는 풀고 싶지 않을 만큼 매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계 색상과 칼맞춤하기 위해 고이 야케톤 신상 화이트 정장과 맥구두를 꺼내진 마라.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화이트 벨트를 장착하는 악몽 같은 짓도 절대 금물이다.

9. BURBERRY SPORTS COLLECTION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를 스틸 재질의 태두리에 잘 표현했다. 이런 센스 넘치는 볼풀 남녀 공용이라서 당신 여자 친구의 가는 손목에도 잘 어울릴 것이다. 무슨 일이나 그? 그녀의 데이트할 때 이 녀석을 차고 나간다면 그날로 시계의 소유권은 그에게로 넘어갈 것 소리다. 조심해라

10. BVLGARI DIAGONO CALIBRO 303

불가리의 디아고노 칼리브로는 그리스어로 '운동 대회'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운동하듯 시계 태깅을 자동으로 감아주기에 귀찮게 신경 쓸 일도 적다. 당시처럼 오더레이 넘치는 인간에게도 잘 어울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다. 하지만 가격은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지도.

갤럭시 탭, 그리고 아이패드!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한판 때릴 만한 도전자인 건 사실이지만 라이벌이라 부르기에는 2% 부족하다. 이젠 애플(애플 패들)이 아니라도 인정해야 한다. 삼엽충(삼성 패들)들, 듣고 있나? by 김민환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니까. 양키녀가 아랫도리를 움질거리며 "아이 엠 커밍" 이라고 외치는 AV를 좋아하는 중저도 있고, 샘-나리 여자가 허벅지 '이쿠오'와 함께 질질 싸는 모습에 환장하는 놈도 있게 마련. 태블릿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이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생각해? 놈들인자부터 아는 게 순서다. 아이패드 이야기는 이제 저거를 테니 삼엽충이 찬양하는 갤럭시 탭을 이야기할 차례다. 어차피 소는 여자가 키울 테니 내놓은 눈 폭버로 뜨고 쳐다볼 일만 남았다.

전면 카메라

13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로 화상 통화 OK. 하지만 갤럭시 탭이 자랑하는 HD 영상 통화는 초당 3.3원일만 3G 영상 통화는 3.0원이 부과된다는 게 잊겠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아니면 선불리 사용하면 된다. 아이폰 4의 페이스 타임이 아닌 소리다.

후면 카메라

300만 화소의 카메라는 실감 넘치는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하다. 물론 필은 좀 야박고,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됐지만 그런 거 따위 상관 없겠지.

카드 리더

30핀 USB 카뎀터를 이용한다. 애플의 30핀 USB 카뎀터와 너무 닮아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졌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진짜 아무데나 꽂으면 X 되는 거 알지?



홈 & 앱 버튼

홈 버튼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반응도 빠르빠리한 편 인드로 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익숙한 버튼들도 탑재 완료.

마이크로 SD 슬롯

기본 용량이 16GB 또는 32GB다. 하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해 최대 64GB 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 하나는 "어메이징~"

갤럭시 탭은 한마디로 갤럭시 S를 7인치로 뻗기만 한 녀석이다. 태블릿용 운영체제인 허니컴이 아니라 갤럭시 S를 비롯한 스마트폰용 운영체제 인드로 이드 2.2 버전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했고, 전화도 가능하니 말이다. 무조건 블루투스만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다. 그렇다고 아이패드 절반 정도의 무게(380g)지만 이놈을 주력 폰으로 사용하리단기! 당시 손목이 남아있을 않을 거다.

그래도 매력은 있다

스트리브 집스가 7인치 제품은 매력 없다는 별소리를 했지만 휴대성 면에서 아이패드는 7인치 태블릿에 딱실신당한다. 그 시장을 갤럭시 탭이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뛰어난 동영상 재생 능력을 갖춘 제품답게 1GHz CPU는 HD 화질(1024x600 해상도)의 영상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재생한다(당신시 아동용 갤럭시 탭을 담아 화질소문 뛰어나는 걸 예상하기엔 어렵지 않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 32GB까지 용량을 확장 가능하든 블루투스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아 전화기로서 성능도 그냥저냥 사용할 만한 수준. 인드로 이드 2.2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플린 HD 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방문할 때의 바벅임이 대폭 줄어들어 웹 서핑이 한결 쾌적해진다. 전면 카메라 덕분에 영상 통화도 가능하다. 단, 스카이프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음성 통화만 지원한다.

하지만 아쉬움도 크다

아이패드처럼 화면 사이에서 최적화된 앱이 부족하다(스마트폰 앱이 크다면 행하기했다). 끔찍한 문제는 아직이란 분영 가슬리는 포인팅이다. 가격도 비싼 편인 데다 미국과 달리 통화 기능이 빠져있어 와이파이가 모뎀을 구입할 수 없다. 스트리브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 약정에 스마트폰 데이워 요금제에 가입해야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후 약정을 해지하고 9월 약금과 기껏간을 내 개기로 만들려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저자세). 9월 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용 앱은 아직 길기 먼데다 구글이 마켓 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편이라 상인 콘텐츠가 넘치는 것도 문제점에다.



iPad vs. GALAXY Tab

	 아이패드	 갤럭시탭
디자인	한 손으로 들기엔 무리지만 평한 알루미늄보다는 당신을 질질 싸게 만든다. WIN	가벼운 무게는 매력적이지만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외관은 아이패드보다 갖가지 떨어진다. 안정화라!
운영체제	이미 태블릿에 안정맞춤인 운영체제를 완성했다. iOS 4.2 버전 덕분에 이제 멀티태스킹은 물론 폴더 정리, 무선랜에 연결된 프린터에 바로 인쇄를 쓸 수도 있다. WIN	안드로이드 2.2 프로요는 태블릿을 위한 능이 아니고 말했지. 당신도 갤럭시 탭을 써보면 태블릿에 적합한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느낄 거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확장성	알잖아. 그런 거 없는데 스티브 잡스는 구멍 내는 걸 싫어한다. 여자 구멍에 돌돌이 넣는 건 좋아하러나?	일반 사이즈의 유심이 들어가는 덕분에 전화칠도 가능하다. 게다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어 용량 확장은 굿이요. 굿 WIN
화면	9인치 액정(1024×768) 해상도는 이동할 때를 제외하면 그저 진리다. 특히 MAXIM 같은 잡지를 볼 때는 최고! WIN	아이패드보다 작은 7인치 액정(1024×600)은 짐 꽤 먹 을 수준 하지만 7인치 액정은 논문과 PDF 문서를 보기에는 아쉽다. 그만 거 볼 일 없음 패스
카메라	없다. 2세대에서는 갤럭시 탭보다 더 좋은 게 장착될지도 모를 일.	전후면 카메라 모두 탑재. 게임은 이걸로 끝! WIN
앱	아이패드 전용 게임과 앱용 앱 수만 해도... WIN	안드로이드 마켓은 아직 앱 스토어에 집중적으로 밀린다. 게다가 태블릿에 최적화된 앱은 소수에 불과하다.
용량	64GB까지 있지만 용량 확장은 불가능하다.	32GB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64GB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WIN
가격	약정 없이 구매할 수 없는 KT 아이패드는 시애틀 애플 코리아의 아이패드와 진리! 애플 코리아 같은 보따리 장수들이 3G 언록통신사 제한이 없는 모델! 아이패드를 팔다! WIN	2년 약정에 금액은... 쟁쟁
총평	여전히 낡아빠진 카메라도 없고 용량 확장은 안 되지만 이만한 태블릿 제품은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올해 4월 즈음에 나올 아이패드 2세대가 1세대를 구매할 당신을 털갈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다.	아이패드 라이벌로 손색이 없다. 플레이도 매끄럽게 지원하고, 음성 통화는 물론 영상 통화를 위한 카메라도 장착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비싼 가격과 태블릿 전용 OS가 아니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DMb와 T맵을 고려해도 말이지!
결론	아이패드 승! WIN	

BUT 역전의 가능성

갤럭시 탭에 태블릿 전용 운영체제인 하나컴이 탑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글의 레퍼런스 폰 넥서스 S의 하드웨어가 갤럭시 S를 기반으로 삼을 정도로 둘의 밀월 관계는 돈독한 편이다. 갤럭시 탭에 하나컴이 장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갤럭시 탭'은 태블릿 OS의 부재라는 약점을 한 번에 시정할 수 있다.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만큼은 애플이 아닌 다른 어떤 회사에도 따라잡지 않는 삼성이니까 말이다.

정리하면

GOOD

전·후면 카메라의 존재(아이패드는 2세대에서나...) 멀리 터치도 배려해주는 반고통화 품질이 어찌 됐든 전화 기능도 있으면 쓰게 된다. 7인치라 기법과 휴대성도 좋다. 게다가 밀어막을 SKT로 출시된 국내판 갤럭시 탭에는 DMb와 진리의 T맵이 장착되어 있다. SK 와이번스만큼이나 SKT가 앞장서면 탭은 어지간한 내비게이션을 안드로메다 관광시킬 만큼 성능이 좋다.

BAD

밀어막을 태블릿 사이즈의 앱이 부족하고 가격이 금값이다. 외국에는 할인하면 서 우리나라만 호구로 보는 건 뉘-뉘-기때문에 공황한 10인치 화면이 그리워진다. 찬쟁

BUT

아이패드에서 싸움이라도 걸 놓은 현재로서는 갤럭시 탭이 유일하다.



촬영장
찾아가기

PAPA RAZZI

그녀의 핑크빛 속살을 구경하기 힘든 혹독한 계절이 왔다. 사랑스러운 그녀가 방심하여 당신 톨돌이가 레알 돋는 순간이 포착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셔터를 눌러라.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카메라를 들이 대란 말은 아니다. 은팔찌나 쇠고랑을 차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만...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한두구/ MAKE-UP 안이엘리사벨라 www.la-stella.co.kr
STYLING 고정희 FILM 박한빛누리 ASSISTANT 김희성 MODEL 고해민 (www.goomho.com)



안다웨어 세트 구미호
드레스 가이아
크림색 슈즈 슈즈원

'한효주 다카'라는 별명이 붙은 ST100은 셀프 카메라에 최적화된 녀석이다. 카메라의 전면에 부착된 18인치 액정은 그야말로 아이디어의 결정체 미니홈피에 비자런히 셀카 사진을 올리는 일이 삶의 낙인 사람에게겐 이만한 카메라가 없다. 얼굴 인식도 잘 되고, 다양한 필터 효과를 적용해 독특한 질감의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혹시 또 아는개 사워 후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그녀가 ST100으로 핫한 전신 셀카 사진을 찍어 당신에게 선물할지도 모를 일이다.

가격 49,000원 문의 02-1588-0889 www.samsungimaging.co.kr

SAMSUNG
ST100

안드레아 구이올
리본 장식이 돋보이는 슬립 히의 가스 언더웨어
스튜디오 스타지슈즈 가스



소나의 NEX 시리즈를 토크 중인 제품이다. 기존 알파 560 대비 약 23%나 크기가 작아졌다. 무엇보다 풀 HD 동영상(1920x1080)을 촬영할 때 위상차를 계산해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AF로도 포커스를 지원한다는 게 강점이다. 아직까진 캠코더보다 심도 깊은 화면을 뽑기가 한결 수월한 데다가 렌즈만 교체해도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 초당 최대 10연사에 고품질의 3D 파노라마 사진 촬영은 덩이다. 그녀와의 베스트 스토리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면 알파55 하나로 충분할 거다.

가격 1,048,000원(표준 줌 렌즈 키트 기준) 문의 080-777-2000 www.sony.co.kr



언더웨어 비커루
리본 장식이 돋보이는 슬립 하의 게스 언더웨어

HD급 화질의 3D 사진과 동영상 촬영 후 3.5인치 대의 대형 LCD 액정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고화질 3D로 그녀의 양덩이와 가슴이 눈 앞에 떠오르다니 레일 듣지 않나? 특수 안경이 없어도 3D 콘텐츠를 확인하는 데 지장없이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라. 일반적인 사진은 물론 2개의 렌즈와 2개의 CCD(필름 역할을 하는 광센서) 덕분에 한 번의 셔터질로 같은 장면을 2대의 카메라로 연속 촬영한 효과도 낼 수 있다. 피인픽스 리얼 3D W3를 한번 써보면 3D 카메라도 꽤나 매력적이란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가격 600,000원대 문의 02-3281-7700 www.fujifilm.co.kr

FUJIFILM
FINEPIX REAL 3D W3

레이스 장식의 로비무니슬린 탑
끈장식이 세시할 언더웨어 캐주얼 언더웨어



CANON
POWERSHOT G12

원샷이 아니라 파워샷이다. G12는 1,000만 화소에 광학 5배 줌, 디지털 4배 줌을 지원한다. 2.8인치 of 회전 가능한 LCD 액정은 각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다양한 구도로 촬영이 가능하다. 당신과 그녀가 카미수트라에 등장할 법한 놀라운 체위를 연출할 때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똑딱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DSLR의 명가 캐논 제품답게 일상을 스케치하기엔 성능이 차고 넘친다. 배터리 용량도 마찬가지

가격 500,000원대 문의 1588-8133 www.canon-ci.co.kr

빛세 카타건 타렌지타우먼
김세리 곁정색 무늬의 언더웨어 게스



입문용 제품으로 적절한 녀석이다. DSLR로 그럴듯한 사진을 찍고 싶은 당신에게 적절한 제품이 될 거다. 1240만 화소에 화려한 색감은 물론이거니와 초당 6프레임의 연사 속도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AA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듀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 AA형 배터리로 최대 1,600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니 그녀의 화끈한 모습을 배터리의 부족으로 놓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가격 900,000원대 문의 1588-2708 www.pentaxkoreaservice.com

PEN
TAX
X

제크우남 셔츠 게스
안더웨이 세트 굿미용
소크가미이
스웨이드 슈즈 게스





무엇보다도
LUMIX GH2

1,831만 화소의 똑똑한 루믹스 GH2는 당신이 그녀의 화관하고 듣는 사진을 찍을 때 M 모드(알루미늄 인식) 움직임 감지(손 떨림 보정)를 비롯해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지게 해줄 거다. 여기에 루믹스 G 12.5mm 3D 렌즈를 추가하면 3D 사진 촬영도 가능하니 가지고 노는 재미는 배가 된다. 풀 HD(1920x1080) 해상도의 동영상 촬영도 문제 없으니 간편한 영화 촬영 카메라 대용으로 손색없다. 아메 레알 듣는 카메라지?

가격 1,990,000원(3D 렌즈는 별도) 문의 1688-8452 www.panasonic.co.kr

베어 그릴스 흥아가 왔다!

꿈동이, 전갈, 메뚜기 등 온갖 절지동물과 연체동물 등을 먹어치우며 먹이사슬 꼭대기에 오른 남자, 다큐멘터리 (MAN VS. WILD)의 베어 그릴스를 만났다(그가 우릴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길까봐 두려웠다). 험할 뻔출이 특기인 그가 평소 집에서 목욕은 하고 사는지 궁금했기에.



그릴스 형
보러가기

거품 목욕과 당신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긴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이 세 아들들과 함께 뜨끈한 거품목욕을 하는 거다.

아들마저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씻기는 건 아니겠지?

살아있는 가족과의 시간은 야생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나를 강하게 불어주는 힘이다.

당신이 웃으니 더 볼걸하다. 야생에서는 거품목욕이 불가능하겠지?

음, 야생에도 이렇게 거품이 일어난 물을 종종 볼 수

있다. 인체에 해롭지만 없다면 그 하얀 거품들이 몸을 담가 항생제나 해독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품물은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다. 바디락어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

목욕을 시도했던 최악의 장소는 어디인가?

아마 아이슬란드에서 시속 98km의 눈보라가 치는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간 후였을 거다. 멀리서 스름이 확산처럼 뿜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1km 반경 이내엔 온천이 있을 거라 믿었다! 죽을힘을 다해 올라갔더니 엄청 미더만한 지름의 진흙탕이 있었다. 말 그대로 썩!

목욕을 안 하고 가장 오래 버티는 기간은?

에베레스트에서 석 달 반.

냄새는 어떻게 하나?

일주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2주가 지나면 깨달게 된다.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다 피하겠군. 그런데 조금 지나면 냄새가 사라진다! 잊힌 이회 몸에서 냄새 안 난대! 하지만 여전히 냄새는 난다. 당신만 모른다. 그게 현실이다.

베어 그릴스의 비디오 게임 (Men vs Wild)이 Xbox 360, PS3, Wii용으로 출시되었다!

CUTE PLAYMATE

김슬미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BY 김희성 FILM 감독
ASSISTANT 박한빛누리

헐퀴 커풀도 모자라 장난감까지 질투하게 될 줄이야.
이게 다 김슬미 때문이다.
그녀의 매력에 당신도 딱살신을 면치 못할 거다.

COOPERATIONS 시스템 플랜모니오, 탐걸 02-546-7764 | 에스케이엠, 슈즈팩 02-3443-1703 | 가이아 02-3447-1088 | 반디비포즈 02-795-6111 | 프리모팩 어싱/지, 기공사 건넌

지퍼 카디건 합걸
금색 청 장식 치마 가이아

이름이 독특하다. 본명인가?
본명이다. 자갈밭의 돌처럼 흔한 이름인 줄 알았는데 독특한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나저나 화면보다 실물이 100,000배는 더 예쁘다.
내 말이 방송만 본 사람은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겠지? 억울하다.

조판간 걸그룹으로 데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리다 한기중 날 자랑이다.
걸그룹보다 모델 쪽이 더 좋지만 '대표님'의 뜻을 따라야겠지(웃음) 올해 하반기쯤 데뷔할 예정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셀마 섀시 콘셉트는 아니겠지?
귀엽고 상큼한 콘셉트가 될 거다. 평소 무표정할 때는 시크하고 도도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웃으면 이미지가 확 바뀐다.

웃는 모습이 신인이 달았다. 연기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기회가 닿는다면 작은 배역이라도 출연하고 싶다. 역의 비중은 상관없다. 배우라는 틀 안에서는 모두 동

등하니까.

옛날 얼굴과 달리 글래머러스한 S자 몸매를 자랑했다.
그것 때문에 악성 루머도 많았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건 상상도 못했다. 운동도 지금껏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다. 아직 숨은 실은 많은 편이니 성형 의혹 같은 악플은 참아 달라(웃음).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와 포즈는?
종아리! 요즘은 연습 때문에 종아리에 일이 배겼지만 예전에는 정말 자신 있었다. 개인적으로 턱을 들고 시크한 표정을 짓는 게 좋는데 주위 사람들은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말하더라(웃음).

데뷔 전인데 팬층이 두텁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나?
한 명이 스쳐 지나가지만 이름을 밝히진 않겠다. 나에게 카메라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집에 찾아오겠다고 말할지 않나... 무서웠는데 한편으로는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MAXIM 화보 촬영한 소감은?

포토그래피와 호흡이 잘 맞아서 편하게 촬영했다.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무엇보다 다행이다. '예쁘다'는 MAXIM 스태프의 거듭되는 칭찬 덕분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꿈 많은 10세대. 20세가 되기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자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

2011년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화 출연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포토샵이란?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도록 만드는 기술. 실제 모습이 화면보다 예쁜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포토샵을 지나치게 하면 정말 인터넷이 난리가 나더라(웃음).

들던 중 반가운 소리가. 그림 이번 화보에 포토샵은 없는 걸로 하겠다(응?).



최대한
최종하기





달 장식 코트 시스템
화이트 민스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쇼츠 기어
화려한 금색 장식이 돋보이는 슈즈 슈즈원

“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종아리다. ”



호미 무늬 카디건 탑걸
흰색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쇼츠 가이아
고양이 인형 에디터 소장





프림 장식 카디건 콜롬비아코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온미 무늬 레깅스 탑걸
원커 핑크편

“ 새해 목표는 영화 출연이다 ”



민트색 원피스 에디터 소장
살비 목걸이 에스케이업

YOUNG JONG SHIN

MAXIM과 윤종신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커머셜리스트(상업주의자)라는 거다. 꼭 똑같고 말해서 가난하면 예술이고 니벨이고 없는 거잖아?

<슈퍼스타2>의 당신은 <아메리칸 아이돌>의 냉소주의자 사이먼 코펠 같았다.

그냥 내 스타일이다.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 예능 프로그램처럼 간죽거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음악 작업을 할 때는 감정을 쏟아 붓지만 그 밖의 일은 이성적으로 접근한다. 모든 변함이 의도적인 것일 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방송 모습과 달리 굉장히 굴한 성격이다.

대중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내기 위해서 조바심 내잖아 결국 조잡해지는 건 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처음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해에 받아들이더라. 이미지를 1~2년 안에 억지로 만드는 건 비보장이다. 쉽지 않고, 그렇게 만든 이미지는 스킨들 한 방에 죽는다.

'똥 빈 거리에서'로 대표되던 당신의 마성(美聲)이 사라졌을 때도 지금까지 괜찮은가?

6~7년 전만 해도 내 목소리에 집중하는 인터뷰를 많이 했다. 힘도 과도가를 거쳤고 이제야 그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

라디오 DJ 당시 여성을 찾다가 비유했다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잘못 내 잘못이다. 잘못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अच्छ이 할거야 좋아하는

세상에서 사람의 관심사는 들끓는 속도만큼이나 빨리 식는다. 당시에는 대중과 한번 싸워볼까도 했지만 내 작업이 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냥 접었다.

결혼 후 한결 차분하고 의견해졌다. 이등비더하며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모양새가 후지잖아? 애들 보기에도 좋을 게 없다. 일은 열심히 하겠지만 이등비더하며 살길 싶다.

<라디오 스타(이하 라스)>는 당신의 입담에 주목해 기뻐한 프로그램이란 소 리고 있다.

<라스>의 예스는 김구라 아닌가? 김구라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머리가 좋아서 같이 있으면 편하다. 함께 할 때 밸런스도 잘 맞는다.

하간 게스트에 따라서 맞춤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라스밖에 없다. 오히려 월드컵이 비가 났을 때는 지루했을 거다. 생야 올린 게 있어서 이걸 지켜야 하는 사람은 믿기지 어렵다. 정작 본인들은 <라스>를 즐기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라스>는 무엇인가?

B급을 지향하는 알코올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B급은 A급 밑에 있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의미. 간혹 <라스>를 보고 "공중파에서 이렇게 방송돼 되는 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중파의 기준은 누가 정했나? 지금까지 방송사가 해왔던 짓뿐이다.

MBC <위대한 탄생>은 엠넷 <슈퍼스타2>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 왔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다.

케이블 방송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중파가 맨발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이 좋지 않다? <위대한 탄생>은 공중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깨에 힘을 쏙 뺐다.

음악 얘기를 해보자. 요즘 인기 있는 곡들의 노래 가사는 다 비슷비슷하다. "슬퍼 슬퍼 슬퍼 또는 아파 아파. 아파"처럼 가사가 겹쳐 반복되니 내 관점에선 영 재미가 없다.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이 볼 때도 아이유의 '3인 부스'가 창법이 그렇게 대단한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 이슈 만능기도 좋잖아. 단순히 취향의 문제다. 물론 나로서는 아이유에게 곡을 썼으니 좋겠으면 좋겠다(웃음).

하지만 그들의 3인 부스 때문에 같은 날 발매된 윤하의 음반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다.

그런 점이 아쉽다. 음반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순위부터 난 안 떨어지더라. 솔직히 윤하도 세 음반을 내놓으면 6개월 정도는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발명 이전에 들의 신곡이 나오자마자 신곡 나오면 2주 정도 방송 프로그램에 주중만 나오다가 사라지는 마케팅 기법으로는 노래로는 팬들의 뇌리에 남지 못한다. 이럴 땐 라디오에서 라디오 가의 노래를 꾸준히 밀어줘야 하는데 TV를 따라가다 못하는 느낌이다.

'영계백옥'을 돌리켜 보는데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던데 오렌지 카라멜이 안상맞추었다.

나중에 기획사를 만들면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 거다. 하지만 미니마를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단다. 남부노소 좋아하는 음악이 주중만 나오면 '하는 사람'만 아는 마켓은 만들기도 어렵고 생산성도 낮다.

평창? 한실적인 발언이다. 맛있는 커머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고, 시장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상업주의자가 살아가는 법이다. M 엔터테인먼트

인먼트의 성공 역시 아수안짜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거만 아쉬움은 남는다. 나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테니까.

당신이 키우는 가수는 철저히 메이저를 지향한다고 봐도 되나?

언더세만 놓고 보면 아니다. 어쿠스틱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잘 키워서 메이저에서 눈에 만들어야 재야의 고수로 남는 건 비추다. 메이저를 잡아야 "쓰레기 같은 음악을 하는 놈들"이 유행해서 음반 시장은 외면하는 투덜이는 마켓에 필요 없다. 포석성에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며 고고한 취향을 살코는 섹시 스타일의 유전자이런데 애당초 시장에 대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메이저가 보다 공격적으로 대중의 중심에 다가서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최근 리페어(Repair) 음반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7집의 '돌이코는 날'은 '재대편 날'로 제목을 바꿔서 8집 될 거예요'는 곡의 마지막을 조금 수정하려고. <월간 윤종신>에 한 곡씩 추가해서 내놓을지, 음반 한 장에 모아서 내놓을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록 페스티벌 같은 음악 축제에서 당신을 만나기 싫지 않다.

올해는 밴드도 참여해볼 생각이야. 솔로인데다 메이트를 지향하는 가수라 그런지 불러주질 않더라(웃음). 원래는 밴드의 윤리기가 강한 사람들도 나를 안 좋아한다. 나 역시 그들의 박수를 받을 생각이 없다. 어느 순간 고집함이 생길진 모르지만.

<월간 윤종신> 편집장으로서 MAXIM 에 조판하러요?

잡지의 색깔은 그간의 역사가 말해주겠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그 시기에 제마이는 걸 찾아서 해라. 소주를 먹고 고인장 시기에 더 열심히 일하면 말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비행기에서 잠들 때 잠시 하는 것도 정말 충분하다.

동갑이다. 우리 같이 데뷔하자! 



공공의
대기

“올해는 <월간 윤종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
후배를 키울 기회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고!”



ISN'T SHE LOVELY

MAXIM이 준비한 새해 선물! 사랑스러운 2010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슬아와 함께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길 바란다.
"백문이 불어일견"

BY 고정희 WORDS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수혜태스디 (02-548-7787) MAKE-UP 고영은
FLIM 김진숙 ASSISTANT 김희성

정장식 귀걸이
더블유플래닛
김정석 최인 로커이
오르시아
스튜디오로 장서원 기오리 타임 니트
에스케이업
원색 언더웨어
엘빈클라인 언더웨어
김정석 스포 에디터 소장
에니클 워커 기아마



촬영장
장류하기



동그란 형태의 검정색 밴드트 목걸이
타볼유클레넷
어깨 절개 형식이 독특한 리서츠
에디션 소창
진주 팔찌 오로시아
나무를 소재로 한 청 형식 방금
오로시아
햇단 끈 장식이 코로넷을
연상시키는 레깅스
가야아
슈즈 게스

금메달을 깨운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금메달은 맛있었나?

시간 기자들이 사진 기대(웃음). 그때는 그저 좋아서 무슨 맛인지도 몰랐다.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단체전, 혼성 페어까지 2관왕을 차지했다.

혼성 페어의 금메달은 예상치 못했다. 덕분에 함께 출전한 박정현 80이게 병역 면제 혜택을 선물할 수 있었다. 여자 단체전은 다른 선수들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후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걸로도 충분했다(웃음).

금메달을 깬나 땀으니 연금도 쓸쓸할 거다. 1등 신분감이 여기 있군!

아직 결혼은 이르지(웃음). 여자 프로 바둑 기사 가정을 꾸리면 신경 쓸 게 많아 승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결혼은 나중 일이 되겠지?

여자 아이돌들이 줄줄이 울고 갈 만큼 짝퉁하다. 바둑 대표팀 선배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잖나.

막내 박정현 80에게 말했다(웃음). 입자 있는 분이 대부분인 데다가 바둑은 개인 플레이라 혼자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도 없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하니?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기 전에는 잠자고 밥 먹어 시간을 제외하고 온종일 연습했다. 혼성 페어 게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평소보다 연습량이 많았다. 보통 하루 5시간 정도 연습한다.

바둑 말고 장기를 즐길 때도 있지?

우리는 바둑만 둔다. 바둑판 뒷면에 장기판이 그려져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다(웃음).

알까기나 오목은 하나? MAXIM 남자 스타 제품은 당신과 오목을 둘 수 있다면 휴기도 반납할 기세!

바둑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가끔 오목을 두게나 알까기를 할 때도 있다. 어찌됐든 바둑판 위에서 하는 일인 건 마찬가지잖아!

바둑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둑판만 봐도 머리가 어지럽다.

〈스타크래프트〉보다 어렵지 않다. 당신이 〈스타크래프트〉를 배울 때처럼만 노력하면 바둑의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일면 알수록 변화무쌍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게 바둑의 진짜 매력이다.

하지만 바둑 기사 하면 고리타분한 이미지

가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이창호 9단이나 이세돌 9단처럼 틈 땀 중에 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다.

이창호 9단이나 이세돌 9단도 친한 편인가?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분들이다. 이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많이 봤다(웃음).

바둑 기사로서 목표가 궁금하다. 만화 〈스트 바둑왕〉의 주인공처럼 당신도 '신의 한 수'가 보고 싶은 건가?

좋은 성격도 중요하지만 바둑 기사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게 목표다. 좋아하는 바둑 공부를 하면서 힘들게 재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바둑계의 스타다. 사람들이 양전혀 바둑만 두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거다.

내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바둑이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바둑만 둘 수는 없으니까 남은 시간에 오늘처럼 화보 촬영 제의가 들어오면 응할 생각이야.

첫 화보 촬영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끼가 넘친다.

사진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찍으면 그만이다. 그래서인지 카메라는 무섭지 않다. 오히려 이런 인터뷰가 더 조심스럽다.

기자놈들의 낚시성 질문 때문인가?

그렇다고보다는 답변에서 실수를 피하려고 보니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된다.

당신이 토끼보다 나은 3가지 이유를 말해달라.

1. 일단 토끼보다 귀가 작다.
2. 앞니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교정해서)
3. 미처(미)로 내 코가 토끼 코보다는 귀엽지 않겠네(웃음)





금색 목걸이
오로시마
무더러운 질감의 상의
시스텔
검정색 스타킹
에디티 소창
스핀 소재의 사이언이 부츠
기어아





회색 카디건 탑걸
흰색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검정색 언더웨어
빨간플라잉 언더웨어
검정색 소츠
에디터 소장
슈즈 게스



스텝업 장식의 시스루 상의
클립오나코
안에 입은 민소매 티셔츠
에디터 소장
벨크로 반지 모두 더블유클레넷
검정색 쇼츠 에디터 소장
털 장식이 포인트인 무츠 가이아

MAXIM 화보를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여성지처럼 코트나 긴 바지를 입고 촬영하는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시원한 옷차림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바둑판을 배경으로 러블리한 화보가 될 거라고 귀띔해주셨는데 오늘 와 보니 그렇지만은 않더라. 속았다(웃음).

바니깁 코스튬을 비롯해 모든 의상을 완벽히 소화한 사람이 많실만?

정말 어색했다. 난생 처음 입어본 옷들이었다. 일반적인 의상은 아니잖아(웃음). 특히 바니깁 코스튬이 걱정이다. 이런 스타일의 옷은 속옷 아니잖아(웃음)도 입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포토샵 잘해주셔야 한다. 꼭이대(웃음).

걱정도 필자다. 포토샵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나저나 연애 욕심은 없나?

아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아직은 연애할 마음이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이상형은 있었는지?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겠다. 바둑에 문외한이라도 상관없다. 물론 질생기면 금상첨화

이상형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당신의 섹시 포인트가 있나?

지금처럼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평소보다 배는 더 섹시해질 거다.

또래 친구처럼 연예인 같은 화려한 삶을 꿈꾸는 있나?

〈도전! 슈퍼모델〉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예쁘게 화장해주고, 멋있게 사진을 찍어주는 건 부러웠다. 이번 MAXIM 화보 덕에 꿈을 이뤘다(웃음).

그럼 다음에도 MAXIM 화보에 출연할 생각이 있나?

물론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장 완료대 토끼 해에 이루고픈 소망이 있다면?

바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외모도 예쁘게 가꾸고 싶다.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에게 바둑이란?

뿌리다.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언제나 나의 뿌리는 바둑이다.

앞했다. MAXIM 화보가 당신에게 '바둑이' 같은 화보가 되길 바란다.





어깨 부분이 망사인 티셔츠
에디터 소장
깃털 장식 스커트 가이아
징 장식 벨류과 반지 모두
더블유클레넷
털 장식아이 포인트인 부츠 가이아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주소

빌어먹을 변태 원숭이들의 요즘 트렌드는 '근친' 임이 분명하다. BY 권상현

근친 이즈 마이 라이프! KISSxSIS

"넌 오늘부터 내 누나가 아니다"



〈키스x시스〉가 OVA로 나올 때도 그러더니 했다. 어차피 돈 주고 사보는 오덕들을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막장 설정이라도 이해해주려 했다. 그런데 이런 망할 작품이 인기를 끌자 공중파 버전으로 똑똑 만들어졌다. 도대체 무슨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까다리기 비싼냐고?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남동생을 따먹으려는 생동미 누나의 치열한 디미팅'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재작사를 비롯해 수많은 변태 덕후들은 '동생이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누나'라는 설정인데 뭐가 문제냐고 심드를 쳐대지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만큼 어이없는 말이다. 그렇게 따지면 입양자가 있는 가정은 집에서 누나와 동생이, 오빠와 여동생이 남남이니까 실컷 떡을 쳐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긴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길들어 있지만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살짝만 풀어놓겠다. 〈키스x시스〉의 누나는 남동생을 차지하기 위해 온천에서 마성년자인 동생에게 술을 먹이고 떡매질을 유도하며, 노래방에서 술을 먹이고 프렌치 키스를 시전한다. 남동생을 앞에 두고 오줌을 싸며 얼굴까지 뿌여진다! 일겠다? 이긴 나방이나 19급 동인지에서나 펼쳐질 판타지가 버젓이 공중파를 타고 있는 거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설정만으로 이해하면 일본 열도 원숭이들의 근친 코드가 워낙 수위에 달했던 거다.



[에디터의 한마디] 애니메이션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소리는 하지 않았으나 오해하지 말 것

근친 이즈 마이 라이프! 유스기노 소라

아랫도리 경계 없는 쌍둥이들



말이 필요 없다. 막장 애니메이션의 종결자가 여기 있게 태생이 H게임이면서 그런지 설정도 파격적이다. 남녀 쌍둥이끼리 '본능적으로 느껴졌어.'라며 그렇고 그런 짓을 하겠다 하는 설정만으로도 이미 루비론 강을 건넜다. **특정 무위를 노출하는 정도를 넘어서 남자의 거북이 머리를 세우는 끈적끈적한 유륜은 예사다.** 더 놀라운 건 공중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게임에서 하나의 루트에 불과하던 사실이다. 앞으로 <유스기노 소라>가 블루레이를 비롯해서 다른 매체로 우여곡절을 루트는 차고 넘친다(게다가 블루레이에서는 공중매에서 삭제된 영상도 노골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 **지저스!**

[에디터의 한마디]

애니메이션의 원작인 H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소라는 하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말 것



근친 이즈 마이 라이프!

MM

여기에 마초하즘 추가요!

말단 이 애니메이션의 근친 코드부터 까보자. 남자 주인공 사도 타로의 엄마는 아들을 남편처럼 대하고, 누나는 사랑하는 남편처럼 배려한다. 농담 같나? 이들은 애니메이션 속에서 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데 서로 날라는 그림이 가만하다. 가령 얼마가 "타로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난 여자는 나야"라고 말하면 누나가 "타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나야"라고 받아준다. 모자간의 경쟁 이래 어지간한 H망가가 아니면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근친 코드다.

그렇다고 주인공 사도 타로는 광범한 고교생이냐? 그것도 아니다. **열도에 사는 수많은 오덕의 꿈을 대변하는 마초히스트 사도 타로는 미소녀가 주는 고통(아임!)로 마초보다 피맛하다고 주장하는 변태다.** 여자에게 맞을 때마다 눈에 하트를 그리며 더 때려달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죽행을 부른다. 주인공(남자의) 남자 배쓰는 여장을 즐기며, 여자 복장을 하면 여왕처럼 돌변할 일! 여자 주인공은 남자가 손만 대면 주먹이 먼저 나간다. 내홍 자체는 크게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여(에) 숨어 있는(아니 내놓고 드러나) 설정만으로도 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막장으로 치닫는지 알 수 있다.



[에디터의 한마디]

이 애니메이션 자신의 변태 반응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흥을 갖었으니 오해하지 말 것

ZZZZI POWER

성흔의 퀘이사

태초에 찌찌가 있었으니 대지는 곧 성유(聖遺物)에 뒤덮여 막장이 다더들 거다.



난데없이 웬 찌찌 드림이냐고? 본격 슬기들 <성흔의 퀘이사>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다. 이름 하나만 덧붙여진 이 애니메이션의 설정은 그야말로 안드로메다급! 여자의 젖(아임!)로 귀하고 성스러운 것이기에 남자 주인공 사도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섭취(하)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주인공은 그리스정교회에서 활약하기 위해 젊은 수녀님이 성스러운 힘을 빌려

주교가 가슴을 내주는 일도 마더하지 않는다(사)는 한쪽 찌찌만 빨면 유다가 아홉 개만 빨려서 맞추기 위해 다른 쪽도 덩달아 빨아주는 찬열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중매에서는 가슴을 살짝 가린 채 촬영됐지만 블루레이 버전은 내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건가? 아니면 본격 H애니를 보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에 빠지게 만들 정도다. 무엇보다 작가가 주인공이 마초

너의 찌찌를 빼는 장면을 너무 즐긴다. 아담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위기 탈출 매뉴얼!

현실은 <슈퍼스타 K>보다 더 실범한 서바이벌의 연속이다.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살아남는 법을 MAXIMO! 알려주겠다.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COOPERATION 부호:시02-333-3140



호텔 화재 발생!

화끈하게 즐기려고 간 호텔에서 화끈하게 타 죽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지.

간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꼬여 호텔까지 데려갔다. 와인 한 잔에 취한 그녀가 품에 안겨 자신의 몸에 붙은 천뜨가리의 제거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정쟁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했다! 알람이 울리고 사람들이 벗은 채 호텔 복도를 뛰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연기는 보이지 않고,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도 아니다. 객실 손잡이를 잡아뿔더니 열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모른 척 그녀와 함께부터 하고 싶었지만 자칫하다간 당신이 '돌근열사' 처럼 정말히 신화할 지도 모른다. 이 상황만 무시히 넘긴다면 화끈했던 수 일~수 시간 내내 추억을 곱씹으며 본격적인(?) 합체가 가능할 거다. 일단 살고 보자! MAXIMO! 방법을 알려주겠다.



- Q.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A. 침대 시트 2개를 서로 연결해서 줄을 만든 후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간다.
 - B. 침대 시트를 물에 적신 후 창문 틀 위에 걸린다. 연기를 차단하는 일종의 텐트를 만든다. 그런 다음 창문을 열고 그 텐트 안에서 외부 공기를 조우한다.
 - C. 객실 바로 밑의 수영장으로 수직 낙하한다.
 - D. 창문 틀 위로 올라가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

정답: B (원래 긴 문장이 답일 확률이 높음.)
불길기 치솟기 전에 호텔을 탈출할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게 없다. 복도나 탈출용 비상구에 피아이가 파리를 틀고 있으면 무리하게

- 등고갈 생각은 말라라. 이때는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텐트로 막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마시면서 도움을 기다리는 게 최고다.
- 설마 이렇게 생각했나?**
- A를 선택했다면? 너 군대 안 갔다 왔지? 그런 건 TV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법 한 이야기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생각을 하는 남자는 군 미필의 대명사 '행불상수' 밖엔 없을 거다.
 - C를 선택했다면? 2층 이상 높이에선 뛰어내리는 건 공포해라. 넌 성룡이 아니다.
 - D를 선택했다면? 발일 헛더가 떨어져 죽을 수 있다. 뭐 적어도 불타 죽을 걱정은 할 필요 없겠다(음).

추락천사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선 나누던 사랑을 잠시 잊어서 좋습디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에는 날개가 없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입팔로 문을 버티고 서 있어야 소용없다. 엘리베이터가 바닥과 키스하는 순간 피고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안에서 정면대적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신은 엘리베이터가 언제 충돌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의 하강속도는 당신이 애는 정리를 상쇄해 바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방법은 간단하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다리를 완전히 편 채 엄려려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라. 천장이 두나질지도 모르니 머리로 감싸도록 그리고 하느님, 부처님, 일라, 옥황상제 등등에게 실려달라고 미친 듯이 빌어라. 그 수확엔 없다.

얼어붙은 가로등과 혀의 만남

술 처먹고 외롭다고 난리칠 때 얼어붙다



만취한 친구가 얼어붙은 가로등에 달려들어 프렌치 키스를 하려다 혀가 달라붙었다. 저 모태슬로프를 어찌하면 좋겠냐 친구 놀라 야시킨 버리는 게 답인데 오죽 외로웠으면 가로등에 키스를 했을꺼냐는 생각이 드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가로등에 혀가 달라붙는 건 기운이 거의 바깥쪽 막을 얼릴 정도로당연한 소린가 낫기 때문이다. 이럴 땐 혀 주위에 따뜻한 물이나 음료수를 들이부어 얼어붙은 막을 녹여야 한다. 친구 녀석의 혀가 잠시 고동스레 손 있자면 가로등에 붙은 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세는 면할 수 있을 거다.



차가 물 속에 다이빙

아놔! 내차 저 물에 끌고 나왔는데..

차에서 차는 딱이 그리 재미지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차를 물에 끌고 나와 여자친구를 태우고 교외로 나가는데 쟁쟁 갑자기 차가 바닥 아래로 쭉 꺼지는 기분이 든다. 그 동안의 폭설로 도로가 무너져 있었던 걸 발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이미 차는 도로 옆 강물 쪽으로 기울었다. 여자친구를 들고 뻘에든 정신이 팔려 적절한 대처는커녕 탈출할 시간도 없다. 본격적인 맥까지 해보지도 못하고 저세상 급행열차를 탈 것만(?) 너무 걱정이다. MAXIMO! 가르쳐 주겠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차가 잠수해 해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나!

Q 차가 물 속에 다이빙할까 알고 직전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 A. 창문을 모두 닫는다.
- B. 창문 하나를 재빨리 연다.
- C. 안전벨트를 끈다.
- D. 엔진을 끈다.



정답: B 창문 하나를 재빨리 연다.

자동차가 물속에 다이빙하면 외부 수압 때문에 차 문을 열기가 힘들다. 그러나 물에 빠지기 직전에 재빨리 창문 하나를 열어줘라. 그럼 문을 열지 않아도 탈출할 수 있고창문도 뜯고 못하는 고도 비만자

어쩔...) 차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 차와 밖의 압력이 땀땀이 되기 때문에 차문을 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레아 영선 명종도 길어지는 거!

살마 이렇게 생각했나?

A를 선택했나?

딱 본 감에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진 감에 익사라도 하겠다는 건가?

C를 선택했나?

당연한 소리다. 물에 빠진 상태에서 안전벨트는 되려 안전에 해롭다.

D를 선택했나?

너. 지금 저럼 싸우자는 거죠? 좀 생각을 하고 대답하란 말이다.

차기운 바다에서 살아남기

겨울바다는 역시 비라를 때만 좋은 것이아



그녀와 함께 떠난 겨울 바다 크루즈 여행. 갑자기 배가 일초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여자만 실려놓고(?) 물 나게 죽을 생각을 했다. 차치한 겨울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체온 유지가 생명이야. 구멍조각기 없어 흠에 뜨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잘라내 옷을 벗으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두 발목을 꼬고, 입팔로 무릎을 감싸 기습까지 끊어 올려라. 이렇게 하면 체온 손실을 5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오~뭘 왜 이런 번거로운 자세를 해야 하고? 차기운 물에서는 대개에서보다 체온이 25배 정도 빠르게 손실된다.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글썽, 시체는 차가웠지 아미?

당신의 영원한(?) 친구

쥐와 바퀴벌레는 알수레 무서운 놈들이아



당신이 모르는 쥐에 대한 5가지 이야기

- 쥐는 5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지도록 다치지 않는다.
- 쥐는 허리를 받거나 경력을 할 때 '씩~' 하는 소리를 낸다.
- 쥐는 하루에 80번 정도 오줌을 누고, 많게는 40번까지 동을 누다.
- 쥐는 하루에 20번 정도 고미를 할 수 있으며, 약 4일에서 5일마다 배설기가 온다.



당신이 모르는 바퀴벌레에 대한 5가지 이야기

- 바퀴벌레의 폐는 8만개이다.
- 바퀴벌레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 바퀴벌레는 머리가 절리고도 일주일 이상 살 수 있다.
- 바퀴벌레는 핵폭발로 방출되는 방사능도 견딜 수 있다.

공룡이다 젠장;;

몽치면 커진다! 몽치면 싸진다! 몽치면 강해진다! 몽치면... 같이 죽을 수도 있다.

BY 김매니저 kimmanager@twitter

설탕집 자식들 합체

CJ그룹은 지난 11월 16일 6개 계열사를 합병해 종합 콘텐츠회사 CJ E&M을 출범시켰다. 당신은 MAXIM을 즐겨 보는 지성인이니까 E&M이 엔터테인먼트&미디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 합병되는 6개사는 오미디어홀딩스와 CJ미디어, 엠넷미디어, C.엔터테인먼트, CJ인터넷, 온미디어다. 다 들어본 적 있는 큰 회사들이지? 합병 방식은 오미디어홀딩스가 5개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였다.

김 매니저님, 건강이부면 뭘 싸야 좋죠?



공룡을 만든다

이번 미디어에 대 합병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된다면 2010년 예상 매출은 1조, 영업이익이 무려 800억대가 되는 국내 1위의 공룡 콘텐츠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CJ 측은 CJ E&M을 2015년까지 매출 3조에 영업이익 4천억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이미지만한 비전을 발표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아시아 1등을 굳히는 기업으로 나아갔다는 거다.

요즘처럼 소셜 서비스를 가지고 미국 구글처럼 여기저기에서 우려먹는 원소스멀티유즈 시대에 6개사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어디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광고단가를 협상할 때도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돈도 아낄 수 있을 거다. 결국 CJ가 노리는 건 CJ E&M을 타임워너나 뉴스쿨, 월트 디즈니 같은 글로벌 콘텐츠 업체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도 (아바타)처럼 때깔나게 나올지도.

미디어 천하 4분지계

CJ E&M은 출범 후 방송, 게임, 영화, 음악의 4가지 비즈니스 카테고리들을 영위하게 된다. 방송은 기존의 CJ미디어와 온미디어가, 게임은 CJ인터넷이, 영화는 CJ엔터테인먼트가, 음악은 엠넷미디어가 담당하게 된다.

방송 부문은 현재 가지고 있는 18개 채널을 바탕으로 최적인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광고 단가 정상화 및 프로그램 별 단가 도입을 통한 마진 개선, 판권 구매 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FOX, CCTV 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의 경우 CJ인터넷을 중심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소셜 네트워크 게임으로 플랫폼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영화는 미국, 일본, 중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글로벌 블록버스터 투자 및 제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음악의 경우 (슈퍼스타K) 2차령 방송, 영화, 게임과 연계해 음악 콘텐츠 제작에 힘쓸 것이며 글로벌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해 보면 방송의 경우 광고단가 및 콘텐츠 확보에 있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긍정적이고, 영화와 음악도 글로벌 투자를 통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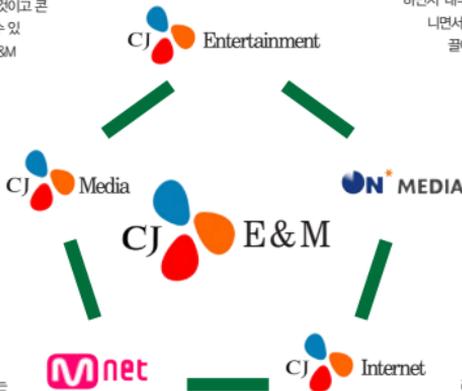
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합병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게임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제작 사업부문의 비용을 만회하는 뒷수습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통합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망해도 CJ가 주주잖지는 않는다

이러한 CJ의 문화 콘텐츠 사업전략을 보면, 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타임워너나 뉴스쿨에 버금가는

글 로 벌



콘텐츠 기업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다소 의아한 점도 있다. 사실 사업적 시너지 확대와 글로벌 콘텐츠 넘버 원 회사가 되겠다는 합병 목적과 비전을 감안하면 현재 중국에서 급성상하고 있는 게임사인 CJ오쇼핑과 CJ CGV도 합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이번 합병에서 배제된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을 팔아 성장해 온 CJ그룹의 보수적인 사업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사업의 특성상 수익을 뽑아내려면 투자 또한 엄청나게 해야 하는 반면,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시장 반응이 시뮬레이션과 같이 실패 리스크 또한 엄청나다. 그렇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룹의 대대적인 CJ제일제당, 한우 성장 동력인 CJ오쇼핑과 CJ

CGV는 철저히 분리해 신규 사업으로 인한 투자 실패가 그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필요성이 있다. 가. 가. 가. C.는 CJ E&M이 망하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미루부터 하고 있던 말인가.

어쨌든 CJ E&M 출범 전 일련의 CJ그룹 지배 구조 개선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CJ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CJ제일제당을 분리했고 인적분할을 통해 CJ오쇼핑도 분리했다. 따라서 CJ E&M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돈 잘 벌어오는 CJ제일제당이나 성장 동력인 CJ오쇼핑도 간제하게 된다.

결국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그냥 남두고 독자생존 및 성장이 쉽지 않은 비즈니스끼리 통합하여 시너지를 내 보겠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다. 현재들이 모여 동업을 시작하면서 대박을 꿈꾼다. 하지만 이미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형제까지 동업에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까먹 질못 했다가 잘 살고있는 형제까지 같이 망하면 안되니까. 잘 나가는 형제는 때로 어려운 형제들끼리 모여서 대박 한번 쳐 보자는 거다.

그래서 대체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 거냐?

투자자 입장에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업군 중에 위험 부담이 있는 이류사업의 집합체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낮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류사업의 영향에서 분리된 일류사업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당선이 CJ에 투자할거라면 ①초실하게 돈을 버는 CJ제일제당 ②날같이 기대되는 CJ오쇼핑, CJ CGV ③오래의 취향 사업인 CJ E&M 중에서 ②번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거다. 특히 CJ그룹은 비정상적에도 두 번에 걸친 재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서 ③번 사업이 ①, ②번 비즈니스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아 ①, ②번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놓았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매력적인 성장 산업인 ②번에 투자한다면 마음 편히

발 뻗힐 수 있을 거다.





형법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남자 독자는 이 기사 읽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번 호 법을 섹션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법망을 피해서 잘 강간하라는 게 아니다. MAXIM 독자의 15%를 이루고 있는 여자 독자를 위한 기사다. 잘 읽어보고 강간과 추행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만약의 경우에도 법을 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남자 독자는 본 기사를 읽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활용하자. 욕망 간수 잘 하고! BY 유승민 IMAGES Dreamtime.com

형법 제23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

폭행 또는 협박을 간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강간이 성립한다. 가부로 말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증거가 없으면 원치않는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가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강간범을 고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영이 들었는데 영이 다 빠져도록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있었다가 나중에야 무죄라면 증거 불충분이 된다.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

강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예전에는 여자한테 침으로 뿌리했다. 하지만 요즘은 여자 범죄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과거의 부당한 관행이 많이 사라진 편이다.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고?

강간죄로 고소사건이 들어온 경우에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예전에는 피해 여자 반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이를 판단했다. 한 미디로 말해 반항을 했다면 강간을 당하게 되고 반항을 안했다면 서로 좋아서 섹스를 한 거라는 말이다. 법원의 이런 이론은 법적 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반항을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경우에 강간을 당했음에도 자기가 원해서 섹스를 한 게 되버렸던 거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 여자들이 강간을 당할 때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 보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마주친 20미터의 거구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차고서 당신에게 섹스를 요구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반항할 수 있을까? 자칫 반항하다 실패를 당하느니 강간을 당하는 쪽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을 강간죄로 고소하지도 못한다면? 한미디로 강간하기 참 편한 세상이 되버리는 거다. 여자처럼 살인도 서슴지 않을 듯한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면 윌 테니 말이다. 한 미디로 예전의 법원은 여성에게 '성관계를 원치 않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항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경부터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피해 여성이 꼭 죽음을 무릅쓴 저항을 했어야만 강간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변화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여성 독자들은 만약이라도 강간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반항하는 미라. 이런 당신이 미처 반항하지 못했다라고 그 녀석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강간하려고 더듬기 시작하면?

강간이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 때 법원 판례는 남자가 강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너무 뒤서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시도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신이 지고 있거나 취해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가 하얏기라며 문질러대던 그 녀석. 안타깝게도 강간미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추행은 된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했어야

폭행,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강간죄가 된다. 어떤 남자가 섹스를 하려고 당신을 폭행했다고 치자. 하지만 당신의 원한한 거부에도 남자는 일단 포기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 남자는 방법을 바꿔 한번만 자말라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처량해서 당신이 그 녀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경우에는 강간죄가 되지 못한다. 폭행도 있었고 성관계를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죄와의 차이

강간죄에 '부녀'라고 써있는데 비해 강제추행죄에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써있는 거 보이나? 강제추행은 남자에게 모두 가능하지만 강간은 여자에게만 가능하다.

강간은 벌금형 같은 게 없다. 최소가 3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을 살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도 여자가 남자한테 경우보다 남자가 여자한테 했을 때 형벌이 더 무겁게 떨어진다.

강간이 만자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만지거나 껴안거나 할 경우... 폭행, 협박 안했으니 강제추행죄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 얼마 전 신도림 역에서 열차리 여자 하객지를 더듬다 손을 깊숙한 데로 쏙 넣었던 변태중년 기약-나?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추행죄를 받게 될 거다.

PROOF

누가 증명해야 하나

전장 무죄추정의 원칙이러나..

당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치자. 강간한 녀석을 경찰에 고소했다면 강간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 걸까? 사실상 당신과 그 녀석이 성관계를 폭행, 협박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고소한 한편 되고 그 녀석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건지 말이다.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당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 녀석이 당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당신이 증명해야만 한다. 하아.. 증거를 잘 남겨 뒀어라.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립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준?

강간, 강제추행인데 앞에 '준' 자가 붙어있다. 어떤 위장? 앞의 두가지 죄를 읽고 난 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술 먹고 하면 되지 뭐 약이나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면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간혹 있다.'

특히 나이트나 클럽에서 여자를 술 먹여서 골뱅이를 만들어버리고 취해 쓰러지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나이트에서 술에 취한 부경녀를 모델방으로 업어오거나 클럽에서 여자한테 엑스터시를 먹고 딱을 치려고 하다가 본 조의 준강간죄로 징역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술 먹고 뺨은 여자를 보고 설블리 '오케이 사인'으로 단정짓지도 마라. 감옥간다.

아주 간혹있다 정신병자나 정신박약자를 꼬드겨 섹스를 하다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병신 양아치들이 있다. 이 때문에 준강간이 적용된다. 알뜰했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을 제5조

청소년의 성을 대가를 주고 사는 행위를 처벌하며, 형 확정 후에 그의 신상을 공개한다.

미성년자

여기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13세 이상~19세 이하를 말한다. 이 나이의 미성년자와 그 짓거리를 하면 무슨 죄가 될까? 폭행과 협박을 쓰면 당연히 강간죄다. 그런데 13~19세의 미성년자한테는 몇 가지 더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위력) 성관계를 가지거나, 속여(위계) 성관계를 가져도 감옥에 간다. 그리고 이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섹스를 하는 경우, 쉬운 말로 원조교제 하는 경우도 역시 죄고래이다. 원조교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가에서 신상을 만천하에 까발려주니까 행여나 그런 짓은 꿈도 꾸지 말자.



참고로 20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거나, 원가를 속여서 섹스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20세 넘는 여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유를 과시를 하든, 이빨을 까서 침대로 끌어들이든 법이 허용하는 부분이니 열심히 해도 된다는 뜻이다. 거꾸로 말하면 20세 이상의 여성독자는 스무살이 넘어서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나라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자기 처신은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13세가 넘는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뜨거운 밤을 보냈다면? 무죄다. 원조교제 아니다. 뭐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는 도둑놈이네 개색취체육을 좀 하긴 하겠지만 죄를 짓는 건 아니다. 13세가 넘으면 자기가 섹스를 누구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 10대와 사랑에 빠진 그대여. 존경한다. 단 하나만 주의하라. 절대 몸의 대가로 돈을 주지는 마라. 그건 범죄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

13세 미만이라니!

13세 미만한테 손을 댄 경우에는 과정이 어쨌든 지를 묻지 않는다. 폭행? 협박? 이런거 다 필요없다. 무조건 처벌행이다. 13세 미만의 여자랑 서로

열렬히 사랑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13세 미만의 여자가 당신을 옹호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만약에 12살의 남자이리와 12살의 여자이리가 서로 좋아서 섹스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애들의 발육상태로 보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반에서 연애를 한다. 주위들은 비로소 그것까지 하는 애새끼들이 있다고 한다. 했다고 치고 12살의 영수와 12살의 가영이는 형법 상 범죄죄 저지른 걸까? 맞다. 둘다 306조 위반이다. 하지만 12살의 경우 형사미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고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벌을 받지 않을 뿐, 306

조 위반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가 성립 하진 한다.

우리는 MAXIMO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고매한 성생활을 즐기려는 진소리 따위 안한다. 하지만 법을 어겨선 안된다. 절대 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가서 놀지 마라. 절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에게 탈분만큼도 피해를 입히지 마라. 혹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 있나? 다시는 그러지 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신나게 방탕하게 화끈하게 살아도 좋다. 하루나이트데!



WIFE

아내를 강간한 경우?

SM 플레이를 말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아내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아내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가 될 수는 있어도 강간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TRANSGENDER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그녀는 그녀가 아닐 수도 있다.

여자를 강간한 경우에만 강간이다. 남자를 아무리 강간해도 강간이 되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한테 아무리 원치 않는 섹스를 당한다 해도 법적으로 절대 강간이 되지 못한다. 법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강제 추행' 죄만 된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다. 신사동 일대의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일하던 A씨는 사실 여자로 성전환수술한 남자였다. 수술 후 완전히 여자로서 살고 있던 중 신사동 뒷골목에서 2명의 남자로부터 윤간을 당했다. A씨는 두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를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1이면 무조건 남자란 얘기도.



MILK SHOT

강간죄의 기수 시기

사정은 안했다고?

간혹가다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친구들이 있다. "끝까지 안 했다고요. 싸지도 않았는데 뭐가 강간이예요?"

그러면 판사는 이렇게 말할 거다. "아이구, 사정은 안 하셨어요? 훌륭하시네요."

이 친구.. 징황초음 너무 많이 다닌 모양이다. 청량리E880이나 미미리 텍사스촌에서는 사정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끝나는지

물라도 강간은 성매개 아니다. 네 녀석한 데 강간당한 피해자는 단골집 윤락녀가 아니라 말이다.

법적으로 강간행위는 기해자의 몸통이 피해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된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강간범으로 낙찰된다. 그 후에 완전히 들어갔던 반면 들어갔던. 반면 넣었다 뺐던 100번을 드느냐들었다. 사정을 했던 안했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끝겨 수갑 치면 된다. 오케이버리?



Gentlemen's Hands

여자를 만나면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뜨겁게 데운 손으로 미음껏 조물딱거리자!
손 잡았으면 다음 단계로 레벨업 고고!

BY 고정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권희성

고동색 스웨이드 장갑 90,000원대 제이크

하늘색 스티치 장갑서 장갑 가격 미정 콜럼비아코

손바닥면 보풀세 가죽을 손등면 화제 모직을 사용한 장갑
148,000원 타이모맨

연두색 스티치 장갑 가격 미정 콜럼비아코

장식용 최소화인 장갑서 장갑 90,000원대 제이크

MAXIM 시승기 6

2011년에 주목
해야 할 6가지 신차

HYUNDAI
2011 ACCENT
1,310만원

10년의 세월을 넘어 액셀트가 돌아왔다. 가이스 라이선스(Guy's License)라니, 여자들을 거의 버렸다 실을 만큼 젊은 남자 드라이버에게 집중하고 있다. Boy도 꺼지고 Gentlemen도 빠지고 딱 우리 MAXIM 독자들만 타라고 하니 어찌 시식을 안해 볼 수 있겠나.



FOCUS

④ GD 엔진 요새 현대기아차가 GD를 무지하게 강조한다. TV를 틀면 포르테도 이변페도 GD다. 그런데 GD가 뭔지 설명은 없다. 눈에 필 때마다 궁금하긴 한데 찾아보게 되지는 않는 그런 거 GD가 딱 그렇다.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Gasoline Direct Injection). 휘발유를 직접 뿌린다는 말이다. 어디에? 엔진 연소실에. 디젤엔진은 직분사식이 일반화된 데 비해 가솔린엔진은 대부분 연료를 직접 분사하지 않고 연료와 공기가 섞인 혼합기를 분사한다. 이유는 가솔린이 디젤보다 발화점이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발화점이 높은 가솔린은 디젤과 달리 스파크가 튀어 야만 폭발하는데 스파크가 튀었을 때 불이 붙으려면 액체 상태의 가솔린을 가스 형태의 혼합기로 만들어야 했던 거다.

하지만 가솔린엔진에서도 연료 직분사를 가능케 한 GD 엔진은 고성능, 고연비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고?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해 이런 거다. 연료를 직분사하는 GD엔진에서는 연소실에 연료 따로, 공기 따로 분사한다. 이렇게 하면 연료와 공기

를 섞은 혼합기를 분사할 때보다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연료의 완전 연소를 가능하게 한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더 있지만 패스.

짚점만 점은 있다. 얼마 전 이변페 GD가 팽 하고 폭발했기 때문이다. 메스컴에서는 슬쩍 넘어갔지만 전문가가 봤다는 자동차 마니아들은 여전히 이 시간과 짚점만 뒤처리를 일애 올리고 있다. 모터 'Guy'들에게 현대의 GD 엔진이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HONDA 2010 INSIGHT 1.3 CVT 2,950만원

나머지 5대와는 달리 인사이트는 모델명 앞에 2011이 아닌 2010을 달고 있다. 그럼에도 2011 다크호스로 인사이트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커를 고민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딜레마 '기름값이나 차값이나'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혼다코리아 사장은 신차 발표장에서 '기존 하이브리드 차를 경쟁 모델로 여기지 않는다. 인사이트의 경쟁 상대는 같은 가격대의 모든 가솔린 디젤 차량이다'라고 선언했다. 2,000만~3,000만 원대 차종을 전부 긴장하게 만든 혼다의 신무기. 2011년 6강 안에 들만하지 않나?



FOCUS

ECO GUIDE 인사이트를 그저 연비가 좋은 수동적인 기계로 보면 오산이다. 인사이트는 최적의 연비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운전자를 가르치고 운전 습관을 고쳐주는 지능차다. 인사이트를 몰다 보니 전면 디스플레이에 새색 같은 게 하나둘씩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차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해서 채점하는 거다. 혼다에서

는 이를 '타칭 기능'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늘어날수록 친환경 고연비 운전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예기다. 나뭇잎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거분이다. 나뭇잎이 많아지면 2단계, 3단계로 레벨업하게 된다. 스타레이지가 높아질수록 나뭇잎을 받는 일이 더 까다로워진다. 레벨업할 때마다 소소한 엠블럼이 생기는데 대

체 끝 핀을 깨면 어떤 엠블럼이 생길지 몹시 궁금하다. 까막 질못하다가는 나뭇잎도 잃고 심하면 레벨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런 워 완전히 게임이다. 그리고... 나뭇잎에 엄청 집착하게 된다. 역시 게임 천국 일본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대단한 녀석들. 운전자의 마음까지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변종 중의 변종. 바로 인사이트다.

MINI 2011 COOPER S



3,970만원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나 탐낼 디자인을 자랑하는 미니. 2011년형은 최대출력이 90마력 더 높아진 184마력이다. 장갑차 철판처럼 두툼한 문짝 속에서 외모와는 전혀 다른 목직한 핸들링으로 오버부스트로 노면을 달고 튀어나가는 미니 쿠퍼 S의 운전맛은 마치 부스터를 달아놓은 소형 장갑차와 같다.



Dynamic Braking Lights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의 브레이크 라이트가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는 걸 본 적이 있을 거다. 에디터는 그게 그냥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깜빡이는 튜닝 라이트라고만 생각했다. 뒤 기어는 앞차 운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을 놀리는 인간 ABS가 아슬까 하는 망향한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니 쿠퍼 S를 타보고 나서 알았다. 이 녀석에 기본으로 장착된 다이나믹 브레이크 라이트는 급제동 시에만 번쩍거리며 뒷차에 급제동을 알리는 기능이다. 보통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보통의 브레이크 등과 다를 바 없이 켜지지만, 급제동 시에만 번쩍번쩍거리면서 뒷차도 급제동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거다. 어쨌든 소스채 보이는 이 브레이크 라이트는 분명 좋은 운전자의 후방 충돌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거다. 하지만 에디터처럼 망향한 생각을 하는 운전자가 뒤에 있다면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급제동은 피하자.

스 포츠카와 스포츠 세단.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바로 소리다. 스포츠카가 시끄럽고 멋진 배기음을 토해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면 조용함은 스포츠 세단의 미덕이다. IS250에 올라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 어떻게 시동을 걸어야 하나 한참 두리번거렸다. 시동은 걸려 있었다. 뻔 아니고 진짜로.



Paddle Shift 지난 연말 F1 대회에서 F1 차장들을 유심히 살펴봤다면 핸들 뒤에 막대기 모양으로 달린 패드를 손가락으로 당겨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손쉽게 수동 변속하는 모습을 봤을 거다. 핸들 뒤에 날개처럼 달린 수동 변속기인 패들 시프트는 국내에서는 주로 미세라티 등 몇몇 약대 슈퍼카에서만 채택한 기능이였다. 하지만 렉서스는 4,000만 원대 스포츠 세단 IS250에 6단 패들 시프트를 탑재했다. 가볍게 시속 200km에 육박하면서도 실내는 너무 조용하기만 한 IS250의 운전석에서 패들 시프트로 스포츠 모드 주행을 만끽하다 보면 마치 실제 운전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실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든 단점이다.

LEXUS 2011 IS250



4,390만원

VOLVO

2011 S80 D5 2.4디젤

5,480만원

S80은 볼보 자동차 군단의 두목이다. MAXIMO이 시승한 건 S80 라인 중에서도 가장 볼티나게 팔리고 있는 D5 디젤 모델이다. S80의 기술린 모델인 T6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몰라도, 이거 웬만한 기술린 차보다도 소음이나 진동이 적다. 왜 최고의 디젤 세단이라고 자부하는지 알 만하다.



FOCUS

● BLS 안전의 대명사 볼보에 올라 처음 MAXM의 눈에 들어온 건 사이드미러 시각자제의 다른 차량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BLS 기능이였다. S80의 양 사이드미러 앞에는 카메라 렌즈가 하나씩 달려 있다. 사이드미러로는 볼 수 없는 시각 지대 속 물체를 감지하는 이 카메라에 다른 차량이 잡히면 사이드미러 안쪽 실내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다.

시각지대에 어떤 물체가 들어온다고 항상 경고등에 불이 켜지는 건 아니다. 내가 열 차선 차가 달리는 속

도보다 10km/h 이내의 속도 차이로 추월하는 경우, 옆차선 차가 나보다 70km/h 이내의 속도 차이로 추월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BLS가 반응한다. 게다가 카메라에 잡히는 물체의 형상을 스스로 구분해서 승용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형상이 물체가 감지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준다.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하지만 차량 모양의 그림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은 아닌 듯하다. 형상을 구분해주는 스마트 카메라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간혹 유리처럼 비치는 바닥을 달리거나, 비오는 날 노

면에서 바닥에 비치는 자기 차량의 모습을 보고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차량의 형태를 잘 구분하기 어려운 야간에 BLS 카메라는 다른 차량의 헤드램프 불빛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카메라 렌즈에 얼음이나 눈이 붙어 있으면 BLS 카메라는 스스로를 가열해서 얼음을 녹여버린다. 렌즈가 더러워지면 중 닦으라는 메시지가까지 친절하게 띄워준다. 이런 뒤 BLS 카메라를 소개하다 보니 볼보 판매 사원이 된 기분마저 들지만 광고비를 받지는 않았다. 그냥 신기하잖아. 안 그래?

PEUGEOT RCZ 1.6 THIP 5,610만원

콘셉트 카가 아니다.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로 선보였던 그 환상적인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양산화된 거다. 푸조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차의 뚜껑을 열어주던 드림 컴 트루 브랜드였다. '뚜껑 열리는 차' 라는 막연한 꿈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드림깜추 해줬던 푸조가 이번엔 제대로 된 수입 스포츠카를 관철은 가격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내놓았다. 200대 한정으로 출시된 프랑스에서 전 물량이 48시간만에 완판되고, 일본에선 일년 물량인 500대가 열흘 만에 동나버렸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러쉬가 쏠릴 지 기대된다.



FOCUS

● REAR WING 뒷날개가 사진에는 안 보일 거다. 왜냐, RCZ의 리어 스포일러는 평소에는 몸속에 숨어 있다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만 올라오기 때문이다. 차의 날개는 날기 위한 건 아니다. 차가 날지 않게 하기 위해 달려 있다. 알고 있다고? 자존심 상했다면 미안하다. 혹시 모를까 봐, 86km/h를 넘어서자 뒷날개가 스무스하게 올라온다.

이젠 반드시 백미러를 통해 뒷차 녀석의 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150km/h대를 넘어서면 뒷날개의 각도가 달라진다.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차 뒤쪽으로 더 큰 진공 상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형성된 진공이 차가 속력을 내지 못하도록 잡아끄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리어 스포일러를 작동하면 차체가 노면에 착

달리면서 달리는 듯한 안정감이 든다. 하지만 역시 매력적인 건 들어갔다 나왔다 움직이는 그 자체다. 뒷날개가 나오는 순간의 간지랄함을 위해 일부러 고속으로 주행할 필요는 없다.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 속에서도 뒷차의 눈을 정심 사냥케 만들 수 있다.



COORDINATIONS LUBICOM(www.lubicom.com 02-332-8802)
모델링 에이전시 에이비(02-3446-7733) 미키(010-414890), 리비(010-414890) 01-890(02-3444-7712) 미스 에이전시(02-314-0639)

MAXIM SPECIAL Girl in PINK 착한글래머 엄상미 AGAIN

열렬한 반응에 은뿔로 보답하겠다. 다시 한 번 간다. 착한글래머 엄상미
그녀와의 게임 한편으로 새해를 뽐내지근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BY 이현미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편집
MAKE-UP 전미애(010-414890) ASSISTANT 김희영

핑크색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빛간 레깅스 에디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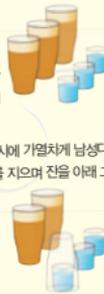
한트무닉 인터랙티브 마주 이너웨어
체스 게임 LUBICON

LET THE GAME BEGIN

술자리에서 그녀를 정복하는 게임
당신이 무조건 이긴다.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1. 술자리에서 맘에 드는 여자에게 내기를 걸어라. "당신은 소주 잔으로 소주 3잔, 나는 500cc 잔으로 맥주 3잔을 마시는데, 먼저 마시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 단 절대 상대방 진을 먼저 안 된다." 그녀가 코웃음을 치면서 승낙을 하면 다음 조건을 달아라. "내가 불리한 게임이니 잔을 먼저 내가 마시고 진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게임을 시작하자."

2. 그녀가 "꿀"을 뱉었나? 시작 신호와 동시에 기열차게 남성다운 활약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국이 미소를 지으며 진을 아래 그림과 같이 내려놓는다. 맥주잔 속 소주잔을 보여 아쩔 줄 몰라 하는 그녀 얼굴을 보여 남은 맥주 2잔을 천천히 비운다. 그리고 그녀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 어떤 새끼가 동일이래?



GAME & BRAIN

낱알 퍼즐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근거 없다. 퍼즐 때문에 두뇌를 많이 콜리던 뇌 속 뉴런 수는 늘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건 뉴런수가 아니라 뉴런 끼리의 '연결'이 관건이다. 네트워크가 잘 돼야 말 그대로 '머리' 좋겠다고 할 수 있다. 퍼즐이 뉴런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

GAME & BRAIN

두뇌트레이닝 점수가 오르는 건 두뇌가 발달해서?

난센도 두뇌트레이닝 점수가 오르는 건 진짜 두뇌가 발달해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연습의 효과'라고 말한다. 즉 단순히 당신이 게임에 숙달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는 거다. 이 발아먹을 장사꾼!







Goodbye 2010!
Happy 2011!





My turn?



Hmm~



THE GAME
BEGIN



촬영장
분류하기

"WINNER,
TAKES IT ALL!"

어이 자네, 치마가 너무 짧고 타이트하군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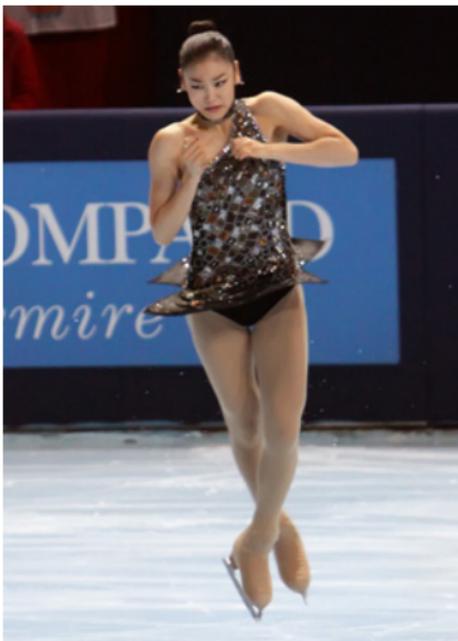
대체 뭐가 그리 낫 뜨겁고 민망하다는 건가. by **

○○○○일보

노출 의상



뉴스



피겨 김연아 선수 자극적인 초미니 노출 의상. 과도한 선정성 논란

김연아 선수가 경기 때마다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등장해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X월 X일 국제 피겨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는 또다시 몸에 굴곡이 선명히 드러나는 초미니 원피스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이에 시청자들은 눈을 어디다 뉘어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김연아 선수의 선정적 의상 선택에 대한 구설수는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점프할 때마다 치마 속이 다 드러나도록 아찔한 옷을 스커트를 입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짤이도 너무 짧다” “의상이 너무 아예 아이들과 같이 시청하기 불편하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시청자들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만큼 김연아 선수가 좀 더 공인임을 자각하고 의상 선정의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XXX 뉴스 0007자 (c.ulehonye@***daily.co.kr)



KBS 아나운서 조수빈이 구슬에 오른 문제의 의상, 대체 이게 어딜 봐서 '몸에 다 드러나는 타이탄한 미니스커트'란 말인가!

치마보다 낫뜨거운 기사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인터넷 뉴스를 썼다면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다. 하지만 이와 다를 바 없는 기사가 오늘도 포털을 도배하다시피 한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건 MBC 양승은 아나운서의 원피스 착시 논란, 원자현 리포터와 조수빈 아나운서의 미니스커트 논란, 박은경 아나운서의 핫팬츠 논란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에서 떠돌아다니는 것만큼 괴문 정밀로 네티즌들 사이에 그러한 심각한 논란과 비난이 있었을까? 자만 광고주 아닌 개인기업이 진행하는 동안 태극전사들의 승전보와 더불어 그 승전보를 전하는 메신저들의 훈훈한 외모 또한 우리 남자들에게 차지 않은 즐거움이었다. 색소한 의상을 입어도 되는 역할, 입으면 안 되는 역할 간에 대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방송 리포터나 아나운서의 옷차림을 가지고 활기잡아보는 인터넷 기사들의 행태는 막대한 극을 달랐다.

**“뉴스나 몸매나.. 원자현 의상논란 확산
양승은 아니, 재깁한 입고 방송 진행?
원자현, 한두 번도 아니고 과도 노출 기술러.. 네티즌 ‘질타’
조수빈 아나운서 몸매 다 드러나는 타이탄한 미니스커트
“공명방송 맞아?”
양승은 아니, 일몰 방송 논란
원자현, ‘자극적인 노출’ 의상 논란.. “다리만 보이네!”
핫팬츠 논란 박은경 아나운서, 미장 진행 논란
원자현 의상논란 ‘눈을 어디다 뒀어 할지’
원자현 선정성 노출 논란.. 아나운서계에 섹스쇼크 열풍?
-아나운서의 의상을 문제 삼았던 실제 인터넷 뉴스 타이틀의 예-**

논란이 필요한 언론

섹스도 아니고 섹스쇼크도.. 대체 이런 싸구려 문구는 누가 만들어 내는 건가? 게다가 하지도 않은 일몰 방송을 ‘논란’ 이라는 단어 앞에 붙여 자극에 자극을 더하고 있다. 누가 보면 해당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 중에 누드쇼라도 벌인 줄 알겠다. 차라리 그게 사실이면 억울하지는 않겠지. 대체 뭐가 그리 보기에 미망하는 건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미니스커트는 더 이상 미망한 옷차림이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기 좋거나. 젊은 이들이 모이는 거리를 걸어보면 오히려 촌스러운 롱스커트도 몸매를 가리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이미 미니스커트는 자그마히 ‘광명화’ 옷차림이 된 지 오래다.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건 언론이다. 끊임없이 자극적인 기사 문구로 더 많은 클릭질을 유도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언론사들은 있지도 않은 ‘노출 의상 논란’ 을 억지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스스로를 언론사

라 부르며 뿌듯해한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라. 당신은 원자현 리포터의 분방을 보고 문제의식에 사로잡혔는지, 아나운서 의상 논란이 있다고 단정짓는 자극적인 인터넷 뉴스를 보고 호기심으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었는지를 말이다. 인터넷 뉴스들이 그녀의 몸매와 옷차림에 대해 기사회해서서 안도하는 말은 아니다. 원하는 것이 클릭률 증가라면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에 대한 주목과 칭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 ‘광저우 여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굳이 재깁해 스트림쇼라도 벌인 것 마냥 그녀들을 노출중 하자 마냥 몰아대고 비난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결국 ‘공식 사과’ 따위를 받아냈어야 했을까?

네티즌 팔아먹기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기자들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예쁘게 보기보단 어떻게든 '논란거리'로 만들어야만 클릭수가 올라간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다. 논란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갖다 붙이는 게 바로 '네티즌'이다. 모든 건 네티즌이 그렇게 반응한 거고 자신의 의견은 그 뒤에 숨는다. 얼마나 간편한가. 네티즌이 그랬는데 누가 일일이 찾아볼 것도 아니고, 기자 개개인의 의견은 손쉽게 '네티즌의 여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되곤 한다.

기사가 의도한 대로 도와 위에 올려진 그녀들을 실제로 비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한 네티즌이 과연 몇 %나 될까? 대부분은 단신처럼, 그리고 우리 MAXIM처럼 그녀의 훈훈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다른 사진, 다른 영상을 더 보고 싶어 그녀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을 뿐이다. 만약 그녀를 보는 것이 낯뜨겁고 불쾌했다면 굳이 보기 민망한 사진들 더 보기 위해 '원저원 앙송은' 이름 석 자를 두드리는 앙송을 거다. 그러나 앙송이 있거든 그녀의 네티즌 좀 그만 팔아먹어라.



마녀사냥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과다노출' 원저원 리포터 '당황스럽고 최솜해' 결국 공식 사과
 박경은 아니운서 "시청자가 보기 불편했다면 사과드린다."
 원저원 리포터 의상 논란에 '차분한 의상 교체'
 앙송은 아나, '의상 논란' 후 질고 긴치마 입어... 남성 팬들 불만

그녀들을 재인데 위에 올려놓았던 기자들은 이제야 속이 시원할까? 뉴스기사 미끼로 삼을 미녀 아니운서들을 길고 두꺼운 옷으로 칭칭 감싸버렸으니 이런 무엇보다도 또 클릭수를 벌려 다닐지 참으로 궁궁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역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빼앗긴 남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예쁜 건 예쁜 거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원초적으로 '이성의 아름다움'이란 성적인 매력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를 수처스럽게 생각해왔다.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보면 "당신은 정말 섹시하군요." 라고 말하는 대신 "대체 눈을 어디에 두라는 거야. 자질개나 보여주고 싶나?" 라고 말하는 게 더 '절절은' 것인 양 행동해왔다. 이런 좀 솔직해지자. 예쁜 건 예쁘게 받아들이고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즐긴 줄 아는 MAXIM 독자들처럼 말이다.

스포츠 승전보를 전하는데 대체 뭐가 그리 경건하고 보수적인 복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있어 우리보다 못할 것 없는

해의 선진국 사회에선 스포츠 아니라 메인뉴스를 전하는 앵커유먼이 끈으로 된 민소매티를 입고 진행해도 누구도 그녀에게 두꺼운 긴팔 옷을 입혀려 하거나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게 민망하면 그저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만이다. 지금의 허위위식과 기자들의 '논란 만들기' 경쟁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국영방송의 미녀 앵커 엘리사 도리오 같은 이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 프랑스 남자들이 섹시하고 지적인 도리오의 아침 뉴스를 보며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프랑스 공영방송의 권위가 무너지지도, 민망함에 온 프랑스 가족들이 침묵에 빠지지 도 않는다. 눈을 돌 데가 없더라 눈앞을 꺼내 주어야에 넣지 않는다. 당신의 눈이 예쁜 여자와 관능적인 몸매에 반응한다면 눈을 돌 다른 데를 찾지 말고 당신의 눈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시선을 두면 된다.

그녀의 허벅지를 돌려주세요!

경찰이 길에서 자를 들고 다니며 젊은 여자들의 치마길이를 재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미니나 핫팬츠를 입은 여자 보면 희류계 여성이려니 하는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다. 지금 그 당시를 회자하면 누구든 "그런 그랬지"하며 웃어넘길 뿐이다. 불과 몇 년 뒤 분명히 우리는 애기하게 될 거다. "가짜 리포터의 치마 길이를 문제삼아 기사를 쓰던 웃기는 시절도 있었다"고 말이다.

물론 기자에게 언론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가 자를 들고 다니며 아내로서의 복장을 단속하고, 걸려든 아내를 뺨뺨 노출증 한자로 몰아 대국인 사과를 요구할 자유는 아니다. 법이 금지하는 공연음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가 한없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얘기 치우고, 기자님들 당산테 편견으로 우리 같은 보통 남자들한테서 예쁜 여자 보며 출가할 광명한 낙을 빼앗아가지 말란 말이다. 어쨌거나 몇몇 기자들 덕에 이미 우리 양성은 아내운사나 원자린 리포터의 이름다른 각산미를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MUSIC CAMP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배철수

배철수 이제씨도 한 때였다.

기자들이 그토록 간헐하게 구는 가족이 함께 보는 시간대에 대한 철수 아저씨의 생각을 들어보자.

2010년 12월 10일 배철수의 음악캠프 1부 방송 중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뭐랄까 조금 예민한 것들. 아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얽한 폭력 이런 거는 너무 관대하죠. 폭력적인 거는 아무렇지 않게 애들아랑 같이 잘 보잖아요. 그런데 카스장만 나와도 괜히 좀 민망해하죠. 사실은 이게 거꾸로 돼야 하는 거거든요. 사랑 장만이나 예쁜 건 뭐 인간이 태어나서 안제나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해서 아이들도 태어나잖아요. 그런 장만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JEALOUS PEN

결다리 조사

우리 그냥 궁금했다. 마녀 아내운서 의심 논란을 일으키는 기자들 중 남녀 비율은 어떨지 말이다. 유치한 발상이지만 '혹시 마녀 아내운서들의 의상을 꼬집어대는 기자 중에 여자 기자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당산도 들지 않나? 우리의 노가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역사!

조사대상

최근 가장 가혹한 시선을 보냈을 '원자린 리포터'의 의상을 가지고 인터넷 뉴스들이 쏟아졌을 당시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인터넷 기사들을 모조리 다 읽어서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사해봤다. 조사한 기사는 총 21개. 이 중 박태환 선수 금메달 소식 방송시 적용된 의상에 대한 기사가 147개였다. 이 중 기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40여개의 기사를 제외하고 조사했다.

원자린 리포터에 대한 의심논란 기사는 대충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형1. POSITIVE

리포터의 예쁜 미모 자체에 반응하는 기사

EX)

1500m 출전 하는 박태환, 마녀 스포츠캐스터에게 반하대(?)

- 메디칼투데이 황상범기자

섹시한 리포터가 대세가 된 까닭은?

- 동아닷컴 정호재 기자

뽕은 치마가 풀워 떨어뜨리면 긴 치마는 풀워 올리나?

- 마이데일리 황태수 기자

박태환 반한 그녀, 원자린? 젊다면 캄캄한 진수

- 맥스뉴스 신상민 기자

유형2. NEGATIVE

옷차림을 문제삼고 선정성 논란을 유발시키는 기사

EX)

원자린 리포터, 초미니스커트도 선정성 논란... "의상이 너무 얇아 거야-?"

- SSVT 최윤진 기자

과도 노출! MBC 아내운서와 리포터, 어디까지 보여줘야?

- 한국일보 안진용 기자

리포터도 섹시 컨셉? 원자린, 과도한 노출로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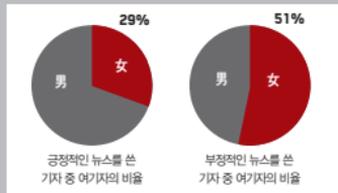
- 일간스포츠 장다와 안민 기자

원자린 리포터 선정적 노출 '의상 논란'...세븐뉴스 "자랑마 방송 10?"

- 메디칼투데이 문병의 기자

의상논란! 원자린 한두 번도 아니고 과도 노출...네트뉴스 '질타'

- 아츠뉴스 김동일 기자



우연이라고 믿자. 이름이 여자 같다고 여자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섹시 여자자들이 마녀 아내운서가 주목을 받는 것이 뜻밖에도 일부의 독하게 기사를 쓰지는 않았...겠지?

CIARA'S
BASIC
INSTINCT





어린 시절 뉴욕,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독일까지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녔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이사를 갔는데 그때마다 친구를 잃는 게 너무 싫었다. 심다가 돼서야 애들 캠프에 정착했다.

슈퍼 모델을 꿈꾸던 어린 소녀가 팝 뮤직을 대표하는 색시 아 이콘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15살 무렵 TV에서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공연하는 걸 봤다. 순간 누가 머리를 말자로 내라치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휘트니 휴스턴과 자넷 잭슨의 스타일을 연구하며 가수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연습에 몰입했다. 가수로서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사실이지만, 가수 가 될 결심을 굳힌 건 분명히 데스티니스 차일드 때문이었다.

데뷔음반 <구디스>로 전 세계 팬에게 당신 이름을 각인시키더니 2집 <샤이라: 더 에볼루션>이 플래티넘(백만 장)을 넘겼다. 너무 대단해서 부담스러울 정도!

2집 음반으로 발표되지 2008년 올해의 여성 으로도 선정됐대(웃음). 당시 애인이던 50센트의 함께 부른 '켄트 리브 얼 플'의 인기와 프로듀서 쉐 아이젠의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2009년 3집 <핀타지 라이드>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다. 비결이 뭔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함께 부른 '러브 섹스 매직'의 매력이 아닐까(웃음). 이전보다 뜨거운 퍼포먼스도 한몫 거들었다. 크리스 브라운, 미시 엘리엇의 도움도 컸다.

하지만 이번 음반은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작년 8월 24일에 음반이 발매될 예정이었던 싱글 '리이드'의 공개 시기를 고려해 일주일을 앞당겼다. 당시 포스터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다시 10월로 미뤄졌고, 결국 이제야 음반이 나오게 됐다.

음반 제목이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이다.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나?

물론이다. 음반 커버도 영화 〈원초적 본능〉 포스터에서 영감을 얻었다. 영화 포스터는 사본 스펀이 마이클 더글라스의 등 뒤에서 얼굴의 반을 내밀고 있는데, 음반 커버에서는 내가 얼굴의 반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음반마다 힌트를 했는데 부담스럽진 않았나?
그래서 가장 '시아라'다운 음반을 만들려 노력했다. 퍼져있을 줄이고 고급적 내 목소리로 음반을 채웠다. 3집이 이전 음반과 비교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은 접어둬라.

이번 음반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점으로의 회귀 R&B에 뿌리를 둔 세련된 음악을 추구했다. 나만의 관능적인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만의 파워풀하고 화끈한 퍼포먼스는 변함없었지?

물론이다. 기존 가수와 '80' 다른 파워풀한 인상을 보여줄 생각이 다. 남자 댄서들 사이에서 홀로 매력을 뽐내는 내 모습이 궁금하다면 '김미디트'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라. 참고로 밀리터리 의상은 자넷 잭슨의 〈리듬네이션〉에서 영감을 받았다.

말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콘서트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시아라의 음반 〈베이직 인스티트〉는 소니뮤직(www.sonymusic.co.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음반 감상 포인트

그녀의 터프한 랩을 듣고 싶다면

1번 트랙 '바이지 인스피트'를 놓치지 말 것 영화 <죽기3>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의 샘플링 위로 그녀의 랩이 쏟아진다. 랩과 멜로디까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시아라의 원 면소를 감상할 기회다.

그녀의 색시함을 만끽하고 싶다면

2번 트랙 '라이드'의 유적비디오를 놓치지 말 것 영화 <원초적 본능>의 사본 스톤 못지않은 그녀의 색시함에 당신의 눈이 호사를 누릴 거다. 물론 다운템포 R&B가 들려주는 매력적인 베이스 덕분에 당신 귀도 즐거울 거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원한다면!

8번 트랙 '유 컨 갓 잇'을 놓치지 말 것 색시한 그녀의 모습 뒤에 숨어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마음껏 즐길 찬스다. 그녀의 소울이 맑고 투명한 목소리는 당신 가슴 속을 흔하게 해줄 거다. 발랄한 요즘 날씨에 듣기 딱 좋은 노래다.



나는 자간
공금하면 2배이자를
떨어보도록

알파벳 로

징그러운 영감쟁이가 된 해리포터 따
윈 꺼져! 사람을 개구리로 만든 후 “어
머 깜짝이야!” 라고 떠드는 유치찬란
한 마법 세상이 레알 오컬트일 리 없
다. MAXIM이 진짜 오컬트가 무엇인
지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겠
다. 알파벳 따윈 몰라도 된다. 눈깔만
뚫바로 떠라. 우리가 당신한테 II의 3
단 부스터 신통처럼 무리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BY 리상현 ILLUSTRATIONS BY 연중근



Alter

제품을 올리는 제안이다. 즉 신이나 정령에게 원하는 걸 사바사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는 장소다. 악마 추종자는 알몸의 차자를 올려두는 비람직한 용도로 자주 사용한다. 성당의 신부님은 제단에서 성수를 놓고 경건히 미사를 드리지만 악마에 하얏하얏이라는 녀석들은 이곳에 오줌을 성수인 양 올려둔다. 게다가 집회가 끝날 때 제단에서 일본 열도 원숭이의 AV처럼 난교 파티를 벌인다. 설마 이게 부러워 악마를 숭배하는 병신들은 없겠지?

Demon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마(데몬이 땅에서 보던 정령도독 스타일의 여자 악마도 마찬가지)는 있다. 어차피 악마란 생쥐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연기 중에 나는 녀석이다. 오컬트의 악마는 팔만방배 엘레트라 베히모스(이놈은 게임(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에도 자주 등장한다)처럼 지옥의 종이 되는 걸 삶의 목표로 삼는 신만 청도의 레벨이다. 소설(파우스트)처럼 악마가 당신을 도와줄 거란(적어도 현재에는) 생각도 접어라.



Black sabbath

블랙 사바스라는 이름은 낮익은 거다. 당신이 여자를 피로고 목이 썩어져라 부르느라고 '섹스 콘'을 부른 밴드 이름이니까. 그렇지만 블랙 사바스의 레알 의미는 록 밴드가 아니라 진짜 상관없다. 블랙 사바스란 마녀들이 살집 좋은 인간을 골라 산 정상이나 숲속에서 악마와 육적거래 놀이하는 걸 말한다. 마녀는 이곳에 참가할 인물이 날게 하는 마법 연고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대가로 한밤에 찾아온 악마에게 몸을 한번 태워줘야 하는데 수컷 악마면 당신은 그냥 X된 거다.



Exorcism

혹시 약 먹은 점쟁이처럼 중언저리거나 집대에서 5개 국어로 래코 아웃사이더처럼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 축하한다. 네 몸은 이미 악마가 따먹었다. 그놈은 당신 몸 밖으로 나가지 않을 테고 설상가상 여자 친구는 맛이 간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거다(젠장!).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엑소시즘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줄 능력이 있는 신부님(또는 목사님)이 필수다. 이 중 제일은 역시 천주교 로마 교구의 가르브리엘 아모스 신부님이다. 7만 건의 엑소시즘을 치른 대가이며 1900년에 엑소시스트 연합을 만들었고, 은퇴하기 전까지 의장직을 맡은 프로 중의 프로다. 실제로 그는 영화 <엑소시스트>를 무척 좋아하며, 이 영화가 꽤나 현실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영화 속 코프마의 심독한 스페이더 워킹 장면이 100% 구라가 아니라 소리다.

Catsow

2010년 12월 9일 에이리시(에이 없는) 캣소눔이 등장했다. 정신나간 이 풀이하는 어떤 고양이 발목을 걸러 입에 물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모자라 그 사건을 다시 야옹이 갤러리에 올려 "나에게 육질, 모독감을 주지 않고 싶다면, 고양이를 치료하고 길로 돌려 보내겠다" 며 수많은 네티즌을 상대로 광역 도발을 시전했다. 영화 <쑤우>의 악역(?) 직소는 작하게 살다가 뒤뚱수를 맞은 게 본래 복수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 빌어먹을 놈은 그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학대할 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딸따미를 치려고 용을 쓰는 X새끼다. 이런 놈은 자기 톨톨이를 걸러 자기 입에 물리고 수많은 고양이에게 남은 생방울을 꺼여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이런 놈을 볼 때 우린 사람도 난도질해 죽이는 살인마 프래디 제이슨의 손수하고 해맑은 메릭을 되새기게 된다.



Fredy Krueger

공포 영화 (나이트메어)에 등장하는 희대의 변태 살인자. '살고 싶으면 잠자리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영화 카피로 수많은 일어의 공분을 샀지만 딱딱 즐만 알던 1980년대의 한심한 미국 10대를 씩씩하는 역할로 인기가 높았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꿈이(夢魘)로 등장인물이 달콤한 잠에 빠지면 날카로운 손톱으로 난도질하는 게 트레이드마크다. 잔인한 살인자면서 개그 감도 좋아서 살인 장면이 마치 한 편의 풍트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자극은 (캐리비안의 해적)의 선장으로 잘 나가는 조니 덩도 (나이트메어) 판에서 프레디 크루거에게 침대에서 떡실신당하는 단역으로 출연했다. 그는 (나이트메어) 시리즈의 열혈팬이기도 하다.

Goblin

작고 추하게 생긴 마귀나 도깨비라고 말하면 분명 못 알아듣는 생퀴들이 있을 거다. 와우 화장팩 (대격변)에서 호드 진영에 추가된 종족으로서 수많은 게이머(라고) 쓰고 호드를 사랑하는 남자 유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면 믿지 않겠지? 고블린은 작은 체구에도 다양한 마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에서 오르보다 훨씬 뛰어난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헤로미노오,
탁탁탁.

Harry Potter

마법사와 마녀를 빼고 오컬트를 논할 수 없으니 갈나가는 마법사 해리포터를 언급될 자격은 충분하다. 게다가 이 재수 없는 영국 양놈 새끼는 마법사마저 재능을 타고 난 놀만 될 수 있다는 유대인 뺨치는 천민의식을 꼬꼬마에게 심어줬다. 게다가 마법 주문 한 방이면 사람도 죽인다. 순진무구한 MAXIM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세계다.

MAXIM보다 잔인하며, MAXIM보다 무섭지만 당당히 전체 권력을 등급을 버젓이 받으며 우리나라 꿈나무의 정서를 때때하게 만드는 무서운 양놈이다.





지만 성서에도 등장한 유서 깊은 바다 괴물이 다, 보고만 있어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살 떨리는 생김새가 포인트프 잠거나 길들이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녀석으로 참이나 작살 따위는 간지럽게 느끼는 두터운 비늘, 날카로운 이빨, 붉은 뿔을 가졌다. 그랬잖아 정력에 좋다고 하면 짜가 마르겠지.

Memento

영매, 죽은 이와 산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이다. <사랑과 영혼>에서 우리 골드버그가 맡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이다. 영매는 무이자정에 빠진 후 점진하여 영혼의 목소리를 진한다. "내 객상 사람 밑바닥에 2대짜리 아동 허드가 있느니라~!" 어? 할아버지!

Necromancer

게임 <디아블로 2>에서 당신이 라면을 먹으면서도 액트 5 앞마당을 돌수 있던 유일한 직업. 바로 네크로맨서다. 보통 네크로맨서는 죽은 존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령술사를 부르는 말이다. 공포 영화에 감초 역할로 자주 등장하며 수많은 해골 병사와 좀비를 조종하는 파워풀한 존재로 묘사한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페스트가 네크로맨서의 소행이라 믿기도 했다. 뛰어난 네크로맨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한곳에 응축시킨 후 몸을 시체화해서 영생을 얻는 '리치'라는 존재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많았다.

Jincubus

밤마다 잠과 있는 여자를 유혹해 떡을 치고 아이를 낳게 하는 악마다. 이런 떡을 새끼를 뱌니 주변에 여자가 씨가 말라고 추리스(無子)한 상태가 되어버린 당신에게는 이보다 더 끔찍한 놀음 없을 거다. 씨 없는 수박인 주재에 짝궁 서류버스가 남자를 유혹해 받아온 정액을 이용해서 여자를 임신시킨다.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게 아니라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기는 골 때리는 놀이다.

Jason

영화 <31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불사신자 살인마. 캠핑 와서 풀불 안 가리고 떡을 치다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주는 살인마 되겠다.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을 지녔기에 잘 밟고 찢리고 불타고 차어도 캔디처럼 곳곳이 살아난다. 수줍은 얼굴을 가려주는 트레드마크 하키 마스크는 <31일의 금요일> 3편에서 까불던 동보를 손바닥에 획득한 아이템이다. 참고로 SF 버전으로 거듭난 <31일의 금요일> 10편은 꼭 한번 찾아볼 것! 이이언텐을 뺀다는 메탈 제인이 등장한다.

Knives

떡칠 때 콘돔이 필수이듯 마법을 쓰려면 도구가 있어야 한다. 허브를 자를 때 사용하는 손잡이가 하얀, 낮처럼 생긴 칼은 마법 주문을 외울 때 사용한다. 손잡이가 까만 나이프는 오컬트 관련 의식을 치를 때 이용한다. 당신의 닉네임이 새겨진 나이프에 마법 효과를 지우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평소엔 본인 이름이 새겨진 나이프를 들고 다니란 얘긴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Leviathan

저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리바이어탄은 비록 아홉에 딱실신당하긴 했



OUIJA BOARD

당신이 소싯적에 즐겨하던 분신사바의 양키 버전, 분신사바는 소박하게 연필과 종이만 써서 유령을 불러들였다면 위자보드는 'YES or NO'라는 답변에 써여 있는 그림듯한 보드케임 판으로 유령을 소환해 질문자가 답변을 얻으니 조금 럭셔리한 편이다. 양키들도 처음에는 장난감처럼 위자보드를 이용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죽은 남편, 아들과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아내들을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1860년 14세 소년 로비 맨하임은 세상을 떠난 이모를 위자보드로 만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오컬트 전문가에 따르면 '위자보드에 흑마법은 유령은 급속하게 죽거나 살해당한 유령이 대부분이라서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존재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한다.

위자보드의 위력은 개별 과학자는 위자보드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 의지와 감정을 무관하게 근육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이데오 모터 효과'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Holtergeist

당신이 술 먹고 플라카 되지도 않았는데 집안 물건이 미구 날아다니고 방 안이 양방진장이 된다면 이놈의 것일지도 모른다. 플라기스트는 보통 시끄러운 유령이라고 부르는데, 파워가 좋은 녀석은 집을 공중에 띄울 정도다. 그런 늑을 만나면 즉시 헬멧을 착용해 머리를

도 방어하도록!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플터가 이스트는 불리 에릭스 마을에 등장한 녀석이 다. 마을 이름 하고는... 목사 가족이 머문 집 장문이 갑자기 깨지고 병이 날아들며 벽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목사가 유령을 퇴치하려고 엑소시즘을 행하자 오히려 큰 광풍이 날아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신문에 이야기가 알려지자 고스트 헌터 해리 프라이스는 조사팀을 꾸렸고, 유령의 정체가 1667년 살해당한 수녀란 사실이 밝혀졌다. 건물은 즉시 불태워졌는데 한 남자가 불꽃 사이로 수녀가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프라이스가 잿더미가 된 집을 조사했더니 가톨릭 메달을 목에 걸 쓴 여자의 시체가 발견됐다. 그곳엔 더는 건물이 세워지지 못했다.

Queen Victoria

빅토리아 여왕은 죽은 남편 알버트와 노가리를 끼기 위해 영매술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매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 존 브라운을 고용한 후 오랜 세월 그와 함께 지냈다 (이봐 죽은 남편을 만나겠다면서), 심지어 잠잘 때도! 마마다 브라운과 함께해야 할 용무가 있었고 물러대긴 했지만 남자가 단 둘이 방에서 할 용무란 건 '그저' 말고 또 뭐가 있었나! 존 머시기가 고자도 아니었을 테고 말이다.

Runes

고대 게르만족의 이교도 문자다.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당신이 골짜기 주는 아이템이다. 게임 속에서 문과 합체한 무기가 한층 더 강력해지듯 문이 새겨진 무기에는 파워 풀한 힘이 깃든다고 믿었기에 각종 무기에 피로 문은 새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컬트 박물이 히틀러도 예외는 아니었다. 히틀러 친위대 배지에 새겨진 문양은 비락을 상징하는 두 개의 문을 합친 거다. 나치의 상징(卐)은 문 문자로 비락의 신 토르를 의미한다. 이런 빌어먹을 전쟁광 오프 생쥐!



Scrying

수정 구슬로 점치는 걸 말한다. 이 방법의 최고수를 플라자면 역시 노스트라다무스다. 당년도 180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예언을 철책 믿고 행자행자 놀았다면 지금쯤 초절정 영어가 되어 있을 거다. 이 사기꾼 생쥐! 하지만 16세기를 살다 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세계대전은 비롯한 굴적한 사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의 예언은 4중의 짧은 시 형태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사리는 게 원래 해석하니까 음이난가). 그가 살던 중세시대는 마술의 '마' 자란 꺼내도 황천길로 가는 흉흉한 세상이라 명멸을 유지하려면 영인을 양호처럼 남길 수밖에 없었다.





Tarot

당신의 여자 친구와 1780년대 스웨덴의 비밀 결사대 프리메이슨의 공통점은 탐관 노린 타로카드를 찾는다는 거다. 무작위로 섞인 카드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무한도전) 속 해골 모양이 주로 작렬하겠지만) 카드로 미래를 점쳤다. 심자가에 매달린 남자는 희생, 심판관 카드는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큰 건물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올 것을 상징하고, 악마는 자승자박의 상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타로 카드는 당신의 원래 생각을 보다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 타로 카드만 철썩같이 믿는 열간자식은 하지 말라 소리다.

Wromancy

타로 카드도 머리 아파서 못해 먹겠다는 늑은 이리로! 진짜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일단 툴툴을 꺼내라, 그리고 오강이든 뭐든 오줌을 갈겨라. 농담 아니니 뭐잇 나우! 큰 거품이 시원시원하게 밀찌감치 퍼져 있다면 당신에게 황재수가 있던 예가다. 거품이 작든 심지어 툴툴 못지 않나? 그럼 그냥 집에 처박혀 있이라. 오늘 당신은 최악의 하루를 보낼 예정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환이 생길지도 모른다. 진한 노란색인 데다 냄새까지 지독한가? 그 색은 고추는 없는 편이 낫겠다.

Wodoo

저주를 내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부두 인형(침을 가득 꽂을 용도로 사용하는 인형)이다. 만들기가 쉽고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전통 버전은 뉴올리언스 지방의 이끼를 뱃속에 가득 채넣은 팔과 다리를 짤 수 있게 만든 봉제 인형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저주를 내리려면 상대와 관계가 있는 것들(가령 언어들)이 딱칠 때 쓰는 멘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Witchfinder

이제 영국에 태어났다면 날로 먹는 직업 마녀 판별관(이교도 감별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다. 하는 일은 간단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의 몸을 살살히 훑고(오예!) 들고 다니는 무기(?)로 점을 찍었다. 이때 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악마로 악마의 표식이라며 마녀로 판정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는 자신이 시형당하지 않기 위해 이웃을 팔아넘겼고, 무고한 여자가 마녀사냥을 당해 저세상으로 떠났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자로 쫓아보고, 돈도 버는 일거양득의 직업이니 당신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정도가 이에 견줄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닐까?

Xemo-mancy

당신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날의 길흉을 점치는 방법이다. 가령 당신이 집을 나섰을 때 지역의 대장급 사람을 만나면 조만간 목돈이 굴러들어온다는 식이다. 반대로 구질구질한 포병급 사람을 만난다면? 그날은 그냥 X된 거다.

Yule

크리스마스트리를 꾸미는 일은 오래전 유럽에 살던 이교도의 풍습이었다.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아일랜드에서는 지금도 크리스마스보다 올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올 페스티벌 역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서 하던 것처럼 메 터지게 음식을 먹고, 맥주를 몰처럼 마시는 건 비슷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흘러들어오자 올 풍습은 '메리 율(merry yule)'로 이름이 바뀌었다.

Zagan

오일트 덕후짓을 하면서 킹왕짱 센스도 갖고 싶다면! 자간과 상담해라. 지옥의 끝판왕은 갖난이기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물론 주변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게다가 예수도 아닌 녀석이 몸을 포도주로 바랄 수 있고, 모든 금속을 동전(돈)으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당신처럼 어리버리한 놈도 타블로만큼 툴툴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녔다. 이 정도면 자간에게 기꺼이 영혼을 내어줄 법하지 않나? 평생 여자 한 명 못 만나게 포추리스한 놈으로 살 바라는 말이다(젠잘아, 상현아 울지 말자).



SECRET WAR

폴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화 <대부> 1편에서 말린 브랜도는 상대인 패일리의 메신저에 폭자가 돌아 백큐를 날린 이들에게 "자폭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굳게 타일렀다. 실제로 정보전의 기본은 우리 군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거다. 나폴레옹이 철학하던 시대에도 크게 다를 건 없었다.

WORDS BY NASICA

기본 중의 기본! 문서 및 통신 보안

당신이 군버리거나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라면 '통신 보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못해 신물이 나겠지. 하지만 정보전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일모 문서 및 통신 보안이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전화, 무선 통신 등이 없어서 모든 통신이 서신 형태로 이뤄졌다. 대부분 말을 탄 연락 정교나 군함 등으로 전달했기에 도중에 이들을 가로채면 비밀문서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암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인어는 결국 반복되는 단어와 일파렛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영어나 불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파렛은 'd'다. 따라서 암호화된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일파렛을 찾아보단 면 'e'에 해당하는 암호를 찾는 셈이다. 상폴레옹이 로제타스톤에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석한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했다.



남자의 영화이자 마이아 영화의 고전 <대부>. 이제는 영구의 (라스트 갓 피터) 때문에 '테러리리리...' 같은 피질된 소리만 기억되도...

빌어먹을 스페인 게릴라 녀석들 때문에~♪

나폴레옹은 손쉽게 이탈리아와 독일을 정복했지만 스페인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물론 스페인 정규군은 가볍게 격파했지만 이프기니스탄 게릴라의 밤을 후려칠 스페인 게릴라들의 활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들이 프랑스군 부대 및 본국의 지원 등이 기록된 문서를 탈취하고, 이것이 영국군의 손에 흘러들어오자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프랑스군은 한 음절 또는 한 그룹의 일파렛을 다른 일파렛으로 바꾸는 '암호화(cipher)' 작업을 시작했고, 덕분에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통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송할 수 있었다. 이때가 1811년 즈음이었다. 프랑스는 이후 포르투갈에 주둔한 프랑스군에 500여 개의 일파렛을 조합해 만든 새로운 암호 체계를 보냈다.



일본 해군의 잠수함 공격 개시할 무렵에는 코도 나카타 산에 오르다 라는 문장을 보고 암호 철시 이 아닌 나카타 생각한 뉴 뉴구안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암호 천재가 여기 있네! 조지 스크벨의 등장

이 표는 조지 스크벨이 개발한 암호 체계의 일부로, 숫자와 알파벳을 매핑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표에는 'Cavalry'와 'Infantry'와 같은 군부대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의 대장부 코드입니다. 시바네 보만 해도 속이 풀려가는데 유럽 황제 나폴레옹에 대항하지 않아서 다양하다.

이때 해상처럼 등장한 한 사내가 있었으니 영국군 장교 조지 스크벨이었습니다. 그는 "내지는 가령"이라는 암호로 호기롭게 가령 연대 장교직을 구했지요? 하지만 부자집 재제가 낡는 가병대의 라이프스다 일을 쫓아가지 못해 결국 제5대 보병 연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게다가 웰링턴 장군은 기운을 충수하는 전형적인 귀족 장군이었습니다. 돈과 연줄도 있는 스크벨이 눈에 찰리 없었다. 병참부의 참모 자리를 전전하던 그는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육군 인사원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스페인 각역에 출어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군에 명령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군사 통신 감독관이 된 1811년 즈음 '포르투갈 주둔군 암호'를 사용한 프랑스군 문서가 그의 손에 떨어진다. 이 암호를 스크벨은 단 이틀 만에 풀어내는 기염을 토했지만 1811년 말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의 프랑스군에 '그레이트 피리 코드'라는 새로운 암호를 지급하는 바람에 그간의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됐다. 루이 14세 시절의 암호를 보강한 암호는 1400개의 알파벳 조합으로 이뤄진 암호 천재 스크벨도 한참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간 스크벨의 재주를 가상해 여기엔 웰링턴 장군도 '그럼, 그렇지'라고 다시 씹소를 달리기 시작했다.



웰링턴의 암호 천재가 조지 스크벨. 자지 스크벨이라고 암호도 되지 않음? 조자나 자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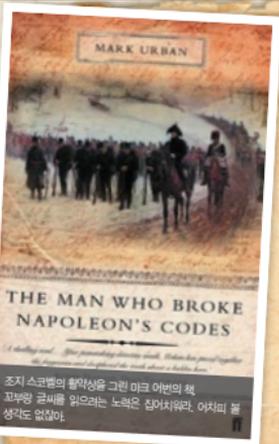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스크벨은 프랑스군의 암호를 조금씩 풀어나갔고, 1812년 7월 살라망카 전투에서 결실을 보았다. 나폴레옹의 형이자 스페인의 꼭두쇠인 왕 조세프 마르몽 원수에게 보낸 7월 9일자 편지를 영국군이 압수했고 스크벨은 내용 대부분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조세프 이끄는 자립 병력이 7월 29일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웰링턴 장군은 7월 22일 살라망카에서 마르몽에게 도전해 승리를 거뒀다. 또 1812년 12월 조세프 왕이 나폴레옹에게 보낸 편지 역시 스크벨 덕택에 해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작전을 세운 웰링턴 장군은 이듬해 6월 비토리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프랑스군을 스페인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별 별 일 없던 장교 스크벨은 기사 작위를 받고, 샌드허스트의 육군 대학 총장까지 지낸 후 장군으로서 군복을 벗었다. 아, 진짜로 웃을 벗은 건 이라고.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하지만 스크벨은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 그는 온전히 수작업으로 몇 가지 숫자 즉 2, 13, 20, 43 등이 더 자주 사용된다는 걸 알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200만 숫자가 프랑스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2글자 단어(영어로 and, 우리말로 그리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실제로 긴 편지는 암호화 작업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특정 단어만 암호화하고, 일부 단어는 평범한 문장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가령 프랑스군 지휘관이 보낸 편지에 "3. 56. 98 ne negliserai"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중 'ne negliserai'는 프랑스어에서 1인칭 미래형에 사용되며 '등한사하지 않겠다(영어로는 will not neglect)'는 의미가 있다. 47에서 98이라는 숫자가 'je'(영어로 I, 우리말로 나)를 뜻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웰링턴과 살라망카 전투를 그린 프랑스 원수 마르몽. 당시 여장전투를 해봤던 김원태는 눈을 떠볼 때 쓰는 원수 기만이다. 오해하지 마!



조지 스크벨의 활약을 그린 마크 어번의 책. 과학영 공부를 읽으려는 노력은 칭찬여러분. 아차의 불쌍하지 않습다.

그래도 역사는 알아준다

하지만 스크벨은 업적에 비해서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웰링턴 장군도 스크벨의 공로를 인정하는 일만큼은 인색했다. 기사 작위를 받은 것도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암호 전문가는 훗날 역사에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순 있어도 당시에는 작군은 물론 본국에서도 존재가 알려지진 못했었다. 그렇다고 스크벨이 억울할 필요는 없다. 2001년 미크 어번이 그의 활약을 담은 《The Man Who Broke Napoleon's Codes》(나폴레옹의 암호를 깨뜨린 남자)라는 책을 내놓았다. 잘나온 귀족 장군 웰링턴 장군에게 무시는 당했지만 그래도 역사는 그의 업적을 잊지 않고 알아준 셈이니 기쁘다.

MAXIM BUYER'S EDGE



젠하이저, 아이폰용 고급 헤드셋 4종 출시

세계 오디오 시스템 시장을 선도하는 젠하이저에서 아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고급 헤드셋 4종(HD, PX 200-H, HD 218, HD 238)을 출시했다. 최고의 음질과 편리한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하는 4종의 헤드셋은 전국 애플 리셀러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www.sennheiserkorea.co.kr

루미녹스의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는 실제 극 작전에서 투입되었고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ATACAMA Field Chronograph 1845를 새롭게 선보였다. 거친 느낌의 스웨이드 소재 스트랩과 별도의 동력 없이 25년간 빛을 밝히는 발광 테크놀로지, 수심 100m 방수 능력과 견고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까지 거친 활동을 즐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가격 799,000원 문의 02-757-9866 www.milimwatch.co.kr



볼보, 2011년 10대 베스트 엔진에 선정!

볼보의 트윈스크랩(twin-scrub) 티보 엔진 T6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워치 오로'에서 2011년 10대 베스트 엔진으로 선정되었다. 플래그십 세단 '뉴 볼보 S80'에 장착되어 한국 시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볼보 T6 엔진은 2.95cc, 직렬 6기통 트윈스크랩 터보를 장착하여 304마력의 고성능과 44.9kg·m의 폭발적인 토크를 볼보에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한다. www.vocars.co.kr



겨울 여행지에서 주목 받자! 루이까뜨즈 보잉 선글라스

루이까뜨즈 아이웨어에서 겨울 여행을 위한 첫 아이템 중 화제의 블랙의 2가지 메인 색상의 팔레트 기미한 보잉 선글라스 제품을 내놓았다. 팔레트 기미하여 렌즈 프레임 부분은 더욱 부각했으며 렌즈와 렌즈 사이는 실버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187,000원 문의 053-666-5166



지치지 않는 에너지 리복 직텍!

2010년 리복에서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직텍이 1월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된다. 더욱더 강한 에너지를 끌어온 직텍 '직스노(ZIGSONIC)'는 기존의 메시 소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세티 어메인(조각) 소재를 제작해 더 튼튼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준다. 또 인조 가죽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에 패시너들만 디자인을 곁들여 일상생활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가격 138,000원



FRED, 글래디에이터 컬러 한정판 출시

LVMH 그룹 계열의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FRED는 2011년 스포티하고 시크한 디자인의 시계 '글래디에이터 컬러'를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직경 44mm의 여유로운 사이즈의 케이스에 광택이 더 레드 골드 컬러가 고급스러움을 선사한다. 또 200m 방수 기능과 더불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제니스사의 오토매틱 크로노미터가 작동된다. 문의 02-514-3721

헤이스 액세서리, BIG H 시리즈 출시

캐주얼 브랜드 헤이스 액세서리에서 2011년 빅 H 로고 PVC 백을 출시했다. H·PVC 라인인 베이직 컬러 소재에 헤이스 액세서리의 아나슬 'H' 로고를 프린트한 새로운 디테일과 은은한 컬러 감미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연출했다. 문의 02-514-9006



보스 블랙의 아크 로퍼

성공하는 이들을 위한 유라피엔 강성의 독일 명품 브랜드 보스 블랙에서는 이번 시즌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요소들을 담은 패션 쪽을 제안한다. 부드러운 아린 송아지 가죽으로 디자인한 핏 스테이도 슈즈는 실루엣을 강조하여 화이트 컬러 가미의 라인 디테일과 태슬 장식으로 짙고 윤택 있는 느낌을 전달한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겨울 패션에 스타일리한 느낌으로 세련된 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보스 블랙의 아크 로퍼를 만나보자.

문의 02-2014-9178



라코스테, 플랫폼에서 선보이는 누베라 2

라코스테의 '누베라 2'는 프리미엄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스포츠 풋 웨어다. 옆면에 편창을 주어 스포티함을 살렸고, 미드솔 부분은 합성고무를 덧대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화이트 상을 사용하여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것을 더해 캐주얼 스타일 어디에나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플랫폼 디자인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격 59,000원



파나소닉코리아, 3D 미러리스 카메라 루믹스 GH2 출시

파나소닉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 3D 바람을 불어넣었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카메라 업계 최초로 3D 사진 촬영이 가능한 시 풀 HD 동영상 촬영 기능까지 겸비한 루믹스 GH2를 출시한다. 가격은 1,390,000원에서 1,990,000원까지, 3D렌즈는 349,000원으로 별도 구매해야 한다.

문의 02-533-8452



타임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

스페인인 스포츠 패션 시계 브랜드 타임포스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을 앞세워 한국에 론칭했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 4,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타임포스가 선보인 CR 컬렉션의 크로노그래프 제품은 25가지 스타일로 구성돼 매달리 다이얼에 시 분 초 표시를 뿐 아니라 10가압에서도 방수가 가능하다.

가격 32만원

문의 02-757-9866

www.milmlwatch.co.kr



벨킨, 7인치 태블릿 PC 액세서리 출시

IT 주변기기 전문 기업인 벨킨은 벨킨 고유의 스타일리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갖춘 7인치 태블릿 PC 액세서리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알고 휴대성이 좋은 7인치 태블릿 PC의 특성에 맞춰 손에 들고 다닐 때나 이동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등 터치 기능을 강화했다.

가격 22,000~59,000원

문의 02-566-1320



머렐, '포투스' 출시

5년 연속 전 세계 아웃도어 부문 1위의 머렐에서 '미 특수부대 SEAL'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포투스' 슈즈를 선보인다. 고급 정션 화제인 사용하는 누비 가죽과 충격 흡수 기능을 특화된 머렐사의 에어쿠션 미드솔을 사용하여 격렬한 움직임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올 겨울 아웃도어 활동의 묘미를 만끽하고자 한다면 머렐의 '포투스'를 선택하자.



파나소닉코리아, 마사지 소파 예약 판매 실시

편이 앉아 쉬는 소파 패션 디자인에 안마 기능까지 갖춰 출시된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옥에서 발키까지 전선 마사지가 가능한 마사지 소파 모델명 EP-MS41을 내년 2월 국내 출시에 앞서 12월 17일부터 한 달 전 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파나소닉의 마사지 소파는 일본 내국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 디자인으로 수상한 바 있다.

가격 288만원 문의 02-533-8462



로지텍코리아, 노트북 스피커 'Z305' 출시

로지텍코리아는 독특한 음질 고장성의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360도 사운드를 자랑하는 로지텍 노트북 스피커 'Z305'를 출시했다. Z305는 MP3 혹은 영화 마스터들이 노트북에서도 품질 좋은 사운드로 유튜브의 최신 동영상, 유명 할리우드 영화까지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www.logitech.co.kr



한국닌텐도, Wii 전용

Wii Fit Plus 정식 발매

한국닌텐도는 Wii(Wii) 전용 소프트웨어 '위 피트니스 플러스'를 2010년 12월 2일에 정식 발매했다. '위 피트니스 플러스'에는 2종류의 새로운 트레이닝이 추가되어 yoga,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밸런스 게임 등 총 69종류의 트레이닝이 수록되었다. 소프트웨어 단종 25,000원, Wii 보드 밸런스 시스템 세트 98,000원 문의 02-6370-3342



VANS(반스)의 색다른 어그 부츠 제안!

젊은 패션 피플의 개성을 경쾌하면서도 위트 있게 표현하는 스트리트 브랜드 반스에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실용적인 어그 부츠 '티모시(TIMOTHY)'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반스의 라인은 트렌디한 노르딕 패턴의 유아를 포인트로 연출하면 예지 있는 언더룩을 완성시키기에 충분하다. 반스 로고 스틱 및 잔국 ABC 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771-0007

에이서, 트리플X 5552G 국내 출시

글로벌 PC 기업 에이서(acer)는 고성능 트리플코어 노트북 PC '아스피어 트리플X 5552G'를 국내에 처음 출시한다고 밝혔다. AMD 페니엄 II 트리플코어 프로세서와 ATI 라데온 HD 5650(2GB)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는 등 강력한 사양을 갖췄고 전체 얇은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된다. 가격 680,000원 www.acer.co.kr



카운트다운 서울 2011@ 타임스퀘어 페스티벌

매년 12월 31일, 인파에 걸려가면서 타종 소리를 듣는데 신물이 난 이들에게 새로운 형식의 카운트다운 쇼를 제안한다. 카운트다운 서울 2011@타임스퀘어 페스티벌은 국내 최초의 인도어 페스티벌로, 프랑스 에드뱅어 레이놀드의 대표 피피피와 디제이 에디 독일의 테크노 신동 스트림 스트리브, 국내 아티스트 걸리시 시인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유망신인들이 참가한다. 가격 55,000원 www.countdownseoul.com



페르노리가 코리아, 발렌타인 글렌버기 200주년 스페셜 에디션 출시

발렌타인 역사상 처음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 출시된다.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시리즈 중 첫 번째인 글렌버기 에디션이 바로 그것. 글렌버기 중류소 특유의 감미로운 과일 향과 풍부한 달콤함을 발렌타인 시그니처 스페셜의 녹색 병에 담아, 한정 수량으로 전 세계 중 한국 시장에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다. 가격 105,000원(500ml)

게스 진, 스트리트 스타일 야상 점퍼 출시



올겨울 밀리터리풍의 유행으로 스타일미한 야상 점퍼가 다량 출시되고 있다. 게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야상 점퍼는 딱딱한 밀리터리풍에서 벗어난 심플한 포멀 캐주얼 스타일로 탈착 가능한 리본 털 후드와 충전재를 사용하여 스타일만 아니라 보온성도 살렸다. 12월 17일부터 게스 전국 매장에서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가격 388,000원 www.guesskorea.com

모토로라, 스마트폰 디파이 출시

물속에서 끄떡없는 휴대폰이라니.. 모토로라 디파이는 생활방수, 터치 유지 차단 기능과 더불어 고질라 글래스(Gorilla Glass) 스크린을 탑재하여 스크래치 방지 기능도 강화했다. 안드로이드 2.1 플랫폼(2.2 업그레이드 예정)을 탑재했고, 아울러 3.7인치 FWVGA 해상도를 올 터치 스크린을 기본으로 500만 화소 카메라를 갖췄다. www.defy.co.kr



소니코리아, NEX-3 겨울 한정판 패키지

소니코리아에서 DSLR 브랜드 알파의 미래 리스 제품인 NEX-3를 새로운 컬러의 겨울 한정판 패키지로 선보이고 예약 판매 구입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최초형, 최강량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소니의 DSLR 알파, 컴팩트 엔디캠, 콤팩트 카메라 사이버사의 DNA를 물려받아 최상의 성능과 스타일을 겸비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가격 94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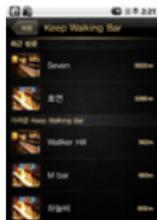
양방언 영상 콘서트 NEORAMA

2011 양방언 영상 콘서트(NEORAMA)는 기존의 솔로 앨범 위주의 장기 공연과는 다르게 양방언이 직접 음악에 참여해준 수많은 명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게임, CF 등 좀 더 다양한 장르의 O.S.T. 수록곡을 감각적이고華麗히 높은 영상률 통해 관객이 음악과 일체되어 좀 더 현장감 있게 공연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AX-KOREA에서 1월 21일(금), 22일(토) 이틀간 3회에 걸쳐 공연 예정이다. 문의 02-6352-6636



스마트하게 즐기는 조니워커 어플리케이션

다이하드코리아는 200년 전통의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가 국내 위스키 업계 최초로 주변 바를 추천해주는, 모바일 영향 교환이 있는 스마트로 어플 '조니워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니워커를 즐길 수 있는 주변 바를 추천해 주는 '킬워킹' 기능과 위스키를 구매하듯 영향을 교환하는 '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19세 이상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누구나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 02-782-0880



PHILIPS, 홈오디오 라인 3종 출시

필립스는 사운드 터워 모델인 'DOM580', 3개의 콤팩트한 큐브 형태로 이루어져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는 'DOM05', 벽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된 'DOM832' 총 3종의 도킹 오디오 홈오디오 라인을 출시했다. 결합이 편리한 필립스 도킹 포트(docking port)를 통해 어떤 이어폰도, 이어팟 기종이든 별도의 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접속과 충전이 동시에 가능하다. www.philips.co.kr

온 가족이 즐기는 '카넥트'

Xbox 360용 카넥트(Kinect)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센서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카넥트가 사용자를 인식하고 동작에 반응한다. 공이 보자마자? 할짓 치보라, 영화가 보고 싶다면? '엑스박스 플레이'도 말하면 된다. 외화보재 '엑스박스, 여제' 가격 카넥트 패키지 398,000원, 카넥트 198,000원



스피드 레이서의 시계, 에디피스 (EDIFICE)

카시오의 남성용 메달 시계 에디피스(EDIFICE)는 F1 최강의 레이싱 팀 레드 불이 선택한 시계로, 종합 순위 1위인 세바스티안 베일 선수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계다. 레드 불 마신의 엔진 커버에서 영감을 받은 스페이스 다이얼과 마이크로 합동 연상하는 디자인으로 기능적 요소와 기술성까지 업그레이드했다. 이는 세계 3개 스포츠 향사로 매년 전 세계를 돌며 리운드를 펼친다. 2010년 바르셀로나 시계으로 유럽, 영국 일부를 거쳐 한국의 전설 양명에서 7번째 리운드를 마쳤다.



문의 02-3445-6477~9



삼푸형 비듬 치료제, 세비프록스

어깨 위에 내린 한눈을 위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삼푸형 비듬 치료제가 나왔다. 세비프록스는 항진균·항염 작용을 하는 시클로피록스 올라민 성분이 각종 두피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의 비정상적인 번식을 억제해 보다 효과적으로 비듬을 관리해준다. 또한 은은한 향을 지녀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으며, 칸디다균을 함유한 모발까지 부드럽게 해준다. 가격 10,000원대

잠뱅이, 2AM 광고 모델 재계약

대မ် 브랜드 잠뱅이는 최근 슬릭과 아이돌 그룹 2AM과 2011년 S/S 시즌 광고 모델 재계약을 진행했다. 조권, 임슬옹, 장민은, 이창연의 이름을 딴 서로 다른 라인의 대မ်을 2월 중순부터 대역적인 마케팅을 시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412-0541



MAXIM PARTY



TOUCH ME NOW

갈수록 짙어지는 파티의 농도, 어디 한번 느껴볼 때가?

BY 김희성 PHOTOGRAPHS BY 최한승, 강기원

COOPERATIONS **Go!** CLUB GLAM, MASS



TOUCH ME PARTY

부비부비 한 번 하려다 퇴짜 맞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당신이라면 터치미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에 눈이 번쩍 뜨였을 거다. 아, 아직도 터치미 파티의 존재를 모르는 불쌍한 짐승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마. 터치미 파티는 터치해도 되는 자신의 신체 부위에 양중맞은 손바닥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신나게 노는 파티다. 당신은 그녀의 등에서 손바닥 스티커가 붙은 곳을 찾아 그저 터치만 하면 된다. 입술 모양 스티커가 붙은 곳은 키스해도 좋다. 반대로 당신 엉덩이에 손바닥 스티커를 붙여놓는다면 예쁜 그녀가 당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자상낙원이 바로 여기다!



HOTTER AND HO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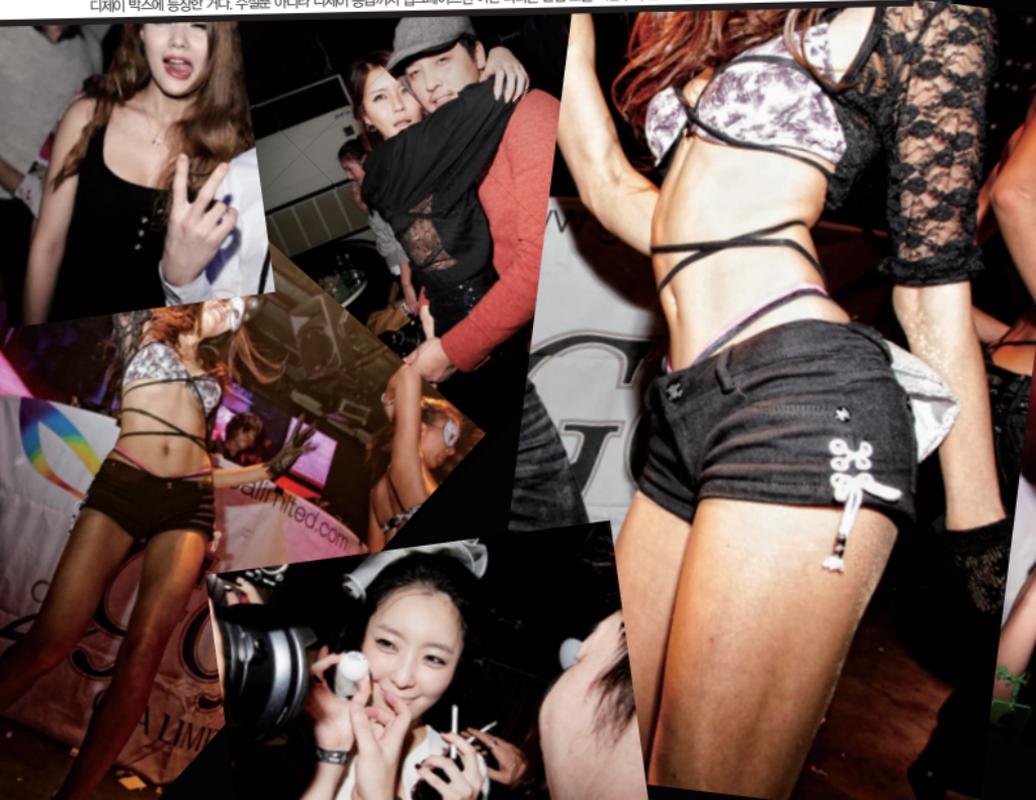
그동안 이 좋은 걸 왜 몰랐는지 후회감이 밀려오지 않나? 이미 지난 두 번의 파티로 입증된 터치 미 파티의 열기는 이날도 하늘을 찔렀다. 새로 오픈한 클럽 글램GLAM에서 열린 이번 파티는 터치 대열에 합류하고 싶은 클러버들로 이른 시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두 번 터치미 파티를 맞본 사람들은 한층 강도 높은 터치로 파티의 분위기를 더 뜨겁게 달궜고, 터치 미 파티가 처음인 사람들도 이 분위기에 금세 동화돼 터치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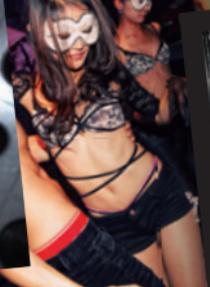




ELECTRXX PARTY

을 좋기로 소문난 파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2009년 전 세계 일렉트로닉 뮤직 차트에서 9위를 기록한 독일 출신 DJ 듀오 일렉트릭스*가 클럽 매스(MASS) 디제이 박스에 등장한 거다. 수질뿐 아니라 디제이 등급까지 업그레이드된 이번 파티는 클럽 오픈 시간부터 밀려드는 인파에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DJ

OF THE DAY ELECTRIXX

이날 DJ에 빅스에 등장한 일렉트릭스는 전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뮤직 차트에서 '테트리스' 라는 곡으로 1위를 거머쥐며 해상처럼 나타난 일렉트로 하우스 뮤직 듀오다. 그들은 무려 월드디즈나 시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귀한 몸이다. 미니 하우스와 미니 하우스의 음탕한 부비부비의 뒤편 그들이 있는 건가 이렇게 설 새 없이 밀려드는 러브콜을 소화하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들이 DJ인하는 음악에 몸을 맡길 수 있구나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

SEXY COYOTES COME BACK

지난 8월 뜨거운 여름밤을 더욱 화끈하게 달궜던 코요테들의 습격, 기억나나? 이별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코요테들이 이날 클럽을 재습격했다. 무대 양 옆에 마련된 실 카튼 안에서 풍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그들의 퍼포먼스에 낮이 나간 극대들의 눈빛은 이날도 여김없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핫한 코요테들의 모습에 궁극한다면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를 방문할 것



STYLE

SUPER

SNOW

BOOTS

BY 고재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철
HELPER 홍석준(스군) COOPERATION 나이키 코리아 by 스군(shopgunshop.com)



당신이 나이키
운동화에 미쳐 있다면,

제아무리 좋은 모드로 전향했을지라도 이번 겨울 스노보드를 타지 않고는 못 배길 거다. 나이키 스노보드 제품은 2009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했지만, 국내 오프라인 스텝을 통해서도 2010년부터 구입이 가능해졌다. 국내는 판매처가 3곳 밖에 없으니 최소 가격도 높은 편. 오스트리아 출신의 스노보더 GG R.J.F와 합작해 만든 제품으로, 운동화 전문 브랜드답게 만족스러운 피팅감을 선사한다. 보온성과 입착성을 높여 기능성도 뛰어나다. 439,000원 R.J.F / NIKE ZOOM KAUJ

01

부츠 고르기

1. 발함과 발수는 기본
2. 발과 신발의 한상적인 속궁합. 스노보드는 발의 앞뒤로 움직이면서 타기 때문에 앞꿈치와 뒤꿈치가 신발과 딱 맞아야 한다. 뒤꿈치를 부츠에 밀착한 상태에서 앞쪽에 닿은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귀찮지만 매장에서 직접 착용해본 후 구입하자.
3. 보드 타는 스타일에 따라 선택
 - 소프트 부츠: 에어나 트리를 즐기는 프리 스타일 보딩에 적합. 발목 높이가 낮고 외부 두께가 얇으면 발목을 다칠 수 있으니 초보자는 금물
 - 하드 부츠: 스피드를 즐기는 알파인 보딩에 적합.

02

부츠 보관법

신발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물기만 닦으면 된다. 습기를 제거하도록 신문지를 안에 넣어 실내에서 보관하자.

03

부츠 성형

당신의 여친 얼굴만 뜯어 고쳐주는 법 있나? 부츠도 성형을 한다.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 양복은 테가 나지 않고 불려만여 어색한 데 그치지만, 발에 맞지 않는 스키 부츠는 당신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당신의 발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당신 발과 출연일체라는 신발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스노 부츠는 스키 부츠와 달리 신고 타도 보면 내 발에 맞게 숨이 죽기 때문에 보드를 타기도 전에 성형 할 필요는 없다. 부디 이번 겨울엔 김스 인생을 피하는 거다. 알겠지?



새해다짐

새해가 별거냐. 어차피 3일도 못 길 다짐인데 해서 뭐 하게
올해도 그냥 지근차림 지내려나.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김태연 ASSISTANT 김태성



담배 많이 피우기

- 상색 바니 28,000원 팔 by 로닌
- 헤드폰 55,000원 프렌즈 by 로닌
- 상색 재킷 653,000원 침스틴 by 로닌
- 지퍼를 머리끝까지 열릴 수 있는 검정색 후드 집업 110,000원 최이브 스트로베리 by 로닌
- 형광 주황색 코그로 엇몸 낸 하늘색 장갑 110,000원 노그렘 by 로닌
- 파란색 텐츠 455,000원 침스틴 by 로닌
- 파란색 퀘장이 워밍 빨간색 운동화 79,000원 반스

술 먹고 개 되기

방울이 달린 형광 주황색 비니

40,000원 락스바라 by 레드스토어

검정색 헤드폰

85,000원 프렌즈 by 레드스토어

다양한 색이 화려한 재킷

320,000원 미트플라이 by 레드스토어

양손에 다른 색깔을 착용하면 더 멋진 보이리장갑

130,000원 섀빅 by 레드스토어

보라색 팬츠

110,000원 릭온 by 레드스토어

보라색 신발끈으로 포인트를 준 노란색 운동화

83,000원 헤드



다이어트 포기

주황색 장이 담긴 오자
 55,000원 뷔트 by 프리즘
 고급 159,000원 예샤버리 by 프리즘
 재킷 330,000원 뷔트 by 프리즘
 감성색 티셔츠
 55,000원 뷔트 by 프리즘
 밴드 330,000원 뷔트 by 프리즘
 부츠 59,000원 호킨스



태찌개



게임 중독

얼약 150,000원 지퍼 by 소근
헐렁 안에 쓴 검정색 배니
가죽 마킹 플립오나코
카툰 그림으로 엮을 낸 재킷
300,000원 웨스트비치 by 소근
일리타리 노랑의 뽀족
401,000원 불협 by 소근
규제 운동화 298,000원 고개
XBOX 360 신형 200GB 기준
300,000원대 후반 MS

흥청망청 살기

청량 연두색 프레이밍의 고급

130,000원 그레네이드 by 아이프로

두 개의 신발끈을 30이시 연출원 목에 긴 벨트

각 5,000원 그레네이드 by 아이프로

재킷 363,000원 그레네이드 by 아이프로

할색 티셔츠

58,000원 네트 by 아이프로

다량함 백지가 프린팅된 원츠

228,000원 그레네이드 by 아이프로

슈미 유난 운동화

300,000만 원대 SFX



인 셋기

비니 32,000원 버튼 by 스노우엘스트리트
패치워크 무늬 재킷
310,000원 688 by 스노우엘스트리트
브라운 매시지백
115,000원 양케이스
주드 린서프
88,000원 바운드 by 스노우엘스트리트
별감서 펜드
254,000원 디비 by 스노우엘스트리트
무즈 58,000원 율킨스



글라리안트 세이빙 풀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이 녀석은 무알코올 성분입니다. 독하지 않아 연도시 화끈거리지 않습니다. 150ml 30,000원

나뭇잎 세이빙 풀

거품의 향은 인위적인 데 반해 거품의 질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200ml 6,000원

오리진스 블레이드 러너

부드러운 크림 타입으로 연도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150ml 25,000원

AFTER 세이빙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더 즐기게 하고 끝까지 뒤야 꼬이지!

코리야나 녹두 유로 에프티 세이브
한국산 녹두가 수분을 제공하고, 각종 천연 복합 식물 추출물이 피부를 조절합니다. 엔디, 옥수수 등을 발효해 얻은 식물성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줄입니다. 30ml 25,000원

에스오 스포츠 아우어틱 스킨 에센스
젤 타입의 스킨 에센스로 약간 묽은 편이다. 자성 피부에 적합하다. 120ml 28,000원

다비디스 화이트 머스크 로 맨 에프티 세이브 밤
연도 후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바르자. 일교차에 따라 성분은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이다. 75ml 24,000원

플라기 에프티 세이브 로션
제품을 열자마자 뿜어 나오는 강한 향 때문에 자극도 심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리진스에 미안한 피부에 더 잘 맞았고 주위에 사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100ml 73,000원

게스트먼트 알로에 베라 에프티 세이브 로션
연도 후 가려진 피부에 알로에 베라가 듬뿍 담긴 제품을 발랐더니 금세 촉촉해졌다. 150ml 38,000원

66*30 Day Cycle

프랑스 프리미엄 유기농 화장품으로 피부의 경사 각도를 의미하는 브록스 이물질 제거 자연 발생가 들어간다. 연도한 후 화끈거림이 없게 되고 촉촉해졌다. 50ml 73,000원

HELPER

남성 그루밍의 선두자 이송훈은?

—남성 그루밍 전문 온라인 샵인 '에프티에스애플 스타 이송그루밍' 대표(hnadamapple)
—대한민국 최초 남성 그루밍 커뮤니티 '뷰티홈' 운영자(cale.dam.net/beautyhome)

FIX YOURSELF

V 라인이며, 내게 오라!

BY 김진욱

검지와 중지를 벌여서 V자를 만든다.

턱에 가져다댄다. 이런 ㅅ...!!

BEFORE

헤드폰을 끼면 얼굴과 상크로로 100%. 동그란 안경과 헤드폰을 같이 착용하는 날엔 얼굴 위로 올림프 요르기가 피어났다. V 라인을 만들기 위해 틀러 같이 골라냈다. 이젠 피가 옥수수 수염물로 변할 것 같다. 의술이든 도술이든 뜬이 고치고 싶네!

ING

상담 결과 받아야 할 시술은 3가지씩이나 됐네요. 아이스 보톡스 프로그램(뉴미아디스+사각턱 보톡스), 지름 불살 프로그램(HFPC)이다. 우선 뉴미아디스로 피부에 긴장감을 준 후 지방과 근육을 줄여주는 보톡스 주사를 맞고, 집중적인 지방 분해에 적합한 HFPC 시술을 받기로 했다.

—간단한 시간으로 노폐물을 제거한다. 상냥한 간혹사를 따라 시술실에서 들어가면 녹색 천대 위에 단상과 똑같은 동글들이 놓여 있다. 생각보다 남자가 많다.

—뉴미아디스 시술은 아이스 고주파로 피하지방층의 지방을 녹이는 거다. 차가운 투명 크림을 얼굴에 발라 얼굴은 시원하지만 피부 안쪽은 뜨겁다.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다(지방은 피부 안쪽에만 있으니까). 청량하고 상쾌하다. 와우! 이것만으로도 얼굴이 무척 작아지는 느낌이다.

—본격적인 시술로 사각턱 보톡스 주사를 맞기에 앞서 의사 선생은 견을 준다. 잘못 맞으면 입이 돌아갈지도 모른다. 입을 크게 벌리고 두부는 과정을 반복하는 무척 익숙한 단계를 거쳐 주사 놓을 지점을 정확히 포착한다. 일반 주사처럼 따끔할 뿐 아니라 고통을 필요 없다. 주사 공포증이 있다면 사전에 얼음찜질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방법. 단, 찜질은 100% 셀프 서빙!

—지름 불살 프로그램(HFPC)은 레이저 HF 시술과 HFPC 주사의 정점만 결합한 것만으로도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고 새로운 시술 방법이다. 사각턱 보톡스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술하지만, 지방과 근육을 동시에 녹이는 보톡스에 비해서 HFPC는 좀 더 세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 벅카바스터와 같이 강력하고도 정확하게 피아 지방의 지방만 공격하고 혈류 순환의 속도를 높여 좀 더 사파한 V 라인을 만들어 준다든 얘기!



BEFORE

AFTER

AFTER

—시술 직후 얼굴이 무척 팽팽해진다. 라면 다섯 개는 처먹고도 답답할만한 듯하다. 약효가 먹히기 시작했다.는 신호기 기쁘게 생각할 것

1-주 후

부기가 빠졌으나 원래 얼굴 크기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 피 갈은 동안 날렸는가 하고 의심과 후회를 잃는는 시기다. 사람들이 다르지만 보통 3~4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참아보기로 한다.

2-주 후

턱관절에 힘이 안 들어간다. 보톡스 약효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음식과 침을 질질 흘리는는 다물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한다. 참고로 예전에는 원래 질질 흘려왔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꼈다.

3-주 후

효과가 조금씩 보인다. 완벽한 점이 조금씩 이그러져서 탄원형을 띠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밀도 안 되는 거대는 하지 말자. 그 특성이 완벽한 개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열차를 가져다. 당시 얼굴에 360° 가 아닌 굴절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현대 의학의 쾌거이며 승리가 축복이다.

피부와 전문의 명우재 원장은?



- G클리닉 가정
- 한류비건클리닉 영정 영익
- 비움클리닉 영정 영익
- 대한비건저희의원 상림이사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G클리닉 네트워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 4번지 에프티에프티 6층
www.gclinic.net/02-546-2575

커플룩 제안

나이차 극복 프로젝트

나이 어린 여친이랑 데이트할 생각하니 쿡쿡이 벌름벌름하잖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향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지 않나? BY 권희성

주도 로:
영화배우, 1972년생
시애나 밀러:
영화배우, 1985년생

엔리크 마시아노:
영화배우, 1973년생
올리비아 줄:
모델, 1985년생

웃어웃어

올란드 볼름:
영화배우, 1977년생
레안나 카:
모델, 1985년생



TIP1 포인트가 생명이다

영화배우 엔리크 마시아노는 톱모델 릴리콜과 두려 열다섯 살 차이가 나지만게다가 릴리콜은 베이비 페이스로 유명하니까 잘 어울린다. 언뜻 보기에 엔리크 마시아노의 스타일이 굉장히 캐주얼이지만 듯 하나 찬찬히 뜯어보면 젊어 보이려고 발악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빨간색 티셔츠 '청바지+흰색 흰색 재킷'이라는 무난한 조합에 빨간색 티셔츠로 포인트를 줬다. 밝은 색상의 티셔츠는 당신을 밝고 활기찬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동안 필수 아이템. 반드시 영성해야 할 건 포인트는 한 가지 색깔로 충분하다는 거다. 빨강, 파랑, 노란색을 한꺼번에 매치해 인간 신호 등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 페도라 클래식한 의상에는 더욱 중후한 면을 내고, 캐주얼 복장은 더욱 말끔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아이템이 바로 페도라다. 재킷과 잘 어울린다면 장식이 없는 페도라는 당신의 짧디 짧은 사이츠도 뚝뚝 눌러주는 마법술 부린다.

→ 선글라스 동안 필수 아이템은 아-아! 당신을 트렌디한 남자로 보이게 해준다. 노안을 가려주기도 하는 고마운 녀석

TIP2 라이더 재킷을 입고 입혀라

모든 신생 커플이 입는다는, 골돌이가 가슴 정중앙에 딱히나 박힌 커플 후드티는 보는 사람의 손길을 오그라들게 한다. 티 안 나게 고친 얼굴이 잘된 생형 이듯, 다른 듯 어울리는 커플룩이 진정한 긴가닥. 영화배우 올란드 볼름과 톱모델 미란다 커. 엔리크 마시아노와 릴리콜 커플처럼 말이다! 라이더 재킷을 입되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아이템을 고르자. 차가운 도시 남자의 뜨거운 애정도를 보여주는 말이다.

→ 여자 친구에게 라이더 재킷을 입고 당신도 라이더 재킷을 입어라. 라이더 재킷은 여친을 섹시하고 시크한 연인으로, 당신을 스타일리시한 '오빠'로 변신시킨다.

젓에서 살리권이 나오요



TIP3 스카프 하나로 목에 힘주기

예까지 말린 이혼남 주도 로는 어떻게 자신보다 아홉 살이나 어리고 예쁜 여친을 사귀 수 있었을까?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란한 변신을 시도하지 않고 작은 디테일의 변화로 한층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당신의 스타일에도 마법을 부릴 때가 되지 않았나?

→ 스카프를 이용한 코디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센스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눈치 챘겠지만 (예라는 외박중)의 장근석과 (스키트 가든)의 현빈은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여주인공의 마음을 후리고 있다(그게 단지 스카프 때문만은 아니겠지 ㅜㅜ). 스카프의 장점은 캐주얼과 세미 정장 등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는 거다. 주도 로처럼 넥타이 대신 스카프를 활용해 센스 있는 남친으로 빙의해보자. 화려한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팽팡남에게는 ज्यायाना 자신의 옷 색깔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는 것이 무난하다. 스카프가 도저히 부담스럽다면 목이 굵은 머플러를 활용할 것.

MAXIM 정기 구독 신청 방법

JANUARY 2011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99-90002-00904 국민은행 18681-01-004886
 농협 355-0006-0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9-107032-04-013
 제일은행 117-20-225316

MAXIM KOREA 웹사이트(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정기 구독 신청권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2011년 1월호부터 가격 인상

2011년부터 MAXIM의 책 가격이 500원 인상 되었습니다. 국제 종이가격 상승, 인건비 및 유통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오니 독자님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더 재미있는 기사와 화보도 보려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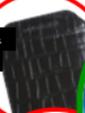


연극열전 3

(오할렌 결혼할 거야) 티켓

스타일요금

가족 휴대용 케이스
(흰색, 검정색, 밤색)



소년을 위한해피

은희경 지음

(소년을 위로해줘)

BVLGARI

green jade(여성용 향수) 40ml

정기구독이 한 달 동안
최저 가격 유지

2011년 1월 21일까지

1월 21일까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가격 인상 전 가격으로 훨씬 저렴하게 MAXIM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가의 선물은 더욱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남성 화장품

TASK 애프터 셰이브

연극열전 3

(너와 함께라면) 티켓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활동할 때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입니다. MAXIM 홈페이지 회원은 가진 떡을 현금처럼 구매하여 할인, 유료 파일 다운로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떡=1원)



강글

후드 집업



CIARA

BASIC INSTINCT



시세이드

우노 포그바 헤어 스타일링제

6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0원)

27,300원 + 1000씩 적립

(1년당 850원 할인)

12개월 정기 구독

(정가 64,800원)

51,700원 + 2000씩 적립

(1년당 1,032원 할인)

24개월 정기 구독

(정가 129,600원)

97,600원 + 4000씩 적립

(1년당 1,032원 할인)

36개월 정기 구독

(정가 194,400원)

137,300원 + 6000씩 적립

(1년당 1,561원 할인)

(2011년 1월 21일까지)



연극열전 3

(웃음의 대학) 티켓



헤라 울드

디딤스 세이빙 존 마스크팩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티켓



배준길 지음

(거지 유학생)

BVLGARI

blue homme(남성용 향수) 50ml



- * 위 사진의 정기 구독 선물은 2010년 12월 16일 현재 남아있는 선물입니다.
- * 선물의 특성상 조기 품절되고 다른 선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서두르세요!
- * 6개월/ 12개월/ 24개월 기간별 정기 구독 선물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반드시 www.maximkorea.net을 참조하세요.
- * 정기 구독 선물을 선택한 경우, 선물과 함께 첫달에 한하여 배송비(2,500원)가 부과됩니다.

MAXIM 독자 공짜 광고 페이지

한 페이지에 수백만 원씩 하는 집지 광고, 돈 많은 자동차 회사, 명품만 하라는 법 있나? MAXIM이 독자를 위해 지면을 내놨다. MAXIM에 광고를 내고 싶은 개미들 누구라도 신장만 해라. 동네 미용실, 애인 구하는 노처녀, 미니홈피 히트수 올리고 싶은 사람, 무명 가수, 바람난 여친을 공개 비난하고 싶은 군인, 취직하고 싶은 백수, 알바생 구하는 호프집, 누구라도 좋다! 거리가 가까우면 광고 사진 촬영도 해준다.

신청방법

무슨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를 적어 freead@maximkorea.net 으로 보내라.
사진이 있으면 더 좋다.

광고효과?

MAXIM은 전국에서 종이 매거진, e매거진, 아이폰 매거진, 아이패드 매거진의 형태로
매월 9만5천 명 내외의 독자에게 읽히며, 매월 108만 명의 네티즌이 MAXIM 홈페이지
인 www.maximkorea.net 을 방문한다.

FREE AD



▶ 편집부에서 공짜 광고를 해준다는 사실을 아직 사정은 모른다. 잡지가 나와서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품이면 우린... 후일담이지만 책임은 우리가 진다. 어떻게든 막아볼게



물컹한 팔뚝과
 수박 한 통을 통째로 먹은듯한 배..
복근 만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운동은 언제까지?

포기하지마라! 여심을 흔드는 남자의 매력

바쁘다는 핑계로 포기해버린 복부관리

바쁜 당신을 위한

초이스피부과의 복부관리 시스템

 **초이스 피부과의원**

MAXIM

KOREA

BASIC INSTINCT
팝스타 CIARA

STYLE
당신을 빛나게 할 보드북
보톡스로 얼굴 라인 잡기

GAME
2011 온라인 게임 대전

JAPANIMATION
일본 애니 왜 이러나

아나운서 의상 논란
초미니스커트가 왜?

MAXIM 법정 #3
형법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STUFF
COOL 디카로 담은
HOT 란제리

ICON: 윤종신

WAR
캐내고, 숨겨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정보전

A-Z: 오컬트의 세계
마법, 악령, 주문, 해리 포터

〈도전!슈퍼모델〉의
Analeigh Tipton

- ▶ 바둑 금메달 이슬아 2단
- ▶ 열쌍시대 2 김슬미
- ▶ 착한글래머 엄상미 #2
- ▶ 굿시니스트 카툰
- ▶ 현대/혼다/볼보/푸조/미니/렉서스
- ▶ 김 매니저의 주식 이야기

우승자 결정 임박!
GIRL NEXT DOOR
TOP 5

2011년 1월호
정가 5,400원